1971년 12월 25일 인쇄
1971년 12월 30일 발행

〈제 126 호〉

문학

1971

- 자유중국 공군총사령 진의범 (陳衣凡) 상장 (上將) 내한 -

자유중국 공군 총사령 (공군참모총장) 진의범 (陳衣凡) 상장 (上將)이 11월 30일 오후 4시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수행원 5명과 함께 CPA편으로 내한, 6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공군의 주요 일선 기지와 판문점을 시찰했다.

사진.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이 진의범 (陳衣凡) 자유중국 총사령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71년도 공군 정훈 시범대회 실시
71년도 정훈 시범 대회가 11월 19일 국방부 정훈관계자와 각 군 정훈감 및 과장, 각 부대 정훈관계관과 많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3967부대에서 실시됐다.

전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12월 7일 옥만호 참모총장 주재로 전 공군 전술 및 후방 부대 지휘관과 공본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괴 공군의 최근 동향 분석에 이어 정예공군 육성 방안과 비상시국에 처한 전투태세완비책 등이 논의되었다.

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수여
10월 21일 공군본부에서는 군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이 거행됐다.
사진. 영예의 수상자들.

71년도 일반 국정감사 공본수검
71년도 일반 국정감사가 11월 15일 공군본부 기획상황실에서 있었다.

표지화, - 이재철
사진화 - 이재철
사진화보 : 표지 2~3면 , 차례 뒤

「공군」 제126호 차례

<권두언> · 정훈감 신찬 (2)
현 국제정세와 우리의 자세 · · · · · · · · ·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홍모 (4)
내외 시련기의 지도자 · · · · · · · · · · · · 신아일보 논설위원 정운종 (11)

특집 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정신

군인 정신요소 7장

【1장】 군인과 애국심 · 심사수 (18)
【2장】 필승의 신념 · 전경은 (27)
【3장】 충성심 · 유은상 (34)
【4장】 임전무퇴의 기상 · · · · · · · · · · · · · · · · · · · 이상현 (42)
【5장】 진정한 용기 · 김형효 (50)
【6장】 책임의 장 · 강영진 (58)
【7장】 명예 · 김광영 (65)

취미 낚시 초입 유감 · · · · · · · · · · · · · · · 손철영 (74)

=예비역 인사 칼럼= ●나의 공군 복무 시절 · · · · 박제형 (78)
· · · · 남상욱 (82)

◇세계 위인 순례◇ 석가 · · · · · · · · · · · · · · · · · · 편집실 (87)

항공 군사과학
우리나라에서 항공 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 · · · · · 홍성표 (95)
화성 공격 · (108)
신형기 소개 = 바나비아 200= · · · · · · · · · · · · · · · (119)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역사 · · · · · · · · · · · · 강위훈 (126)

수필
• 돈 · · · · · · · · · · · · · · · · 이승녕<문박 · 서울대학원장> (136)
• 히피군인 · · · · · · · · · · · · · 봉두완<동양방송 논평위원> (138)
• 「코티」분 대신에 명란젓? · · · · · · · · 정영희<MBC 아나운서> (140)
• 수치감 · 홍종도 (143)

중공의 유엔가입과 세계정세전망 · · · · · 장두성<중앙일보 외신부> (146)
일본은 재무장할 것인가 · · · · · · · · · · · 양승표<경향신문 기자> (152)

군종 코너
◇ 국방과 군종장교의 책임 · · · · · · 군목 · 이성환 (158)
◇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 · · · · · · · 군목 · 김두식 (163)
◇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 · · · · · · 군목 · 정수영 (168)
◇ 질서 · · · · · · · · · · · · · · · · 군목 · 이학수 (170)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 · · · · · · · · 윤일균<서울신문 전무이사> (172)

공군

〈제126호 : 1971년 제6호〉

<비매품 : 무단전재금>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 겸 편집인 :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최금규
편집실 : TEL. 406-220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권두언▶

새 가치관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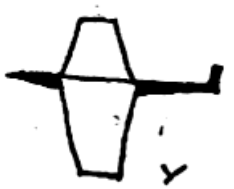
- 행동하는 정예공군의 길 -

지난 12월 6일, 박정희대통령께서는「우리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비상체제로의 전환에 전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옛부터 선각자나 지도자가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으로 나라와 민족의 중대한 위기를 예측하고 경고한 예는 허다하다. 이런 때마다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여 전력으로 힘을 합한 민족은 액운을 면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은 멸망했거나 큰 화(禍)를 입었다. 이러한 사례는 창세기의「노아와 홍수」에서부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는 북한괴뢰의「전쟁 도발의 위협」이다. 저들은 지금, 평화지향의 현 정세를 교활히 역이용해서,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약점을 계산에 넣고, 사치와 방종에서 오는 내부적 불실을 꿰뚫어 무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흉계 속에 있다. 바로 이러한 위협 도발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12. 6. 국가 비상사태선언」의 한 뜻이기도 하다.

정신적 전력의 증강을 바탕으로「정예공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임전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국가비상사태선언」을 계기로 더욱더 또 새롭게 분발해야 할 점은 「전력배가에 직결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설정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강력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장의 종이와 단 일 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데에도 그것이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행동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휴식을 갖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도, 또 운동을 즐기더라도 이것이 전력증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보람이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자세 가운데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력배가에 직결되도록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주자는 것이다.

북괴공군과 대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여건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어떤 전쟁도 만족스런 상태에서 수행된 예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괴로우면 적도 괴로울 것임에 틀림없다. 곤경을 이겨내는 인내력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이므로 창조적 의욕과 감투정신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요소는 알고만 있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화해야 비로소 전력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생활화 하는 데에로 가치관을 설정하고, 강력한 실천이 뒤따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정예공군의 길이며 비상시국하의 우리가 만들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 국제정세와 우리의 자세

=그 특징 · 문제점 · 대책=

양 홍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문 · 방송은 물론 군의 정훈교재에 있어서도 국제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에 관한 기사 · 해설 · 논평 등은 신문 · 방송 · 군의 정훈교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라디오」 한 대만 있으면 깊은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세계정세를 아는데 불편한 것이 없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또 달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즉각 알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의 부락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세계정세를 한 마을에서 일어난 것처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우리들 가운데는 남의 나라 일을 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다급한 일에 쪼들리다보면 국제정세를 안다는 것은 2차, 3차의 문제가 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 남의 나라 사정과 각국 간의 움직임을 모르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하나의 상식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또 행복과 번영의 길을 찾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정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훈교재에서 취급되는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불퇴라는 말은 이 경우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과 대책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 긴장완화의 움직임

일반적으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긴장완화의 움직임이다. 국제정세의 긴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전쟁 또는 냉전 그 밖의 적대행위와 가해행위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긴장완화란 바로 그러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세는 대체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70년대의 특징은 바로 긴장완화의 움직임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구라파의 서독과 「베를린」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구라파에 있어서의 동 · 서 냉전의 초점이었다. 1948년 6월 18일부터 1949년 5월 12일에 이르는 약 1년 간에 걸친 「베를린」봉쇄,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경계선에 동독이 장벽을 구축한 것은 서독과 「베를린」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의 「클라이막스」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70년 8월 12일에 조인된 서독 · 소련 간의 조약, 동년 12월 7일에 조인된 서독 · 「폴란드」 조약을 비롯해서 70년에는 3월 19일 동독의 「에어프르트」에서, 5월 21일에는 서독의 「카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 · 서독 수뇌회 담이 있었다.

71년 9월 3일에는 미 · 영 · 불 · 소등 4대국 대사간에 「베를린」 협정에 가조인했다. 이는 다 같이 구라파의 해방과 긴장완화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국제간의 문제를 무력 아닌 말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시야를 「아시아」로 돌릴 때 「아시아」에서도 구라파보다는 조금 늦지만 「대결」 아닌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중공방문을 발표하자 세계는 극적으로 전환하는 미 · 중공 관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것은 기성관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중공과의 대화를 위해 중공방문을 발표했다. 물론 앞으로 있을 미 · 중공 수뇌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이 토의대고 어떤 타결안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과 더불어 미 · 중공 관계가 과거의 경화된 대립으로부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것은 그렇게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세계는 현재 긴장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긴장완화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세의 특색을 찾는다면 긴장완화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3극 구조의 현상

둘째로 현 국제 정세의 특징은 3극 구조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극이 란 지축의 양쪽을 말하는 것이다. 3극의 구조란 과거의 양극 구조와 대조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 · 소 지배체제였다. 특히 1945년 2월의 「얄타」회담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세계를 「얄타」체제 또는 미 · 소 지배의 양극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양극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는 새로이 3극체제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중공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중공은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을 비롯해서 이번「유엔」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중공의 「유엔」 가입은 현재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자유중국과 막 바꾸는 경우와 이른바 「복합대표제」라고 해서 중공에 「유엔」 의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의석까지를 중공에 주되 자유중국에는 그대로 의석을 계속 유지케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알바니아」안이요, 후자는 미국 등 자유국가가 내놓은 안들이다. 이번 총회에서 어느 것이 통과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중공은 자유중국이 「유엔」과 어떤 관계라도 가지고 있을 때 「유엔」과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을 것을 지난 7월 15일에 천명한 바 있다. 그래서 중공의 「유엔」 의석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주는 이른바 「복합대표제」가 통과되어도 중공이 「유엔」에 들어올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볼 때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이라든지 유엔에서의 중공가입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중공이 국제적으로 크게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공은 과거와 달리 소련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중 · 소의 첫 대항은 대체로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을 내세웠을 때라고 보고 있다.

그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중 · 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치열

한 싸움을 계속해 왔다. 현재 중 · 소간의 관계가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는 지난 8월 26일 6주간에 걸쳐 중공을 방문한 후 「홍콩」에서 가졌던 「뉴욕 · 타임즈」 부사장 「제임즈 레스톤」 씨의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중공방문 중 주은래 수상을 만났는데 『중공의 최대의 적은 1백만 대군을 국경에 대결시키고 있는 소련』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9월 하순에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소련방 최고회의 간부회의장 「포드고르니」는 월맹과 인도 · 소련 수상 「코시긴」은 「캐나다」, 「알제리」, 「노르웨이」,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소련 수뇌의 동분서주는 대중공 대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의 미 · 소 양극체제로부터 미 · 중공 · 소 등 3극 체제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기한 움직임을 볼 때 결코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여기에 만약 일본이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계는 4극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서독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는 5극 체제가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세계는 과거와 달리 다극화, 다원화시대가 도래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겠다.

● 한국이 직면한 내외정세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직면한 내외정세는 어떤 것인가.

한국은 전기한 바 있듯이 밖으로는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의 움직임이 직면해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이른바 3극 구조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한국이 직면한 내외정세는 과거에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군 2만의 감축(기년 6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의 개회(9월 20일 제1차 예비회담) 등을 비롯해서 미 · 일간의 「오끼나와」 반환협정의 조인(6월 17일),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내년 5월까지로 계획됨), 중공의 「유엔」 가입가능성 등등은 직접 간접으로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다.

이같이 한국이 직면한 내외정세를 분석해 볼 때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세도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천하는 정세에 적응해서 우리의 자세도 그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덮어놓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의 견지에서라든지 국가의 이익을 찾는 견지에서 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정세가 긴장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그에 따라 전략 · 전술을 바꾸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튼튼히 하면서 국가이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긴장완화라는 움직임에 우리만이 종전의 자세를 보일 때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우리의 고립을 가져오기 쉽고 우리의 인상을 나쁘게 할 염려가 있다.

또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대외원조라든가 대외개입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국을 감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군을 감축시키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그에 대체할 만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언제까지고 미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계가 다극화 현상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하루하루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변천하는 정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침이 설정되고 있다. 국제긴장완화에 발맞춘 남북적십자회담의 추진, 「닉슨 독트린」에 대비한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추진, 다극화세계에 대한 다변외교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정세적응의 문제점

이러한 가운데 문제점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세에 적응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현 정세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하면 첫째로 현 정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다. 현 정세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긴장완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달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남북한 적십자회담의 경우 그것을 지나치게 평가하여 통일이 금방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현 정세가 과거와 다른 것은 다만 현실관계가 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선악시비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이 들떠 다가올 결과를 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가 있다고 해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혁명 전략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와 반면 현 정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예 변천하는 정세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제정세가 변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정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 다는 것은 다 같이 현명하지 못하다. 정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때 거기에는 쓸데없는 비관이라든가 또 지나친 낙관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것은 다 같이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는 것이다.

둘째로 현 정세와 더불어 파생하기 쉬운 것은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변천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 인지를 모르고 좌고우면 하면서 과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라든가 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은 다 같이 위험천만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문제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세변천이 실제적으로 한국의 진로에 시련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중공이 「유엔」에 가입된다고 할 때 그것은「두개의 한국 론」을 자극시키기 쉽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긴장완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미국의 대한지원 같은 것이 축소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변천하는 현 정세와 더불어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주목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다.

● 현 정세에 대한 자세

그러면 이와 같은 정세 변천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현 정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낙관이나 비관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확한 정세판단을 해야 한다. 모든 대비는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다. 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면 그 대비는 자연히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관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적십자 회담의 경우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분석평가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북괴의 도발을 직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우리는 수가지 대책에 철저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회담에 대한 대비, 또 하나는 북괴도발에 대한 대비이다. 만화경처럼 움직이는 정세의 한 가지 면만을 보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대비는 다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더불어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관념의 철저이다. 국가안보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질서의 유지발전이다. 현 정세와 더불어

갈피를 못 잡을지도 모르나 국가안보라는 것은 정세가 어떻게 변천하든 철두철미 지켜야 할 천고의 원칙이다. 국가안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탈 것 없이 모든 부면에서의 발전을 말하며, 거기는 우리가 가지는 신조와 생활까지도 포함되는 것 이다.

정세가 변천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투철히 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오늘날의 정세변천과 함께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주체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만한 자신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실력이 있음으로써 자신이 있는 것이다. 실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가지게 되며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넷째로 크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총화이다. 정세가 격변할수록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론의 통일이며 국민의 단결이다. 이는 국론이 분열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론이 통일될 때 그것이 국민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큰 것이며 그것은 어떤 국란도 타개할 수 있는 힘으로 승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다.

<명언>

◇ 거의 모든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수년간의 수업시대와 면치 못할 유랑생활의 뒤에 기쁨과 애정을 안고 다시금 더욱 더한 자연스런 정애(情愛)에 이 밤의 스으프를 둘러싸게 되는 단란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 단란 이야말로 학자, 철학가, 정치가, 군인, 예술인 등을 차가운 냉혹 세계에서 지내온 쓰디쓴 날들의 끝말에 또다시 사람의 지식으로서, 어버이로서 형제자매로서 더 간단히 말하면 인간으로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모로아>

◇ 대부분의 인간은 교우관계에 있어서 편의와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친구의 장점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거나 하지 않고 상대방의 지위 에만 주목한다. 그들은 조각상(彫刻像)을 보지 않고 대석(台石)만 보는 것이다. <「아델 뽀나알」"우정론">

내외 시련기의 지도자

정 운 종
〈신아일보 논설위원〉

□ 피할 수 없는 시국

급격한 내외징세의 변천 속에서 세계관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냐 하는 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흔히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지도자의 존재는 구원의 성자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처럼 외교적 시련기에 처한 우리 현실은 더욱 이런 지도자가 요청된다 하겠다. 마침 「우리의 지도자상」에 일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문제에 논급할 기회가 생겼으나 필자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정론(定論)이 될 수 없고 순 객관적일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그리고 지도자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동서고금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일이 인용할 필요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에 언급하려 한다.

□ 시대적 자각과 민족의 단결

지금 우리 한국은 세 번째의 민족적 일대 시련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화의 거센 파도가 이조 말의 한국을 두드렸을 때 근대화의 주체적인 수응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첫 번째 시련기라 한다면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스스로 획득할 만한, 그리고 일본의 패전에 의한 진공을 주체적으로 메우지 못한 결과 외세에 의단 국토분단의 비운을 불가피하게 초래한 시기를 그 두 번째 시련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련기는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주체성 있게 통일해 갈 수 있느냐에 관한 중대한 시련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오늘을 말한다.

□ 내외 시련기의 지도자

역사가 증명하듯 첫 번째 시련기로 지적되고 있는 대원군(大院君)의 무모한 쇄국은 그 당시 지도층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대조류를 판단, 신문화를 수용하는 주체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그 당시 위대한 지도력을 소유한 구국적 투사로서는 김옥균(金玉均) 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 이 청년개화파의 형성과 맹활약은 비록 시기를 놓친 불발의 구국운동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를 지배한 세도정치 주인공들의 단견과 무능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시대적 감각을 상실한데 대한 좋은 경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닥쳐온 시련기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민족이 벌인 독립운동을 강조하게 된다. 한일합병 전후의 조정 중신(重臣)들의 항사(抗死)나 의병의 봉기, 그리고 3 · 1운동과 광주학생사건, 6.10만세운동이다. 이 시대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한일 구국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국내외적인 독립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 운동 자체가 곧 민족의 자주독립에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세에 말려 국토분단의 비극을 저지하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은 이 한(恨) 많은 역사의 울분을 되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울분 속에서 또다시 닥쳐온 민족적 시련기가 있으니 바로 오늘의 세계정세에서 주체 적 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국 정부는 유엔에 의해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3분의 1과 국토의 절반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북괴집단이 주변 강대국 세력 중 소련과 중공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닉슨 미국대통령이 중공방문을 희망, 일설에 의하면 10월 중에 중공을 방문하리라는 보도도 있고 이 글이 활자화 될 무렵이면 유엔이 중공가입을 의결한 뒤가 될지 모른다. 우리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국제 정세의 변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마디로 역사적 시련기라 한다면 국내 여론이 비등하다시피 민족의 총화, 국력의 신장, 위대한 지도자가 요청되는 때에 있다 하겠다.

□ 지도자의 역할

과연 이런 시련기에서 우리 지도자의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지도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지도자의 비전이 시류를 따라 변천하고 그 「이데올로기」조차 변해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성장에 있고 경제적 기반은 역시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먼 옛날 민주주의의 본산지 였던 「그리이스」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결여된 채 중우(衆愚)로 자멸과 타락으로 쇠잔했던 역사적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며 민주주의 즉, 다수에 의한 이상추구(理想追求)가 중우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도자나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거니와 이런 경향은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고 있다. 올바른 지도자 없이는 이런 갈등은 더욱 심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을 막는 관건이 된다.

특히 지도자는 그 시대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자라야 하고 지도자가 그 소속단체의 욕구 및 취향과 노력의 총화이며 그들을 이끌고 민족의 행복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한다는 것은 진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지(意志)와 용기(勇氣)의 지도자 「처칠」이 영국에 없었다면 노제국 영국의 「테임즈」 강은 영국인의 붉은 피로 붉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처칠」 경이 절망의 순간에서 그 조국 영국과 국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희망에 불타도록 한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영웅적인 지도자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 언제나 필요한 것도 아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극도의 경제 불황에 봉착했었다.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경제공황을 극복하는데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의 민활하고도 과감한 정책은 그 시대의 시련을 극복하는 구심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통치 하에서 인도의 「간디」옹 같은 지도자는 조국의 분쟁을 막기 위해 무단히 애쓰다 숨져간 위인이다. 다 같이 그 시대에 요구되었던 적절한 지도력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강한 개인의 권력의지(權力意志)를 누르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의 행복과 영화를 위해 역사를 역행시켜 가며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세계를 대전의 와중(渦中)에 몰아넣었던 지도자들도 없지 않음을 생각할 때 지도자를 잘 만나느냐의 여부(與否)는 민족의 사활에 직결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데는 그에게 「리이더쉽」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막스웨브」가 강조한 지도자의 「리이더쉽」은 「책임감」과 「관찰력」이었다. 즉 어느 사건이나 과업 앞에서 그의 온 정열을 그곳에 집약시키는 정열, 철저한 책임의식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힘, 그런 힘을 향해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게 올바른 통찰력(洞察力)을 갖춘 지도자에게 「리이더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바른 「리이더쉽」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의 대의(大義)를 깨닫고 역사과 그 시대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감각에 투철하고 철저한 사명의식 속에서 항상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전체를 포용하는 넓은 덕망과 과단력을 소지해야 한다. 지도자가 아무리 지(智)와 역(力)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전체를 관용으로 포용하는데 실패하여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면 이미 그런 사람에겐 지도력이 상실 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리이더쉽」을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용기와 인내성, 결단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부하에의 설득력, 경손, 창조력, 성실성이 인정되며 고매한 인간성과 총명, 예지의 소지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진국의 정치지도자는 대개 자기가 원하든 않든 국민대중의 감정에 영합하고 그들의 힘을 정치에 동원하려고 노력한다. 파벌주의에서 탈피하고 국내적인 단결과 통일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음은 물론, 그가 국가적 지도자로서 초당파적인 지도자의 특징을 살려가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이상과 같은 지도자 기질이 농후한 인물이 요구됨은 두 말할 여지도 없으며 대통령은 당파의 지도자이면서 초당파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라야만이 국민적인 신앙을 얻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빈약한 재정력과 사회구조 속에 도사린 불만 가운데에서도 현대화(現代化)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애써야 하며 고도의 외교적 교섭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경제개발과 이에 필요한 외원(外援)의 지속적 수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외교교섭 능력이 무한정 요구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 변천기에 흔히 안고 있는 갖가지 악조건 밑에 있다. 경제적 불균형이 그렇고 재정력의 취약(脆弱), 방대한 인구팽창에서 야기된 실업인구(失業人口)의 증가, 사회구조의 단층화, 사회적인 불안 등이 겹쳐있는 현실은 여러모로 정치적 불만을 확대케 한다. 얼마 전 김종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사회에 비만한 삼불(三不) 즉 불안(不安), 불신(不信), 부정(不正)을 추방해야 된다고 역설했거니와 「현대화」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이 삼불추방을 위해서 지도자의 높은 지도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국가적 요구라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우리의 지도자상은 미국의 관리학자 G.E.Terry가 지적하듯 다음과 같은 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면에 충실하고 적극성과 창의성, 확고한 신념, 고도의 판단력, 현실성과 기획성이 바로 그러한 요구이며 이런 지도자의 「리이더쉽」은 진심으로 국민적인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헤겔」은 특히 「한 시대, 한 민족의 지도자란 그 시대, 그 민족의 의지를 표현, 그것을 역사의 의지로 하여 강력히 실천하는 지도자」야 말로 현대사회가 바라는 지도자라고 강조했다.「히틀러」가 모순에 충만한 독재자라면 「뭇소리니」는 교양 높은 허영아라고 지적한 「존 간서」는 「간디」나 「낫셀」, 「맥아더」 원수 등이 20세기 거인으로 한 세대의 지도자상을 말하는 좋은 일례라 했음도 주목할 만하다. 조국이 수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구한말(舊韓末)을 거쳐 해방 이후 국내외에서 나라의 어지러움을 수습하려던 한국의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 박사의 경우나 김구 씨 등 숱한 일화를 남기고 명멸해간 민족의 지도자, 일일이 그 지도자적 소양을 여기 논급할 여유는 없으나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고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던 인물들이 남기고 간 값진 교훈은 영원히 그 국가 민족의 장래에 잊혀질 수 없는 것이다.

혼란의 틈을 타서 국민을 현혹했던 무수한 독재자(獨裁者) 가운데 우리는 흔히 「히틀러」,「뭇소리니」「도저(동조영기(東條英機))」, 세조 등을 든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았을지라도 국민의 피와 땀과 인내의 결정이 다소나마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게 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흑인노예 해방을 이룩한 불후의 업적을 후세에 남겼던 것은 오늘날 한 지도자상을 이야기하는 표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口 맺는 말

하루도 세계관적인 사고방식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앞에 한 지도자에게 부과된 무거운 사명감 이상으로 국민이 그 지도력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시대, 어떤 지도자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지도자가 오래 그 자리를 부지할 수 없었던 것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만 한 지도자를 민주방식으로 선정한 이상 그에게 맡겨진 임기 동안 무한의 힘을 샘솟게 하는 것은 역사 국민협조 여부에 달린 것이다. 이는 한 지휘관의 높은 통솔력 밑에 전 병사가 혼연일체로 뭉쳐야 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이 역사적 시련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에게도 이런 자세는 필연코 요구된다. 누구나 관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당파(黨派)를 달리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차이가 심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국가제도 밑에서 당파를 초월한 대동단결은 일시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국책을 좌우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도자는 특히 그가 어느 한 당파의 대표자이기 전에 국민의 지도자요, 나라의 운명이 양 어깨에 달려 있다는 자각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높은 포용력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점에 있고 지도자의 형안(炯眼)이 모든 선정(善政)에 반영되어 국리와 민복에로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강렬한 것이다.

<명언>

◇ 우리가 하루의 일순간일지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축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로 아침에 기도하라.

또 우리가 식사 전에 하여야 할 가장 훌륭한 기도는 매일 주어지는 양식에 대하여 가장 성실하게 보답할 수 있다는 의식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스킨〉

▲군인정신요소 7장▼

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정신

군인은 국방의 간성이다
국방이 탄탄한 곳에 나라는 번영하고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때문에 한 나라와 국민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전폭적인 기대를 건다.
군인의 명예와 책임 등 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요소는 어디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군인과 애국심

우리의 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애국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애국은 가까운 곳, 작은 일에 있다.

심 사 수

1. 머리말(애국심이란?)

오늘날 누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참 애국심이 많다>라고 칭찬했다든지 또는 <그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고 하자. 과연 이러한 비난이나 칭찬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비난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참 칭찬이 될 수 있을까! 애국심이란 말은 이제 말하기 쑥스럽고, 말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없는, 매력 없는 사어(死語)로 되어 가고 있다. <애국심>보다는 <능력> <실리(實利)>, <합리>라는 말이 더 매력을 느끼게 한다.

모든 불합리를 <애국심>이라고 하는 권위로써 덮어 씌워서,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할 시대는 지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가 <신(神)은 죽었다>고 말했듯이, 애국심이란 것은 이미 죽고 없는 것이며, 없을수록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복지가 더욱 약속되어지는 그런 불필요한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있는 한, 우리의 땅이 민족이 있는 한, 애국은 영원히 되풀이하여 요구될 것이다. 아니 애국 없이는 우리의 삶도 나라도 국가도 있을 수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애국한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구의 나라,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어떤 나라를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할 때, 이것이 애국인 것이며,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을 사랑했다면 애국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국심이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남이 내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내 나라를 사랑하려는 자가 이 지구상에 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애국심은 자주(自主) 국민에게만 있다. 애국심은 자주정신에서 출발한다.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나라가 없는 유랑인이나 국가 없는 무리에게는 애국심이 없다.

애국심은 문화민족, 자주국가의 국민에게만 있는 긍지이다. 시대가 변천하고 사회제도 문명 이 발전하면 할수록 애국심 없이는 그 문화와 제도를 유지 · 보존 ·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더 깊이 탐구를 펼쳐서 국가란 무엇이며 과연 사랑할 만한 것이냐. 나와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은 사해(四海)동포주의에 위배되는 편견이 아닌가. 군인의 애국심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애국심을 어떻게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2. 나와 국가

원래 인간은 혼자서 고립하여 생활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결합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인간 결합의 형식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가족관계이며, 또 하나는 사회조직이다. 가족이나 촌락(村落)이 자연발생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국가도 자연발생적인 결합체인 것이다. 여러 개의 가족이 모여서, 공동방위,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해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고, 이 집 단들이 다시 통일된 주권(主權)에 의해 종합됨으로써

국가가 탄생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개인의 힘 만으로서는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주권에 의해 결합된 더 큰 공동의 힘에 의하여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는 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공동의 힘이며 권위인 것이며, 국가는 그 구성원인 나에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고 <큰 나(大我)>이다. 따라서 <나>는 작은 국가이라고 해서 무방할 것이다. 국가는 나를 크게 표현한 말이며, 나 자신은 국가의 일부이며, 나와 국가는 분리시킬 수 없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 · 무형적 자산의 총화(總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민과 영토, 제도와 문화, 경제력과 군사력, 국민정신과 민족적 전통 모두가 포괄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란 국민이 공동의 행복추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현존하는 질서 인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소속될 국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결정 지워지는 것이다. 나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이 땅, 이 국민 속의 위치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나를 발전시키고, 또한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운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특질은 주권이며 질서이며 힘이다. 이 힘이 국제적으로는 외교로서 또는 방위력으로서 행사되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에게 순응을 요구하는 권위로서 나타난다. 우리가 만든 국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국민이 국가의 질서와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공동이익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와 주권이 과연 국민 각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좋은 방편(方便)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권을 빼앗기고 국가를 잃었던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3. 국가와 세계

어느 한 민족과 국가의 이익추구는 다른 국민의 이익에 상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과 민족의 확대된 상태가 국가라면, 그것이 최고로 확대된 상태는 전 인류를 포괄하는 세계국가(世界國家)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국가는 먼 미래의 약속으로 개념적 상상이 가능할 뿐이지, 개개 국가는 상호 대립 또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사적인 현실이다.

정치사상사적으로 볼 때, 근대의 민족국가(民族國家)는 절대주의시대의 주권국가의 관념과 결합되어 있다. 15세기를 중심하는 르네상스는 정치적으로 <근대 민족국가>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었다. 중세의 다원적(多元的) 봉건제도는 민족단위의 절대군주가 대두함으로써 무너진다. 17세기를 전환점으로 하는 서양 여러 나라의 민족국가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금일에 있어서도 면면히 방향과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가 서양 보다는 훨씬 오래된다. 서양에서는 민족의 단위를 초월하는 기독교국가 또는 민족적 결합을 저해하는 봉건제도가 17세기까지 있었지만, 한국민족은 7세기에는 민족단위의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이 민족국가는 후 1,300년 동안 북방으로부터의 침략과 남방으로부터의 왜구를 물리치고, 민족적 결속을 굳히면서 발전을 계속해 왔다. 우리는 지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계사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에 위배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애(世界愛)와 애국심이 배반되는 것이 라면 애국심은 편벽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국가는 인류세계의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로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류세계 전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인류의 공동이익 추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회와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지

않음과 같이, 우리는 내 국가를 올바로 사랑함으로써 세계 전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국민의 공동목적 달성에 편리와 이익을 주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목적 추구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특수한 고유문화의 전통 속에서, 세계문화의 영향을 흡수하면서, 다시 우리의 특색 있는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족국가는 상호 타 국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공동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세계주의에 병행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자유방임주의와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의 사상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원성(二元性)을 가지는 존재 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성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성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무정부주의는, 어떠 한 정치적 권위도 부정하며, 개인이야말로, 유일한 실재이며, 가족, 국가, 사회 등은 추상적 인 존재라는 것이다. 오직 개인의 자유권만이 지상(至上)이라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주권과 정부와 국가 등은 어떤 특수한 인간계급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실과는 상반되는 이론이다.

국가가 소멸된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인간을 동물적인 본능상태에서 구제해주며, 문화적인 욕구의 세계로 끌어 올려 주는 것은,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동정(同情)하고 협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사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한편으로 자기의 자유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며, 다른 편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인정 하고 존중해 주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즉 자유는 고립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의 결합과 협동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4. 군인의 애국심

지금까지는 국민인 나와 국가와 세계와의 관계를 말하였다. 이제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더 압축시켜, 국가와 군인, 즉 군인의 애국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좁혀 보자.

군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것을 첫째 임무로 삼는다. 군인정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군인복무규율 제4조 3항). 즉 군인정신의 바탕은 애국애족 정신이며, 군인의 본분은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국민이 가지는 애국심의 범주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군인에게는,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심, 죽음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애국심 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일까.

국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 무형적 자산의 총화>라고 하였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국가를 유지 ·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그런데 국가의 유지 · 발전에 공헌하는 업무에 있어서 군인이 담당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사업가, 발명가, 학자, 정치가, 교육가, 기술자 등 누구나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군인의 임무수행은 그 어느 임무보다도 우선적인 것이며, 또한 가장 많은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인 것이다. 군인에게 있어 용기와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의 주권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국가적 활동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주권의 수호, 국민의 생명 · 재산 · 문화의 보호를 담당하는 군인의 임무는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다. 유독 군인에게만 애국 · 애족의 정신이 아니지만, 군인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큰 위험이 수반되므로, 군인에게는 국민 일반보다 더 강한 애국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애국심 없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만 참으로 싸울 수 있으며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족, 내 단체는 올바르고 효과적인 행복추구의 방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면 군인은 국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 국가의 존립을 보증하는 일이며,

둘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것이 군인의 애국심이다.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한 한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민족의 역사는 가장 오랜 나라에 속한다. 강대한 중국대륙 옆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북방민족(흉노, 글안, 몽고, 여진 등)에게서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으며, 왜구의 침략을 받으면서, 민족국가로서의 주권을 지키고, 고유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침에 대한 결사적인 민족의 항쟁 때문이었다. 즉 국방을 담당한 군대가 애국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7년 8월 1일, 우리나라의 군대가 일본에 의하여 해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은 소멸되고 말았던 것 이다.

군인정신의 바탕은 애국 · 애족심이다. 군인은 임무수행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확립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애국하는 생활

나라를 위해 죽기는 어렵지만 나라를 위해 살기는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는 것은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평소에 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애국심에서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애국심 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일시적으로 애국의 대열에 끼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가 애국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다

가 끌려가는 노예처럼 애국대열에 참여했을 뿐인 것이다. 그것은 참 애국이라 할 수 없다. 참 애국은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애국>이란 말을 너무 먼 곳, 높은 곳에 두고 바라보고 있기 쉽다. 애국은 먼 곳이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경우에 성층권(成層圈)으로 높이 올라가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한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딛고 서있는 내 발 아래 땅, 우리의 근무하는 사무실, 우리의 기지, 우리의 연병장, 이것이 바로 내 나라요 내 땅인 것이다.

삼천만 동포를 사랑할 경우. 삼천만 국민의 호적부를 끌어안고 입맞출 수는 없는 것이 내 옆에 있는 동료, 전우, 상관,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동포인 것이다. 내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함이 없이 동포를 사랑하고 애족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러한 애국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내 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누구라 자기의 것을 사랑할 줄 모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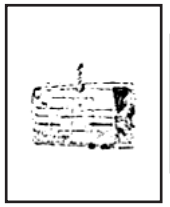
애국의 출발점은 자주정신에 있다. 즉 나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이 사회의 모든 불성실과 부패와 무책임은 모두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내 집,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잠깐 관광차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비뚫어진 생각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마음의 자세 대신에 나를 위해 이 국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범죄자의 마음을 낳게 하는 것이다. 모든 책임회피가 이런 생각에서 나온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가 해 주겠지>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지>라고 하는 생각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머슴이나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 입에서 <한국사람은 틀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할지언정, 자기는 딱 제외해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틀렸다>는 말을 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주국방의 큰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자주정신 없이는 달성되지 못하며 출발할 수도 없다. 그 누구가 내 나라를 지켜 주겠지 라는 생각은 완전히 씻어야만 자주국방은 출발될 수 있다.

1905년 7월 29일, 미국 국무장관 테프트(Taft)와 일본 외무장관 카쓰라가 체결한 태프트 - 카쓰라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일본에 허용하였으며, 1950년 1월 미국국무장관 에치슨(Acheson)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에서 일본 은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였다.

애국은 내가 내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면 내 나라를 사랑할 사람이 없음을 전 국민이 자각하고, 각자가 주인 된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애국하는 생활은 가까운 곳, 작은 일에 있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발하고 우리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힘을 발전시키는 일에 관계되는 일이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있는 참 애국일 것 이다.



필승의 신념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정신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생사를 초월하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겠다는
필승의 신념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전 경 은

전시에 있어서나 평시에 있어서 군인이 필승의 신념을 가질 것에 대하여 군인의 길 제2조는 강조하고 있다. 필승의 신념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만한 태도라든가 적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니다. 필승의 신념은 첫째 우리가 옳다는 신념이며, 둘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생사를 초월하여 최대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신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의로우며 어떤 성질의 전쟁에 대하여 필승의 신념을 갖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생사를 초월하며 왜 필승의 신념을 갖는가? 끝으로 필승의 신념은 어떻게 하여 얻어지는 것이며, 앞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제목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보자.

◇ 정신력으로서 필승의 신념

동양의 병법 사상가인 손자와 서양의 군사사상가인 크라우제빗쯔와의 근본적 차이는 전쟁관의 차이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손자는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적의 정신적 저항을 박탈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략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대하여 크라우제빗쯔는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본다. 이 양자 관에 전쟁에 대한 견해가 비록 다르다고 하여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 중 정신적 요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공통점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정신적 요소란 대체로 무엇일까? 정신력을 장 · 사병이 지휘관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치단결」·「상하일체」·「사기」·「필승의 신념」 등의 용어로서 대신 사용되고 있다. 장 · 사병이 상관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관의 의도와 공적인 요구에 가장 유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서 상관은 부하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항상 요구한다. 부하가 이러한 상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정신력이 발생하고 존재한다. 만일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군대는 외관상으로 단결된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나 유사시에는 힘없이 패배하게 된다.

정신력을 조성하는 요소로서 필승의 신념을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본능적 활동이 극히 원시적이었던 고대의 대전장이나 회전에서 정밀한 전 자무기를 다루던 중동의 6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요소에 의해서만 승리한 사실은 거의 없다. 전쟁과 전투에서 패배한 군대들은 육체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이미 붕괴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패배를 자인할 때에도 열 명중 일곱 명 꼴은 그때까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패배했다 할지라도 생존자의 수가 적어 전체수보다 많을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요소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때에 그 군대는 쉽사리 패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깊이를 잴 수 없는 필승의 신념은 물질적 힘의 압력보다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전함, 비스마르크함의 승무원들은 그들의 함은 불침함이며, 절대로 얻어맞지 않는 전함이라는 신념에 싸여 있었다. 또 나치스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웰스함에 상처를 주어 쫓아 버리고, 또 홋드 함을 격침시키는

둥 전과를 세웠다. 루에트젠스제독과 린데만함장 사이에 나치스교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소문이 함 내의 승무원들에게 퍼지자, 그들은 최상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함은 북대서양에서 그보다 훨씬 약한 로드니 함과 킹 죠지 5세 함의 강타에 의하여 힘없이 격침되고 전 승무원은 전멸하였다.

확실히 자기 자신이 패하였다고 생각하는 전쟁과 전투가 곧 패전이며 이 패전은 병력의 손실에서 온다고 하느니보다 신념의 상실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잘 무장된 군대가 평범한 무기를 가진 군대에 의하여 쉽게 격파 되고, 튼튼한 축성을 가진 수비대가 쉽게 항복하는 것은 모두 필승의 신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비법은 전쟁에 대한 신념에 있다. 임진왜란 때에 있어서 우리의 수군이 대승리를 한 것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하 모든 용사의 신념에 있었다고 하겠다. 정유년 정월(1571. 1. 26.) 원균의 모함으로 인하여 조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충무공은 그달 말까지 옥중생활을 하였다. 원균의 말대로 하면 공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겠으나 그러나 전공이 아까우므로 임금께서 다만 서민의 몸으로 권율 장군 휘하에 있게 하였다. 한편 공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된 원균은 부임하여 크게 패배하였다. 이 패배의 소식이 서울에 이르자 백성은 공포에 떨었다. 임금께서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었으나 황공하여 무어라 답변하지 못했다. 이때에 병조판서 이항복과 경림군이 충무공을 다시 통제사로 기용할 것을 아뢰었다. 공은 백 의종군하여 전라우수사를 불러 병선을 수습하고 수군의 사기를 조장시켜 놓았다. 정유년 구월(1957. 9. 16.) 공은 소위 명량해전을 치루었다. 공이 거느리는 전선 12척은 협소한 지형과 조수를 이용하여 왜 수군 133척을 공격하였다. 적선은 31척이나 격침되고, 102척이 도망쳤다. 결국 전선 133척이 우리 수군의 12척에 참패당하였다. 전투에 있어서 패자는 승자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경우가 있으며, 전쟁에 있어서 승자는 패자보다 사상자가 더 많을 경우가 흔히 있다.

무술년(1958) 십이월 십구일 오전 다섯 시 노량대전에서 장렬한 죽음을 당하시던 공이 「전쟁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戰方急 愼勿言我死)」고 한 말은 부하들이 신념을 상실할까봐 염려한데 연유된다. 이렇게 정신력의 요소로서 필승의 신념을 이야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물량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특히 전쟁에 대한 필승의 신념에 있는 것이다. 전쟁에 대하여 패배를 자인할 경우 전쟁은 패배하였거나 아니면 패배해 가고 있는 것이다.

◇ 필승의 신념에 대한 본질적 고찰

전쟁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면 우리가 현재 간직하여야 할 필승의 신념이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첫째 : 그것은 우리가 정의 이다는 신념 이다. 먼저 우리는 옳다는 신념을 갖기에 앞서 어떤 성질의 전쟁을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건군목적은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건군목적은 그 기본정신이 헌법전문에서 명시된 건국이념에 있다. 낡은 제도를 탈피하고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 며, 박애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 하에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우리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본질에 입각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주독립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제 양식을 애호하며, 어떤 종류의 침략전쟁도 부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은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자위전이요,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예방전이며,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기 위한 방위전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전쟁 목적은 첫째로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이것을 더욱 선양함에 있으며, 둘째로 3 · 1 독립 정신을 계승한 민주대한의 재건을 완성함에 있으며, 셋째로 정의와 인도 그리고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고,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새 사회 누리게 함에 있으며, 넷째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수호하여 민주공화제도를 확립함에 있으며 다섯째로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규모로 보아 가장 큰 민족투쟁의 싸움이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598-668년 고구려와 수당 사이에 일어난 11차나 되는 전쟁이요, 둘째 1010-1019년 사이에 고려와 걸안(몽고민족)과의 10년 전쟁이요, 세째 1231~1270년 사이의 고려와 원(몽고민족)나라와의 싸움이며, 네째 1350-1399년 사이의 소위 왜란의 악질적 침략이요, 다섯째 1592~1598년 사이의 조선과 일본간의 7년 전쟁이다. 이밖에 조그마한 충돌까지 합친다면 우리의 역사는 실로 주변 3대 민족과의 끝없는 투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에 복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것이며, 우리의 승리는 「정의는 승리한다」는 인류역사의 영원한 진리에 의하여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죄악과 불의를 무찌른다는 신념, 그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첫 요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기들의 국토를 방위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우리가 국토를 방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가장 정의롭고 고귀한 것임을 안 이상 우리가 옳다는 하나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 필승의 신념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는 신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가 우리 쪽에 있고 전력이 강대하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은 타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무조건 이긴다는 자부심이나 적을 경시하는 태도는 부당하다. 아무리 억센 듯 하여도 불의의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아무리 처참한 듯 하여도 정의의 피는 헛되지 아니 한다.

둘째 : 필승의 신념이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최대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신념이다.

백제는 다급하여 대병을 동원할 수가 없어서 계백장군은 5천명의 결사대를 갖고 싸워야 했다. 10의 1이라는 소수의 병력으로 적과 싸우고자 할 때 백제 사람의 심정을 가히 알 수 있겠지만 계백장군의 심정이야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장한 것이었다. 백제군이 황산들에 이르러 적과 대진했을 때 그들의 비장한 결의는 생사를 초월하여 초인적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결사적이었던 그들은 일기당천의 기세로 4차에 걸쳐 진화를 거듭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전하는 이야기로, 목동 다윗이 맹장 골리앗을 대적하여 일격에 쓰러뜨린 것과 같다하겠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 죽기를 각오하면 능히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도리어 죽을 것이다.

셋째 : 필승의 신념이란 우리가 옳다는 신념과 또한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다는 신념이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곧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의 전의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직 승리만이 가장 높은 우리의 목표이다.

외적은 언제나 우리의 방위태세가 소홀하여지고 우리의 정신자대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국토를 방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본질적 근간이며 모태인 것이다. 이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나」라는 개체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든 개인은 이 민족의 아들이며 동시에 국가의 발전과정에 기여하는 시대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배후에 설 수도 없으며 또 이 시대를 비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하여 모였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나의 기여에 의하여 국가가 건재 하는데 있다.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고, 국토를 방위함에 있어서 신념은 힘이다. 스스로 믿고 굽히지 않는 기혼으로 싸우는 군인과 군대만이 언제나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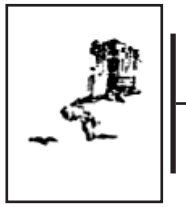
끝으로 필승의 신념은 어떻게 하여 얻어지는 것일까? 필승의 신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계속적인 훈련이다. 조그마한 시간

이라도 아끼어서 훈련을 거듭하면 반드시 적에게 이길 수 있는 심신을 단련할 수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전우가 고락을 같이 하는 데서 생긴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지불해 주는 댓가 보다는 몇 배로 윗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육도삼략」에는 군사들이 전쟁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갖도록 하는 지휘관의 자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방은 한 사람의 영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 위인정치가 용납되지 않은 것처럼 국방에 있어서도 일인의 무용만 기대될 수 없고 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우기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공산세력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고, 또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들의 침략야욕 앞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전체가 승공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고 민주주의 제 양식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대한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는데 온갖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방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족단위의 실리를 앞세우는 세계사의 조류와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 그리고 여기에 편승된 북괴의 무력도발은 우방의 원조에 의한 국방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준다. 우리민족의 생존과 자유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세력에 대한 우리가 옳다는 신념, 생사를 초월하여 초인적 힘을 발휘하겠다는 신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확립하여야 하고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정신(사상)적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정신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민족적 성전에서 물량적 요소의 부족을 필승의 신념으로 극복하자. 경비행기로 사비폭탄을 적의 탱크에 투하하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은 오늘날 우리 공군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온다. 전통의 예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선배 의 과업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우리 국방의 초석으로 삼자!



충성심

충성이란 억압이나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 은 상

1. 서 론

전쟁 수행의 목적은 승리에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편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해야 하며, 자기가 그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는 독특한 그 생활양식을 부인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스릴이나 즐거움을 위하여 수행되는 승패를 건 운동시합이나 다른 경주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존재의 긍정과 부정을 판가름 짓는 전쟁에 여력을 남겨가면서 해이한 기분으로 참여할 수는 결코 없으며 오히려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가진 바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니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가장 진지하게 수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쟁 수행의 수단을 꼭 둘로만 갈라서 이야기하라 한다면 그것은 그 전쟁 수행에 참가하고 있는 소속분자들의 정신적 자세와 그들이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나누어 말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 수단 즉 모든 무기체제와 시설 등은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기와 시설을 다루는 인간의 정신의 문제는 그보다 더 근본적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모든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고 또한 모든 정신을 물질로 환원해 버릴 수 있다고 믿는 유물론자인 중공의 모택동까지도 전쟁 수행에서 『무기는 전쟁의 요소이기는 하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결정적 요소는

인간이요 물건은 아니다. 힘의 대비는 군사력, 경제력의 대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 인심의 대비에도 있어야 한다』 혹은『물질적 원자탄도 중요하나 정신적 원자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여 인간의 정신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추어 말해본다면 유물론적인 역사해석을 비관하는 우리는 전쟁 수행의 수단으로서 정신적인 면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을 느낀다. 정신적 요소를 무시하는 군대는 아무리 외적인 물량체제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물(物)의 힘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은 패배로 끝나고 만다. 또한 빈약한 물질적 수단을 소유한 군대는 정신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의 힘은 물(物)의 뒷받침이 없기에 공허해서 패배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 있는 배합과 조화는 엄청난 물질적인 수단을 보유하고도 빈약한 정신을 가진 불합리한 배합과 부조화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왔다.

건전한 군인정신은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 군인정신에서 충성심이란 하나의 요소를 뽑아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2. 충성심의 의의

충성심이란 은어는 어떤 독자적인 개체의 속성을 선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속에서 출발된 개념이다. 인간과 신 혹은 신하와 임금 등 보통은 위와 아래 즉 수직적인 질서가 잉태한 관계의 한 형태를 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기에 서양에서는 희랍어의 "충성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 Pistos는 신앙이란 명사 Pistis에서 출발되었다. 즉 충성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유교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를 충(忠)이란 말로 표시해 왔다. 고로 충성심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의 관계, 또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충성이란 말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로되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이 밑의 것을 억압하여 생기는 압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억지로 되어

지는 노예들의 섬김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자발적으로 가진 바 모든 것, 즉 모든 정성과 뜻을 바침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바침의 섬김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섬김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바 모든 특전과 권리까지 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자기의 계획과 뜻이 섬김의 대상이 원하는 바 앞에서 좌절될 때 충성스러운 자는 오히려 기뻐한다.

또한 충성심은 지조로서 나타난다. 모든 상황이 그로 하여금 변절하도록 강요할 때 충성스러운 자는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다. 모든 부귀와 영화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 임금을 섬기기 위하여 지조를 지키다가 죽게 되는 정몽주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처절하게 죽는 것과 변절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중에서 선택하여야 된다는 강요되는 선택 앞에서 죽음을 택한 성삼문은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충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충성은 변절을 강요하는 외적 상황에 대한 투쟁이고 대결이며, 대결하다가 죽어가는 깨끗한 순결이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다. 충성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한다. 아니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충성스럽다"는 낱말이다. 그렇기에 로마의 정권이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였을 때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서머나」라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이었다 한다.

충성은 적극적인 바침이요 순결한 지조요 그것을 위하여 죽어가는 죽음이다. 충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바치는 것이다.

3. 국가와 충성심

지나간 세대들이 국가에 바친 충성은 왕조에 대한 충성이었다. 이것은

시민혁명 이전의 구라파가 그러했고, 서구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아시아가 그러했고, 지금의 회교문화권의 몇몇 국가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왕조와 몇몇 가신(家臣)들이 결정한 싸움에서 목숨을 바쳐 싸움으로써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 그들의 바치는 충성은 왕조의 영광과 결부되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가치체계 즉 교육, 도덕체계 등은 왕조에 대한 백성의 충성스러운 복종을 합리적인 언어와 논리 형식을 동원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왕조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되도록 설득하였고 권유하였다. 그들의 섬기는 왕조는 바로 하늘의 뜻에 의한 천자(天子)요 따라서 충(忠)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성의 대상이 시민혁명과 또한 시대정신으로서의 평등의 사상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세계화로 인하여 왕조에서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 새로운 대상은 피치자가 바로 치자요, 모든 권력이 피치자에서부터 나온다는 역설적 논리로부터 형성된 국가관에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국가이다. 또한 오늘의 국가관으로부터 우리는 종이요 동시에 자유자이며, 섬기는 자인 동시에 섬김을 받는 자라는 결론을 얻게 되며, 오늘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나에 대한 섬김으로 연결되어 생각되어 진다. 즉 내가 만든 법을 지키고 내가 참여한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봉사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 본질이 된다.

이러한 현대 국가적인 본질이 변질될 때, 즉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조직한 Association으로서의 국가의 성격이 아니 될 때 우리는 충성의 대상을 상실하게 된다. 자유 없는 억압 속에 서나 혹은 반대 하는 자유가 없고 다만 찬성하는 자유만이 허용되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풍요를 구가하는데 반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상황 하에서나 더 나아가서 한 계층의 근면과 굶주림의 터 위에서 다른 계층의 번영하는 불평 등의 상황 하에서는 우리의 충성의 대상으로서

의 Association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 권력 Elite가 다수 국민을 압제하는 군림 (Domination)으로서의 국가가 존재할 뿐이다. 국민의식속의 이상적 국가와 현실적으로 Domination으로서의 정치체계 및 사회구조와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될 수 없는 구혈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 용납되는 토양에서만 결실할 수 있는 시대정신의 열 매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위에 논급한 본질적 요소 이외에도, 다른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충성심과는 구별이 되는 몇 특징들이 있다. 첫째로 Free association으로서의 국가의 존재 및 그 민족의 생활양식을 부정하는 공통된 적의 존재이다. 이러한 한 국가에 대한 적의 존재는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의식(Wir-Bewu/stsein)을 가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타자(他者) 앞에서 느끼는 우리 의식은 그 집단 자체가 가지는 구심력을 발생케 하여 그 소속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또한 자기가 소속한 그 집단의 존속을 위하여 피와 땀을 바치는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적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충성심은, 적군의 병사를 죽이는 살인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조국을 사수하는 영광된 임무를 수행한다는 희열마저 느끼면서 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적과 대치하여 싸우다가 죽는 죽음을 승리한 조국의 미래사에 참여 하는 것으로 알고 영광마저 느끼게 한다. 이 적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충성심은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특징이며 다른 충성과 구별되는 본질상 차이점이라 하겠다.

둘째는 공통된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대부분의 민족국가들의 하나 되게 하는 요소는 공통된 전통과 역사 혹은 언어와 동일한 지역이 발생케 하는 감정 등이었다. 이러한 공통된 과거가 발생케 하는 충성심은 때로는 무서운 힘이 되어 역사를 움직여 나감을 본다. 그러나 여기에 소속원 각자의 공통된 미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이 힘은 맹목적이 되기 쉽고 오래도록 존속되어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고로 공통된 과거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공통된 미래에 대한 신념의 강조는 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원천이 되고 특징이 된다 하겠다.

4. 군과 충성심

평화는 인간의 이상이요 전쟁은 인간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Kant는 그의 이상으로서의 영구 평화론 속에 자연상태라는 현실의 특징을 Antagonism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인류가 혐오하는 이 땅의 역사의 운명적 필연인 것만 같다.

1차대전시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지친 국민에게 그 전쟁이 역사가 겪는 마지막 전쟁 이라고 선전하였고 또한 국민들은 그 전쟁의 끝이 영원히 계속될 평화의 시작과 연결될 것으로 믿었으며 또한 그렇게 바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후 곧 국제연맹이란 국제기구를 설립하였고 이 기구를 통하여 땅 위에서 전쟁을 완전히 추방시킬 수 있으리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바람과는 아랑곳도 없이 전쟁을 겪은 지 불과 20년이 못되어 1차대전보다 더욱 비참한 제2차 대전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2차대전 중에도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그 전쟁을 역사의 마지막 전쟁으로 인식시킴으로 절망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후 출발된 국제 연합 헌장 속에서는 전쟁이란 용어는 사용조차 하지 않았 고 오히려 다른 낱말로 전쟁이란 말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열망하는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핵무기 체제의 출현으로 그 양태가 변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전쟁의 포성과 국가 간의 충돌이 세계 도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본다. 군 조직은 이 전쟁을 위하여 존속하며 전쟁은 자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려는 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즉 군대란 그 필요한 때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서 예비 된 집단이다. 고로 군은 본질상 최고의 충성심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곳인 것 이다.

군 조직은 서로 다양한 분자들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단일한 목적하에 뭉쳐진 집단이다.

서로 다른 풍습, 서로 다른 가정교육 또한 상이한 교육정도,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뭉쳐진 것이니 만큼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시키는 유일한 근본적 힘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란 정신적 자세에서 밖에는 다른데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충성심이 각기 다른 분자들을 하나의 군 질서라는 핵을 중심하게 하는 구심력을 발생케 하며 동일한 명령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다. 즉. 다양성들로 하나의 단위(Unity)를 만들게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 충성심은 자기와 아주 상이하고 또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부족할 수도 있는 상관의 명령 에 대하여 복종하게 하는 복종심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비록 즉음 속으로라도 행진하라 할 때 행진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산출시킨다.

그러면 군인정신의 근본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로 위에서 논급한 대로 한 국가의 내적 질서가 어떤 한 계층만을 위하게 될 때 소외된 다른 계층으로부터 온 병사들에 게서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급료를 위하여, 혹은 물리적으로 강압하는 법을 따라서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법과 자기가 만든 국가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로 전쟁에 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군 사회에 들어오는 병사들이 소속해 있었던 사회가치의 문제이다. 그들이 소속해 있던 사회의 가치가 극히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자기 이외의 것, 즉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풍조가 지배적이고 또 만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 사상이 만연해 있다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온 병사들로부터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극히 곤란한 것이 될 것이다.

군 사회가 그 소속원을 사회 가치로부터 가치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치로 교육을 시킨다면 다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지극히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셋째로 상급자들의 부하에 대한 사병(私兵)사상이다. 자기의 부하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고 복종하기를 바라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군인정신으로서의 충성심이란 군인 하나하나가 가진 삶과 국가와 사회를 향한 태도와 결부되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때문에 비록 외적인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임시적 방편을 통하여 개선되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사기와는 다른 것이다.

고로 군인정신으로서의 충성심이란 군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가치관, 일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스런 강군의 육성을 위 하여는 군 교육의 새로운 개선은 물론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종교, 교육, 정치, 매스콤 등 모든 사회통제수단(Social Control Agencies)의 각성과 배려와 협조가 요청되는 것 이라 하겠다.

5. 결 론

군 기강이 몹시 해이해졌다고 하는 오늘, 모든 국민은 우리 군이 국가의 존재와 민주주의라는 생활양식의 수호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군인 정신이 충일한 강군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의 완수를 요청받는 이제 비록 군 정신 자체가 군 사회 밖의 민간 사회와 결부되어 있어 군인정신을 함양한 충성스런 강군 육성의 책임이 군 사회만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군 사회의 모순과 낡은 실천들을 과감하게 숙청해 버림으로써만 질적으로 새로워진 군의 건설이 비로소 가능하리라 보며, 이러한 군 사회 전체적인 노력을 통하여야만 군인정신으로서의 충성심은 비로소 기대될 수 있는 바라 생각된다.

임전무퇴의 기상

전쟁은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를 전제하고
수행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는
그 민족과 국가의 영광이 따르지만,
반대로 패배로 끝났을 때,
그 민족의 운명은 처참하게 되게 마련이다.

이 상 현

1. 전쟁과 평화의 논리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평화를 희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류의 희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온 것이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군림하게 된 것도 다른 동물보다 우수한 투쟁 수단과 도구를 개발했고 활용하였다는데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투쟁의 연속인 것이다. 이를테면 식물은 주변 환경과 투쟁하여 긴 뿌리를 내려 물을 빨아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를 깨들고 들어가며 또 동물은 동물대로 자기의 개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타 동물과 투쟁을 전개한다. 때문에 각 동물은 각각 자기 특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각기 특유의 투쟁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그 투쟁은 생사(生死)를 결하는 처참한 투쟁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투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 투쟁 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상에 그 이름을 남긴 수많은 성현군자(聖賢君子)들이 투쟁이 없는 세상을 현출시켜 보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투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시대는 한 번도 도래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5천년으로 잡아서, 그 동안에 전쟁이 없었 던 시간을 총합산해 보면 불과 2백년도 되지 않는다지 않는가? 이것도 서양 역사의 일면을 놓고 계산한 것이고 보면,

동서양을 통한 인류역사에는 결국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한 시간도 없는 것이다. 설사 외형적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時期)도 결국은 다음에 있을 전쟁의 준비를 위한 기간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아미앙 평화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 국민이 오래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은 염전(厭戰) 사상 때문에 피트내각이 퇴진되고, 평화주의자 아팅던 내각이 수립되어 혁명과 전쟁으로 인하여 지친 프랑스와 화해를 체결하였다. 이때 영국 국민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영구적인 평화로 착각하고 태평을 구가하고 있었 다. 그러나 한편 야심만만한 나폴레옹은 이 시기에 혁명과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내의 경제적 혼란을 타개하고, 자본가를 보호하여 군수공업을 육성시키고 한편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민중의 교화를 촉진시키고, 나폴레옹 법전을 완성시켜 모든 국내 질서를 바로잡아 스스로 황제의 지위까지 차지하여 프랑스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이 번영은 다음에 있을 이른바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은 물론 전 유럽의 국민들이 일시적 태평세월을 구가하였던 대가로서 피비린내 나는 침략전쟁의 피해자로, 피정복자로서의 유린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예로서 미루어 볼때, 평화라는 말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의미나 또는 영구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평화라든가 영구평화라든가 하는 극광(極光)과 같이 아름다운 환상은 어디까지나 인류가 항상 머리에 새겨보는 환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일찍이 현실에 눈을 뜬 자에 의해서 바보 취급을 당하게 마련이며 또 비참한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라는 말은 보다 좁은 의미로, 그리고 일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우리의 평화」라든가 「우리민족이 타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평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우리의」평화를 위해서는 「남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쟁과 평화는 표리(表裏)를 이루는 동질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즉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모순의 논리가 성립된다. 전쟁은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를 전제하고 수행된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는 그 민족과 국가의 영광이 따르지만, 반대로 패배로 끝났을 때, 그 민족의 운명은 처참하게 되게 마련이다.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주는가를 알 수 있다. 3차에 걸친 이 전쟁에서 로마는 처음부터 수세(守勢)에 몰려있었다. 당세의 영웅 한니발(Hannibal) 부자가 이끄는 카르타고의 용맹스러운 군대는 도처에서 로마군을 패주시켰다. 그중 트레비아(Trebia) 강 전투와 같은 데서는 4만 명 로마군 중 1만 명만이 생존하고 나머지 3만 명이 전사를 당하는 패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또 칸네(Canne) 전투에 서는 8만 명의 전투원 중에서 1만 5천 명만이 남고 나머지 6만 5천 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되는 것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수행하여야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 원로원(元老院)에서는 로마의 청년들의 무참한 희생에 겁을 집어 먹고 카르타고 군에 항복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때 로마군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스키피오는 수만의 청년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로마를 방어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용전분투(勇戰奮鬪)한 결과 한니발의 군대를 무찌르고 나아가서 카르타 고군을 오히려 섬멸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잔혹한 섬멸전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때 로마군은 먼저 번 전투에서 당한 손실과 울분 때문에 카르타고시를 다시 공격하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 결국은 카르타고의 나머지 군인은 말할 것도 없이,

카르타고시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시민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섬멸시켜 버렸다. 즉 로마는 전장에서 잃은 군인의 희생에 패한 보상으로서 카르타고 전 시민을 몰살시킨 것이다. 이로써 승전한 로마는 일약 발전하여 전 지중해 유역을 지배하는 영광된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상 이른바 로마제국 시대라는 이탈리아 및 전 유럽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한 한편 패전한 카르타고의 인민은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고, 영웅 용장으로 각광을 받던 한니발만이 겨우 카르타고를 기억하게끔 만들어 줄 뿐이다. 비록 모든 전쟁이 이처럼 가혹한 섬멸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패전과 승전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르는 보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할 바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승리를 하여야 된다. 승리냐 패배냐 하는 문제는 곧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의 삶과 죽음이 이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전쟁에는 그것이 설령 승리로 끝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희생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바쳐야 되고,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을 기피하고, 젊은이의 생명의 희생과 재산상의 손실을 회피하게 되면 민족자체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 고로 인류는 그러한 손실과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해왔으며, 또 임해가야 되는 것이다.

즉 전쟁의 논리는 일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희생과 손실로서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손실을 막아보자는 데 있게 된다.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영구적인 번영을 위한 일시적 곤란을 당해야 된다는 데에 전쟁은 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라치면 전장에 나가서 죽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써 전체 민족과 또 미래의 조국의 역사가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전사는 죽음이 두렵다는 이유로 후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역사가들은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죽은 자들을 찬양하고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2. 희생자의 피의 보람

한 그루의 나무가 꽃피우고 열매를 열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뭇잎이 나서 뜨거운 여름 폭양 밑에서 역사(役事)를 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떨어져 거름으로 썩어서 나무에 양분이 되었듯이 한 나라 한 민족이 역사를 이루어 오늘에 존재해 있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투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값진 피가 흘리어 졌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고결한 순 교자의 성스러운 희생의 피를 마시고야 성장하는 나무인 것이다. 보다 많고, 보다 성스러운 희생자를 가진 민족의 역사일수록 보다 영광스럽고 번영된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를 입증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 사상, 신앙적인 면에서 극도로 혼란 상태에 처해 있었던 18세기의 유럽을 떠나서, 아무런 문화적 혜택도 없고 다만 야수와 사나운 인디언, 그리고 무법만이 기다리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하였던 메이플라워 호의 탑승자중 생존자 50여 명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의 역사는 우리가 서부 활극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척자들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는 프런티어 정신에 의해서 오늘의 세계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전장에 나아가서 죽는다는 일은 참을 수 없이 억울한 것이다.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대로 살아야 할 개인적 이유가 있고, 못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전투에 나아가 죽는다는 것은 죽는 사람으로 볼 때 더할 수 없이 불공평한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 한잎 한잎의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침략자와 싸워서 흔쾌히 죽을 수 있는 희생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너울을 쓰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닦아 오는 희생의 죽음을 예지하였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나? 예수도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희생에 대해서 우리 범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서 그에게 닦아 오는 일을 회피함이 없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에 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을까? 여하튼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희생자들에 의해서 그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다.

3. 우리 민족사에 생명력을 준 임전무퇴의 집념들

민족사상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만주 벌판을 무대로 국위를 떨친바 있는 고구려시대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우리 민족이 광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를 이룩했고 나아가서는 중원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역사상 단 한 번의 시기였으며 우리에게 민족주체의식이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 유일의 시대였으며 이러한 시기가 언젠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끼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의의는 고구려가 그러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이 영토를 확보할 수 있을만한 국민의 정신이 있었다는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보 온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온달은 우연한 기회에 공주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왕의 부마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빈천한 생활 끝에 얻은 부귀 영화일수록 계속 향유하여 일평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온달은 이를 박차고 전투에 나아가 전사를 하였으며, 또 죽어서까지도「신라가 한수(漢水) 이북의 우리 땅을 빼앗으니 이번에 만일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맹서를 지켜서

상구(喪柩)가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임전무퇴의 집념, 그리고 이 광경을 본 공주가「국토를 못 찾고 님께서 어찌 돌아가실 수 있으리까? 님이 아니 돌아가신다면 이 첩이 어찌 홀로 돌아 가리오」라 하며 그곳에 졸도하여 남편인 온달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는 공주의 순수한 부부애, 그것이 곧 고구려인의 일반적인 임전정신을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천한 거렁뱅이 바보로부터 비롯해서 호화찬란한 궁성에서 사는 섬섬옥수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상무적 애국정신이 그와 같은 고구려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전무퇴의 정신 뒤에는 애끓는 비화(悲話)가 깃들어 있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봄 · 여름 · 가을의 세월 속의 짙은 간난과 뼈저린 노력이 있다는 시인 서정주 씨의 노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후세인들에게 찬양과 숭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뒤에는 슬픈 비화가 있게 마련이다. 나당(羅唐)연합군의 협공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운명에 처한 백제를 구하기 위하여 최후적으로 황산벌 싸움을 전개하여 불과 5천의 군사로 5만의 대군과 격전을 벌인 계백장군은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 가족 존속들을 함께 모아 놓고「적군의 손에 넘겨져서 굴욕적인 삶을 살기보다 차라리 내 손에 죽어 멸망해가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 칼을 빼어 가족들의 생명을 끊어 죽이고, 자신의 사생(死生)을 결단하는 비장한 결심으로써 전장으로 향하였다는 이야기는 비화 중에서도 가장 슬픈 비화가 아닐 수 없다. 무릇 용자(勇者)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기에 한말(韓末) 민족의 비운을 가슴에 칼을 찌름으로써 풀어 만백성에게 민족적 교훈을 남겨 준 충정 민영환(忠正 閔泳煥) 선생은「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기를 택하는 자는 살리라」는 유훈을 우리에 게 남겨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곧 용기를 가진 자는 승리할 것이요, 비겁한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로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 하반(下半), 몽고족이 우리 한반도를 유린할 때의 일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민족은 이 미 위에서 이야기한 고구려인다운 상무적이고 멸사봉공의 기질은 사라져 가고 무사안일주의 (無事安易主義)가, 특히 귀족사회에 팽배하였던 시대다. 때문에 당시 도원수(都元帥)의 아들 방수장군(防守將軍) 조 숙창(趙叔昌)이나 귀족 홍복원(洪福源)과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인 영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몽고족에게 굴욕적으로 반부(叛府)해 버렸다. 이러한 시기에 반역자들과는 달리 귀주성(龜州城)을 지키고 있던 김경손(金慶孫)장군은 오히려 성을 굳게 방비하고 사졸(士卒)들을 모아놓고 영(令)을 내려 「너희들 중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잊고 죽어도 물러 나지 아니할 자는 우편으로 서라」하여 이 영에 응한 감사(敢死)의 용사(勇士) 12명을 선발하여 몽고군과 분전을 하였다. 죽기를 맹서한 감사의 용사 12명은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임전무퇴의 기백은 모든 성주민(城住民)들로 하여금 또한 죽음을 결하게 하여 몽고군을 쳐부수는 일에 가담케 하였다. 그 때문에 몽고군이 성을 여러겹으로 에워싸고 무려 30여 일을 밤낮으로 백 가지 방법으로 쳤지만 실패하고 심지어 몽고군은 이르되 「이 성은 적은 것으로써 큰 것에 당적(當敵)함은 하늘의 도운 바요, 인력(人力)이 아니라」하고 포위를 풀고 물러가고 말았다. 불과 12명에 지나지 않는 용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곧 12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이며, 12명 신의 활약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죽음을 스스로 택한 12명의 결사대는 이로써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일시적 향락을 유지하려던 반역자 홍복원과 조숙창은 천추에 남을 굴욕과 비굴과 불명예를 남기고 영원한 죽음을 죽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착잡한 역사적 현실은 이런 이들의 노력과 분투와 결의에 의한 생명력과 비겁자가 남겨놓은 치욕이 함께 어울려 이룩된 것이다.

진정한 용기

용기는 남자 마음의 특성의 하나로 조화된 것으로 곧 남자의 멋이요, 맛이다. 남자가 이 용기를 잃으면 무엇에 쓸모가 있겠는가?

김 형 효

옛날 중국이 삼국으로 정립된 때가 있었다. 후한(後漢)이 멸망되어 아직 중국의 나라가 진(晋)나라도 통일되기 전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후한과 진나라 사이에 위, 촉, 오 이 세 나라가 중국 천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다. 독자 여러분은 이 정도에 이르면 아마 내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소설인 「삼국지」를 말하려고 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 중 대부분은 아마 재미있게 「삼국지」 소설을 읽었을 것이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남아 있는데, 그 까닭은 그 소설의 실재 인물들의 성격이 비록 과장된 점은 있다 해도 바로 오늘날 인간가족 군인가족의 현실적 성격과 너무도 흡사한 점 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소설은 조조(曹操)의 위나라나, 손권(孫權)의 오나라보다도 유비(劉備)가 세운 촉나라를 정통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자연히 유비 밑에서 촉나라를 위하여 건투하던 선비 전략가 장군들에 대한 인상이 더욱 선명해 진다. 유비 밑에서 유명한 장군들로서는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가 있고 그 밖에 조운, 마초, 그리고 황충이 있다. 또 유비를 도와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려고 했던 불후의 대전략가 제갈량을 우리는 또 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인물들이 전쟁과 전란의 시기에 남긴 흔적과 냄새를

「삼국지」라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보면서, 군인의 세계에서 - 그보다도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 참다운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훑어보기로 하자. 유비라는 촉(蜀)나라의 왕은 위(魏)왕 조조나 오(吳)왕 손권과는 달라서 매우 의리를 중요시 여기며 간사한 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유비는 어질고 착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 덕 망은 그 당시 중국의 사해(四海)를 떨쳤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휘하에는 문무의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유비는 간사한 교활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본적이 많았지만, 그러나 먼 안목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는 다른 어떤 지배자보다 국민의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의 실제적인 예로써 많은 백성들이 유비 밑에서 살기를 바랐으며 또 많은 문무의 인재들도 그의 너그러운 덕망의 품속에서 안주(安住)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史實)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어진 덕망(仁德)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위에 용기 있고 신념 있는 자를 모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볼 때 어질고 너그러운 덕은 용기 있는 덕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과 불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공존(共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덕(仁德)과 용기가 만약 물과 불처럼 서로 모순의 관계라면, 결코 그 둘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유비의 인덕(仁德) 때문에 많은 신념의 용자(勇者)들이 그의 둘레에 모였던 것이다. 이처럼 덕은 덕을 부르고 또 서로 서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해서 나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용기란 덕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씨 조선의 사회는 종종 외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봉착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북쪽으로부터 금(金)나라나 청(淸)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고 남쪽으로부터는 일본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분도 국사에서

배웠겠지만 가등청정이라는 왜구의 장수가 임진년에 이씨 조선을 침로해서 들어왔다. 그는 다른 왜장들보다 훨씬 잔인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녀자를 상해 또는 강간하면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많은 민폐를 우리 조상의 심장에 남겨 놓았던 것이다. 보통 우리는 거칠고 무서움을 남에게 보여 주고 무뚝뚝하고 좀 잔인한데가 보이는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군복을 입게 되면 민간인 시절보다 거칠게, 무뚝뚝하게, 난잡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 있는 군인인 것처럼 그러나 앞에서 보여준 가등청정의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을 참다운 용기라고 부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군인의 자세를 용기 있는 자세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왜장 가등청정이가 우리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군인은 비록 적일 경우에도 경의를 표하게 되는 법이다. 내가 옛날에 보았던 해전(海戰)의 영화인데, 영국 해군과 독일 잠수함대가 2차대전시 대서양 격전에서의 일이다. 치열한 해전 끝에 쌍방이 다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자기 군함 위에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 잠수함이 격침하게 되었는데, 그때 독일 수병들은, 바다로 헤엄쳐서 영국함대 가 그들을 구조하여 주고, 마지막 독일 함장은 배와 함께 자폭하였다. 독일 함장이 자폭하는 순간 영국함대의 장사병은 바다 밑으로 사라져 가는 그 함장에 대하여 모두 엄숙한 경례의 예배를 하였다. 이것이 적과 우군을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참되고 올바른 용기가 만용과 구별됨으로써 야만인적 기질이 결국 용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겁하고 문약한 태도 역시 용기와도 그만큼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나라 고려 의종 때 정중부를 위시한 무인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한 무신의 난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문신 한뢰 등이 의종의 총애에 힘입어 무신들을 면전에서 모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일시 에 무신들은 분노를 폭발하여 한뢰 등의 문신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뢰 등 문신들은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칼을 쥔 무신들의 분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용서를 청하였다. 이러한 문약하고 비겁한 문신의 태도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용기가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다운 용기란 만용과 비겁과의 사이에서 중용(中庸)을 지킬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중용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 말에 동양의 전통적 유교의 가치관에서 내려온 개념인데 쉽게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자.

물과 소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물과 소금을 합하여 소금물을 만드는 경우, 우리는 그 소금물의 용도에 따라서 물과 소금의 혼합비율을 각각 다르게 할 것 이다. 예로써 치약의 대용으로써 치아의 건장을 위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5 : 1이라면 또 김장을 절일 때 물과 소금의 이상적 비율이 10 : 1이라면 위에서 열거한 5 : 1이나 또는 10 : 1이나 그와 같은 비율 그것이 바로 그 때의 중용이다.

이런 경우에서 추리해서 보면 중용이란 어떤 일정하고 고정되고 불변의 진리로써 척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 짜여지고 표현된 멋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멋과 맛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치가 아주 맛있는 김치 맛을 낼 때, 그것은 김치의 멋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 중에도 여자 아닌 남자가 남자다운 멋을 낼 때, 그 남자는 남자로서 최고의 훌륭한 맛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 아닌 남자로서의 멋과 맛은 진정 코 무엇인가? 남자는 우선 여자와 구별되는 점 이 여러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 차이점으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예거할 수 있겠다.

첫째, 여자는 아름다움을 그 생명으로 삼고 아름다움이 바로 여자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남자는 씩씩함을 그 생명으로 삼게 된다.

둘째, 여자는 소극적이고 보호적이지만 남자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

적이다.

셋째, 여자는 잠재적이고 축적 적이지만 남자는 폭발적이고 소비적이다.

이상의 간략에 비교해서 볼 때, 남자의 남자다움은 씩씩함, 적극성, 진취성, 공격성과 소비성 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남자다움과 그 멋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위에서 열거된 남자다움의 특성이 하나로 조화된 것이 바로 용기이다. 용기는, 아름다움이 여성의 멋이요 맛인 것같이, 그것은 바로 남자의 멋이요 맛인 것이다. 그런데 용기의 멋과 맛이 표현되는 경우와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용기와 멋과 맛을 논한다면, 그것은 신의를 중히 여기며, 이해관계보다도 의리에 사는 것이며, 아첨과 아부를 자행하는 것보다도 꿋꿋하게 자신의 입장을 꾸김없이 열어 밝히는 태도이다. 또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며 강자에겐 비굴하지 않으며 명예를 존중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용기의 멋과 맛을 논한다는 것은 별로 구체적인 경우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용기의 멋과 맛에 대 하여 구체적 예를 들면서 보기로 하자. 다시 앞에서 언급한 「삼국지」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관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촉제(蜀帝) 유비의 의제(義弟)로서 서양의 아서왕(King Arthur)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 동양에서 대무인〔大武人〕의 성웅으로 다루는 분이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와 같이 관우를 제사지내며 거의 종교적 의심에 가까운 기분으로써 관묘(關墓)라는 것을 세웠던 것이다. 관묘를 세웠던 목적은 곧 국가 사직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여 국태안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정신에서였다.

그러면 관우는 도대체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후세에까지 대무인으로서 숭앙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 그 까닭은 한마디로 그가 바로 진실한 용자(勇者)였기 때문이다. 관우가 유비 및 장비와 더불어서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하였을 때, 비록 한날한시에 태어나지는 서로 못하였을지언정 앞으로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함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

를 하늘에 맹세하였던 것 이다, 그런데 시운이 그들에 여의치 못하여서, 그들은 초기에 참담한 패전의 고배를 여러 번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패전과 함께 관우는 그의 형제인 유비와 장비와 헤어져서 조조(魏帝)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되는 운명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천하에 뛰어난 장수요 전술가인 관우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배 조조는 갖은 유혹과 수단으로써 관우를 꾀였던 것이다. 그러나 관우는 일편단심 그의 형인 유비에게 맹서한 사나이의 의리를 조금도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절개요, 만고에도 자랑할 만한 씩씩한 용기의 기상인 것이다.

무릇 참된 용기란 금전이나 여자의 유혹에도 굴함이 없이 약속을 약속으로써 지키는 절개의 빛인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관우는 자기의 수소문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형인 유비가 조조와 다른 적지에 유폐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것을 확인한 후 관우는 조조와 작별하여 유비 곁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조조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모든 선물을 그대로 두고 갔다. 이러한 사실에서 용기란 결코 물질적인 것에 추호도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의리만을 찾아서 인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관우가 조조가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나서 유비가 유폐되어 있는 곳으로 넘어갈 즈음, 그는(관우) 조조에게서 받은 많은 호의를 보상하기 위해서 조조가 두려워하는 적의 장수 두 명을 단 칼로 베어 버렸다. 이처럼 관우와 같은 용자는 자기가 받은 고마움과 호의에 대해서 물질적인 금전으로 사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으로써 갚을 뿐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딱딱하고 거칠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상기의 용장인 관우는 그의 굳은 절개와 신념은 만고에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와 같은 것이지만, 그는 또한 그 당시의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인덕과 관대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자에겐 보호자의 정신으로 일관하였으며, 자기와 실력이 대등한 자에겐(예를 들면 황충과 100합 이상을 싸웠을 때) 남의 약점을 노려서 죽이는 비겁의 길을 택하지 않고, 전략상의 정공법〔正攻法〕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관우가 인자하고 너그러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적벽대전 때 조조는 손권과 제갈량의 전략으로 그의 100만 대군이 전멸을 당하고 겨우 수 100 기만 살아서 후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 후퇴 길을 관우는 제갈량의 명령을 받들어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포위하고 있는 관우의 군사 앞에 나타난 조조의 군대는 헐벗고 굶주렸으며 상처투성이의 슬픈 장송곡의 행렬을 하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에게 완전 포위되어 죽음의 일보직전에 있었을 때, 조조는 지난날 자기가 관우 장군을 대하여 주었던 대접을 생각하여서 부디 살려보내어 주도록 관우의 마음에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 순간 관우는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조조의 호소가 측은히 여겨져서 살려 보내 주었던 것이다. 후세의 사가(史家) 들은 이러한 관우의 의젓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비겁하다고 헐뜯기는커녕, 오히려 진실한 용자의 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우가 제갈량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 군의 유지는 명령복종인데 관우는 자신의 성격으로 명령을 어기고 조조를 놓아주었던 것이다. 명백한 명령위반이 요 불복종이요 항명인 것이다. 이것을 의식한 관우는 제갈량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죄의 벌을 의젓하게 떳떳이 기다렸던 것이다.

이처럼 용기 있는 자는 비겁한 구실로서 자기의 잘못과 불찰과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직선적이고 솔직 담백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진실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그것은 마치 중용이 추상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물과 소금의 비유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자의 구체적인 예를 삼국지에서 나오는 관우의 예로서 설명하였던 것이다.

관우의 예에서 종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첫째, 구체적으로 용기 있는 자는 자기 자신 내부에 깊은 정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함이다. 그러한 신념은 물질과 육체적 유혹과 금전에 굴하지 않고 절개 있는 행동으로써 표현된다.

둘째, 용기 있는 자는 전혀 인정이 없는 차돌같이 매섭고 사나운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자의 인정은 물질적 다과에 의하여 표현되지 않고 정신적 대우에 의하여 표면화되는 것이다.

셋째, 용기 있는 자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이 앞뒤가 꽉 막힌 타입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 못지않게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 함이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는 그의 너그러운 인덕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신경질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과 용기를 심어 주는 것이다.

넷째, 용기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변명 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한 기품으로 고백하는 순결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독자와 더불어 용기와 그것을 가진 자의 멋과 맛을 보았는데, 한 마디로 진정한 용기는 관우 장군의 멋과 같이 돈으로 잘고 살 수도 없는 덕인 것이다. 그런데 그 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수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가지는 의리와 인화 그리고 자기의 과오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정직성에서 서서히 싹튼다. 그런 점에서 남자의 사회인 군대에서 먼저 우리가 키우고 또 절실히 알아야 할 것은 참다운 용기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군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시켜 나갈 것인가를 아는데 있다 할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소용없듯이 남자가 용기를 잃으면 무엇에 쓸모가 있겠는가?

책임의 장(章)

「인생이란 한 권의 책과 같다. 바보들은 아무렇게나 인생이란 책장들 넘기지마는 현명한 사람들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 밖에 그것을 읽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쟌 파울)

강영진

1. 책임의 서장(序)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책임있는 사람」이라 말할 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일」이라 함은 외 부로 부터 부여되었거나 또는 스스로 부여한 책임을 뜻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상관이나 타인으로부터 부여된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완수하기는 비교적 쉬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업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책임 등은 그것을 다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여한 책임, 즉 자기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자기의 양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자기의 신념에 대한 책임 등은 완수하기도 힘들며 또한 다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책임은 적어도 인생을 알고 자기의 나아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한 인간 - 자살로 주어진 삶을 청산한다든가 하는 인간 - 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의 부여된 책임을 느낄 자격도 없고 또한 책임을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책임, 즉 스스로 부여한 책임(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외부로부터 부여된 책임(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자기에 대한 책임의 장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책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충실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와 국가에 충실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사람 역시 타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과

둘째로 자기 신념에 대한 책임이다. 전자는 육체적이라면 후자는 정신적인 것이다. 이제 상기한 두 종류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자세히 논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이다. 인생 7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뜻하지 않은 많은 병고와 허약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도전에 이기는 사람만이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으며 기타 다른 여러 가지의 책임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은 앞으로 논하게 될 여러 가지의 책임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는 상태, 즉 끊임없는 병고와의 싸움 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무릇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자기의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신념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책임 이라든가를 착수할 수 있으며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임은 스스로 믿고 일생의 지주로

생각하는 신념과 양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신념」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임을 다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왔던 위대한 인간들을 볼 수가 있다. 「화란」의 대 철학자 「스피노자」는 「나의 신념」을 사랑하고 신념과 더불어 살았던 위대한 철인이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의 초빙을 받았을 때 『나의 정신의 자유를 방해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또한 그는 『당신의 책을 임금님에게 바치면 연금을 주겠다』고 하였을 때 『나는 나의 저서를 오직 진리 앞에만 바치겠다』고 하며 조용히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의 신념에 충실히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도 하는 것이다.

3. 사회적 책임의 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간만이 사회에 대한 또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 즉 외부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과 둘째로 조국에 대한 책임과 끝으로 인생에 대한 책임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세분하여 논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 즉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찍이 노서아의 대문호 「토스트에프스키」는 나와 남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사람은 각각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 글의 뜻을 부연하여 보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나에게 조금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 가정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고 형 누나 동생들이 있어서 그들 속에서 같이 어울리며 살게 되어 있다. 또한 일반 사회의 회사에서는 사장으로부터

여러 중견 사원을 거쳐서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군대에서도 내무반에서는 내무반원과 같이 관련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상사 동료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인간 속에서 태어났으며 죽는 순간까지 이러한 인간 속을 헤엄쳐 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수단으로써 주로 말과 행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인간과 인간을 맺어 주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곧 남에게 책임을 다하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옛 성현들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고 일단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땅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계약론」을 쓴 「룻소」는 「호흡한다는 것이 곧 살아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전거 점프가 공기가 부지런히 드나든다고 살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숨이나 쉬고 있다고 그 인간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한편 말이나 하며 행동을 한다고 그를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의 책임도 전혀 지지 않으며 제멋대로 되어 있는 인간을 「개보다 못하다」고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있는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이 되어 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우리의 선조들이 아끼고 사랑한 조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의 선조들이 살아 온 조국이 있는 법이다. 이 조국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국을 잃어버렸던 과거를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도 명확하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국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조국의

번영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며 조국의 번영은 국토를 보존한 후에야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이 없음으로써 얼마나 수모와 치욕을 받아 왔던가? 우리의 어버이와 형제들은 조국이 없음으로써 따뜻한 안식처도 없었으며 또한 절망 속에 헤매지 않았던가? 어떤 선조들은 북간도로 유랑의 길을 떠났으며 어떤 선조들은 목숨 위태한 것도 돌보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이국땅으로 가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과거 속에서 우리는 조국의 귀중함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하여야 할 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조국의 따뜻한 체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의 필요성과 조국이 존재함으로써 있는 고마움을 가끔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다가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행동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은 조국의 국토를 지키며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이 요구하는 성스러운 국방이란 책임을 다하기를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우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이 목숨이 존재하는 한 조국을 수호할 마음의 자세와 성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단 유사시에는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오늘의 훈련을 착실히 하며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국방이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다.

셋째로는 인생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야 한다. 자기가 살기 싫다고 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인생도 아니다.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보다 더 보람되고 알차게 살기 위하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 나치시대에 「아우슈비츠」 인공 지옥에서 4년간 갖은 고생을 다하고 살아 나온 「빅톨 크랑클」 박사는 『인생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며 어떤 의의를 가졌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대가 인생을 위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창조해 나아가는가를 오히려 인생 쪽에서 묻고 있다』고 하며 인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확실히 그렇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자기 나름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은 위대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되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나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이 시간(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나는 과연 역사(시간)와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각자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는 「성실」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그 첫머리에 장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어떠한 책임이든 그곳에는 성실성이 결여되면 참다운 책임감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다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을 부여해도 좋다. 다만 그곳에 다가 『성실』이라는 두 글자만을 달아 놓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지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루한 인생이 아닌 즐겁고 유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에다가 성실한 책임을 부여하자. 그리고 이를 실천하자. 우리 다같이 「스피노자」의 너무도 유명한 그러나 누구나 충실히 실천하기 힘든 명언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4. 책임의 종장

지금까지 책임의 두 종류를 논했다. 이 두 종류의 책임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 관계로서 상호간에 보완하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란 사람이 그의 전 인간성과 그의 생활실천에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역량이 완전히 발휘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조국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생에 대한 책임이 각각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책임의 이상에도 달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나열한 각 책임의 요소들이 가치 있는 균형을 얻어 하나의 인격체를 통해 조화 있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이상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책임이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떤 인간성과 결부되어 나타났을 때 책임은 전체적인 인간형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책임을 수행할 때에는 그 책임 자체의 완수는 물론 자기 자신의 인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또는 자기 자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약속되어 지는 것이다.

명예

**명예는 한 마디로 지성, 성실,
용기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김광영

1970년 4월 13일 미국의 아폴로(Apollo) 13호가 달로 질주하는 도중에 산소탱크가 폭발하여 즉시 지구로 귀환하여야만 하였고 전 세계 인류는 아폴로 13호의 세 우주인의 생명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이 생 · 사가 의심스럽고 좌절스러운 시간에 26개국의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지원(Assistance)을 전하여 왔었다. 이 가운데 우주탐험의 경쟁국가인 소련은 다음과 같은 전문(電文)을 소련수상 코시킨의 서명으로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 왔다.

「나는 소련정부가 소련시민과 소련군당국에게 필요한 경우에 미국우주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지원을 주는 모든 수단들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두었음을 귀하에게 알리고 싶습니 다.」

("I want to inform you that the Soviet government has instructed civilian and military authorities of the Soviet Union to use, in case of necessity, all means to render assistance in saving the American astronauts.")

서로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면서 우주탐험의 경쟁당사국으로서 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가.

주월 백마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불의의 적탄에 맞아 쓰러진 고「장소길」 중위의 유가족들이

전상보상 91만원을 받아 그 중 61만원은 출신 고등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장중위의 유고를 정리, 단행본을 출간하는데 쓰기로 했다.

목수로 6남매를 길러온 「장금봉」 부친은 「임관 후 박봉을 털어 모교 후배들의 등록금을 보태주신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 어려운 셋방 살림일망정 외로운 죽음의 대가를 의롭게 쓰자」고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눈시울이 뜨겁도록 「명예」스러운 결단인가.

<1>

미국 「웨스트 포인트」의 교훈은 「조국」 「의무」 「명예」로 되어 있다. 「명예」라는 말은 달러 나 센트로 또는 자나 무게로 값을 헤아리거나 측정할 수 없고 또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치의 복합이며, 이 결합의 외적표현이며 동시에 행동화이다.

먼저 여러 가치의 총화로서의 「명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명예의 요소(Essence)들을 하나하나 모색하여 봄으로써 명예스러운 군인의 지반을, 그 초석을 마련해 보려 한다.

<2>

공자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 지(智) · 인(仁) · 용(勇)의 삼덕(三德)을 역설했다. 지 · 인 · 용을 현대적 용어로 옮기면 「지성」과 「성실」과 「용기」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성 · 성실 · 용기를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인간, 명예스러운 군인의 바탕,「명예의 내용」으로 하고 싶다.

먼저 「지성」(智性) 에 관해서 -

지성은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도구요, 무기다. 지성의 기능은 사고(思考)와 창조에 있고 지성의 덕은 공정과 합리성에 있다.

데카르트는 지성을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편견이 없는 사고, 공정한 비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신, 정도(正道)를 추구해가는 지혜, 모두가 지성에서 발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과 생활과 습관과 그리고 사회에는 너무나도 비합리가 많다. 우리는 일체의 비합리를 제거하고 합리성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한 사회가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합리화되었다는 것이다. 합리성은 근대화의 핵심원리의 하나다.

우리는 지성의 단련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공(公)과 사(私)를 가르고, 이(利)와 의(義)를 분간하고, 우리 인생에 질서와 방향을 주고, 생활의 조화와 지혜를 제공하고, 자기의 분(分)을 알려주고, 온갖 사물에 대해서 공정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성이다.

인생의 정도(正道)를 가르쳐 주는 지성은 「명예의 제 1 내용」이다.

둘째로 「성실」은 참이요, 거짓이 없는 것이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성실의 반대는 거짓이요, 허위이다. 성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덕이다.

성실의 덕에서 여러 가지 덕이 파생한다. 정직, 진실, 공정, 충의, 신의, 믿음, 신용 모두 성 실의 형제자매다.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여러 가지이다.

성실성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성욕의 유희요, 사랑을 가장한 불장난 이다.

성실성이 없는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낱 사교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성이 없는 인간관계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속고 속이는 이용관계다.

성실성이 없는 교육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랴. 성실성이 없는 종교는 종교의 모독이다.

성실성이 없는 정치는 거짓 위에 서는 정치다. 우리는 거짓 위에서는 정치에서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 가세드」는 그의 대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의 대학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정신적 범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충실한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발견한 자아의 마음의 계시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수인 「스티본 콜빈」은 「현대인들은 오직 권력이나 명예 돈만을 위하여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관심을 희생시켜 버린다」고 하였다. 돈과 권력에의 노예, 금권(金權) 제 일주의병에 걸려 있는 것이 파리한 현대인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권력은 정치철학이 없는 힘이요, 이러한 현대인의 명예는 하루살이의 인기요, 이러한 현대인의 돈은 사치와 향락을 위 한 수단이다.

일본을 다녀간 어느 미국인 교수는 일본이 저렇게 발전하고 잘사는 이유는 그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절약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잘 살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기가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와 양심 그리고 신(神)과 선한 의지에 성실해야 한다.

인생은 무책임한 도박장이나 향락의 놀이터가 아니라, 인생은 존재 이유를 가진 성실한 도전장이요, 사명의 일터 실천무대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생활이 성실의 원리 위에 서야 한다. 인생자전의 제일 첫 머리에 대문자로 써야 할 글자가 있다면 바로 「성실」이다. 우리는 성실이 인생의 대본이요, 「명예의 제2내용」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용기」에 관해서 -

용기는 굳센 것이다. 용기의 반대는 비겁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도전 공격 응전적이며, 적극 진취 능동 자주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용기다.

인간에게는 특히 발전도상 국가의 젊은이 · 군인에게는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 악과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 이상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용기, 선한 의지를 관철하는 용기, 모험하고 탐구하고 도전하는 용기, 의와 선을 행하는 용기,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 역사의지와 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용기, 인도와 정도(正道) 양심에 따라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 -

우리에게는 패기와 용기가 부족하다. 우리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과 용기이다. 전신이 자신과 용기의 불덩어리여야 한다.

우리는 지성과 선한 의지에 바탕을 둔 용기를 길러야 한다. 비겁에서 많은 악이 생기고, 용기에서 많은 선이 생긴다. 용기의 부족에서 약자의 천함, 아부와 의존, 우유부단, 침체 위축이 생긴다.

용기는 인생을 전진시키는 에네르기이다.

우리 국민은 씩씩한 기상과 강건한 정신이 부족하다. 우리 국민은 도덕적인 용기와 개척자적 인 기백이 부족하다.

용기 없이 인생의 대업이 이루어진 일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다. 용기 없이 사회의 비약이 이룩된 일도 없고 또 이룩될 수도 없다.

용기 없이 도전 없이 인생의 전진, 역사의 전환,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큰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큰 고난 큰 시련을 겪어 이겨내야만 한다.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미국인의 제일의 미덕은 도전하고 개척하는 용기다.

최근의 정치가들 중에서 인생의 용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케네디다.

그의 말을 더듬어 보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감이 아니고 용기다. 세일즈맨쉽이 아니고 리더쉽이다. 그리고 리더쉽의 유일의 유효한 테스트는 솔선하는 능력, 왕성한 기백을 가지고 선도하는 능력 이다.」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인간이었던가. 즉 적에 저항하는 용기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용기, 또 사리사욕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압력에도 저항하는 용기의 소유자였던가.」

「용기와 양심의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관리와 공인(公人) -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 에 관련되는 문제다.」

미국 국민을 향해 외친 케네디의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타당하면 깊이 반추하고 행동해야 할 공언이다.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인간인가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왜 우리사회는 부정과 부패, 불신과 번의, 배신과 변절, 소비와 향락,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침체은둔과 공사혼돈이 많은가. 결국은 국민 각자의 각성과 용기 · 양심의 문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양심, 국민각성과 공(公)의 철학이다.

가난과 자원의 부족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우리국민의 용기와 양심의 부족, 각성된 국민으로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의지와 공(公)의 철학의 빈곤을 한탄해야 한다.

경제의 외적 빈곤을 슬퍼하기 전에 우리의 내적 마음의 자세, 정신 · 양심의 빈곤을 슬퍼해야 한다. 모든 일이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고 외쳤다.

「명예의 제 3의 내용」은 용기다.

「지성」과 「성실」과 「용기」는 인간의 불변의 기본적 가치요, 명예의 알파요, 오메가요, 명예의 내용이다. 이 기본적 바탕의 덕에서 여러 가지 가치, 미덕이 파생된다. 지성은 인생의 빛이요, 성실은 인생의 향기요, 용기는 인생의 열이다. 이 빛과 향기와 열이 혼연일체의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고 행동화될 때 명예스러워지며 자랑스러워지며 생은 충실하고 풍만해지며 완전해 진다.

왜냐하면 지성이 없는 성실은 생의 정도(正道)를 못 찾는 어리석은 선이 되기 쉽고, 지성이 없는 용기는 방향 없는 용기가 된다. 또 성실 없는 지성은 악의 지혜 오만이 되기 쉽고, 성실 없는 용기는 폭력의 만용이 되기 쉽다. 그리고 용기 없는 지성은 공리공론이 되기 쉽고, 용기 없는 성실은 무력한 선이 되기 쉽다.

우리는 인생의 정도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성」과 인생의 기본자세인 「성실」과 그리고 개인과 역사 전진의 추진력인 「용기」를 「명예의 내용」으로 그 지반을 쌓고, 이젠 「명예의 요소」들을 살펴보자.

<3>

사관학교에 「명예 제도」(Honor system)라는 것이 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라.

둘째 컨닝하지 말라.

셋째 도적질하지 말라.

넷째 이상의 비행을 묵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생도가 발각되면 생도 스스로가 구성하는 명예위원회에 회부되어 명예제도에 위반되었음이 확인되면 퇴교를 당하는 제도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치루고 남의 것을 공짜로 먹자고 훔치지 않고, 그리고 비행을 묵인하지 않는 것은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행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하고 명예스러운 행동, 행위는 자기 가치체계의 스스로의 소산이어야지 제도적이거나 강제적일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는 신과의 약속에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요, 일생을 진실 · 솔직하게 살 것이요, 올바른 생활자세로 도전(Challenge) 응전(Response) 창조(Create)하면서 일생을 보람 가득히 자랑스럽게 살겠다는 약속 · 결단이 스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진리와 정의의 의지가 자기의 귀중한 시간 시간을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명예의 제 1요소」는 진(眞 · Truth)이다. 자기 생의 존재 이유, 생활자세, 행동의 근원이 진리 정직 정의 선의 의지에 바탕하고 있어야 한다.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내용이다.」

(The only value of life is it's content for others.)

「석가모니」는 2500여 년 전 「히말라야」산 남쪽에 있는 「가비라성」주 정반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궁사극치의 남부러울 것이 없으나 그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4고(苦)를 구제하겠다는 생 각에서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29세 때) 산에 들어가 고행(苦行)하기 6년 만에 정각(正覺)을 해서 불법(佛法)을 폈으며,

「예수」는 유태국에서 태어나서 인류를 영원히 구제하고자 설교를 하고 다니다가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힌 분이며 「공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規範)으로 인(仁)을 중심으로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논하고 인간에게 도(道) · 정도(正道) · 인도(人道)를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는데 자기 생을 헌신하였으며 가까이는 사제 폭발물로 KAL기를 납치 하려는 괴한에게 자기 몸을 던져 가신 「전명섭」 씨,

잘못 놓친 수류탄에 자기를 산화시켜 버린 국군 장병들……

이 모두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명예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귀중한 시간이나, 금전이나, 명성이나, 안락이나, 안전 또는 생명 그 자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o do the honorable thing always vequires a sacrifice, whether of time, money, reputation, comfort, safety - or of life itself.)

「명예의 제 2요소」는 희생(Sacrifice)이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Love)은「명예의 제 3요소」다.

사랑 없이 희생, 봉사, 헌신이 있을 수 없고 희생, 봉사, 헌신 없이 명예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씨앗에서, 희생 봉사 헌신이란 줄기와 가지 잎이 생기고 여기에서 명예라는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철학을 체득한 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자다.

명예란「인류애」「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에의 소속감에서,「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지에서 소생하는 것이다.

낚시 초입 유감(初入 有感)

손철영

어느 월간지에 서울시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조사결과가 소개된 일이 있다. 35세부터 55세까지의 남성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여가를 낚시로 보내고 있단다.

이 또래의 남자들이라면 사회적으로 원숙한 중견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래서 너, 나 없이 번거롭고 복잡한 사회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많은 정신 노동량을 힘겹게 소화하고 있는 고달픈 사람들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 중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낚시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낚시가 가지는 Recrestion으로서의 실속이나 값어치는 알만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겨우 조력(釣歷) 5년 정도의 낚시 초입생인 필자가 낚시에 사뭇 통달한 양으로 그의 득실을 운운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또 그럴 형편도 아닌 것 이다. 단지 낚시 대를 짊어지고 새벽길을 달려 나갈 때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의 허구 많은 느낌들은 내 나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이고, 그 느낌이라는 것들이 꽤나 좋다고 여겨지는 터이다. 더러는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기도 한 것이다. 물론「하루 진종일 물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허송하는 낭비」라는 정도의 낚시관(觀)을 가진 쑥 같은 사람들도 있는 판이고, 또 이러한 느낌들은 사람마다의 환경이나 성격에 따라서 한결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의 어느 쪽에 편(便)하든지, 그것은 한번쯤은 경험하고 난 다음의 일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들을 말이다.

◇

낚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낚느냐 못 낚느냐, 낚이느냐 안 낚이느냐 하는「꾼」과 붕어의 다툼이다. 그래서 출조(出釣)하는「꾼」의 자세는 옛적의 이름깨나 있는 칼쟁이가 결투에 임하는 자세와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를 일이다. 칼쟁이 사이의 결투는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칼솜씨를 겨루기에 앞서 결투 장소까지의 접근 방법, 상대적인 위치, 바람이나 햇빛

등 천기(天氣)에 대한 고려, 결투시간 등에 관한 조심스러운 연구를 통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옳을 것이고, 이러한 선택의 잘잘못이 결투에서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전투 조종사가 공중전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크게 잘못된 견해는 아닐 것으로, 다문다거나 겨룬다는 행위 일반에 관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진대, 낚시도 이 같은 형편에서 출조에 앞선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 되는 거다. 어제 오늘의 조황(釣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행선지를 선택하고, 그곳에 알맞도록 낚시 장치를 정비하고 입감을 마련하여 채비를 한다. 어디 딴 생각이 끼어 들 사이가 없는 거다.

낚시하는 동안의 「꾼」의 머리속에는 일체의 잡념이 없다는 것은 흔히 이야기되거니와, 이러한 무념무사(無念無思)한 상태는 출조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있는 것이다.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꼭 한 가지의 상념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수면에 곤두 선 「찌」의 상하 운동과, 낚시 끝으로부터 낚시줄을 타고 낚시대를 통하여 팔에 전달되는 요동감, 바로 「꾼」들의 보람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념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함에 따라서, 꼭 출조 계획을 짜놓고 그를 준비할 때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낚시장비들을 손질할 때면 조건 반사적으로 있게 마련인 것으로, 뒤집어 말하자면, 복잡한 일에서 잠시 해방되고 싶을 때에 낚시장구를 손질하면 쉽사리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꾼」들만이 향락할 수 있는 재간으로서 적어도 사회인의 정신생활에 긴장과 이완의 균형 된 기복이 필요한 정도만큼은 소중한 재간인 것이다.

◇

이러한 상념이 있는 한, 출조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도 쉽사리 잠이 올 리가 없다. 눈을 감는다. 고요한 수면, 그곳에 마디마디 원색으로 채색된 찌가 있다.

어느새 찌의 키가 후물후물 움직이며 한 마디 두 마디 커간다. 하나 둘, 숨을 죽이고 그리고는……낚아챈 팔에 제동이 걸리고……이런 상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동안의 몇 번째인가의 상념과 함께 잠은 오는가 보다. 그러나 그 잠은 새벽 3시를 넘기지 못한다.

새벽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벽 4시의 촉촉이 젖은 길에 나선다. 이따금 생각난 듯이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은 차라리 어설픈 시골 극장 신파극 무대의 항구같이 오히려 낭만스럽다. 도시는 피로한 잠에서 아직 깨기 전. 도시의 비정

(非情)이 깨기 전에 「꾼」들은 그곳을 빠져 나가야 하는 거다. 그것이 도시와 낚시의 어쩔 수 없는 본연의 관계인 거다.

◇

단체 출조는, 낚시의 참 맛을 태반은 생각하기가 일쑤이다. 오고 가는 차중에서의 소란함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더라도, 혼자만의 조용한 사색이 훼방을 당한다거나, 따라서 낚시 행각에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여행의 흥취를 깨뜨린다거나, 현장에 도착하여 선두 다툼을 한다거나, 또는 변변치 않은 상품을 겨냥하고 무작정 많이만 잡겠다는 억척스러움이라든가, 시종 계획적이라든가 하는 따위의 이를테면 떨치고 온 도시 한복판의 역겨운 환경 속에 쌓여서야 출조한 목적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낚시는 개인플레이가 제격이다.

시내버스 정류장, 혼탁한 도시의 피로를 털어버리고 싶은 의욕들이 이른 새벽부터 득실거리는 곳. 그곳의 분위기가 스산하고 소란하면 할수록 이러한 의욕들은 더욱 조급하다.

요즈음 이른바 「레저(Leisure)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데 에도 까닭은 있을 거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 활용의 장소를 줄곧 야외로만 찾아 나간다거나 한 치 평방의 흙에 애잔한 향수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까닭을, 간단히 생활의 여유에서 오는, 편하기 위한, 놀며 즐기기 위한, 좀 사치스러운 풍조에 귀착시킬 수 없는 좀 더 각박한 것이 있을 법하다. 직장의 굴레 속에서 일 년 열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허우적거리는 도시인들은 너나 없이 피차의 피로한 몰골들을 놓고 「우리는 도시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다. 배우고 배우고 그래도 끝내 해답을 얻기 전에 지쳐버린 정신들. 그래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생활을 관조하고 위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아쉬운 거다.

낚시대를 안고 새벽길을 달리는 시골 버스에 흔들리며, 「꾼」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런 나만의 세계를 찾아 가는 거다. 그것은 비교적 염가한 비용으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를 맞이하려는 간절한 기다림을 담은 현명한 투자일지도 모른다.

◇

이러한 기다림이 수면 위에 1~2㎝쯤 솟아있는 찌에 응결한다. 움직이지 않는 찌. 차분하게 기다리는 고역을 배운다. 하루아침의 전투를 위하여 백 년을 양병하듯, 한 순간의 환희를 위하여 오랜 기다림의 고역을 견디는 거다. 막연하고

<nav>
<낚시 초입 유감>
</nav>

나태한 기다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근면하게 할 일을 다한 끝의 기다림이다.

권모술수며, 사기며, 아첨이며, 모략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붕어는 지체 높은 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른다. 감언이설에 넘어갈 상대가 아니다. 사기나 모략이 먹히지 않는다. 그것들은 공명정대한 도전에 응해 온다. 「꾼」이 이 다툼에 실패하였을 때는 어디엔가 교정을 필요로 하는 불합리 한 구석이 있는 거다. 합리적으로 할 바를 다하고 기다릴 때, 언제고 어신(魚信)은 오고야 만다. 그리고 이 어신에 또한 합리적으로 응할 때, 그것은 그처럼 짜릿한 충일감을 가져다 준다. 그렇더라도 물론 기다림이 몹시도 고달플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대로 그것도 버릴 수 없는 경험이다. 집을 떠나서 가정의 의미를 절절히 깨달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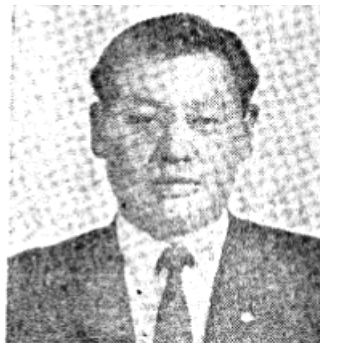
작년 이때쯤 일거다. 모처럼의 휴가를 이용하여 충남 보령군 수부리라는 곳까지 원정한 일이 있다. 서울서 떠날 때부터 내리던 비가 하룻밤을 새고 돌아올 때까지 쏟아지고 있었다.

상행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렸다. 기차시간보다 시간 반 가량 앞서 부여로부터 오는 버스가 그곳을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역까지 줄잡아 사오리. 그러니 마냥 여유 있는 길이었어야 할 것 이었다. 그런데 시골버스는 좀처럼 못 온다. 예전보다 30 분이나 늦게 온 만원 버스는 내릴 사람 없는 그곳에 정차할 필요가 없었다.

「허… 저런 저런」하기보다 먼저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으로 나섰다. 우장이며 부수도구가 담긴 배낭을 지고, 대주머니를 어깨에 걸고, 한쪽 손에 관(貫) 고기를 담은 대 바구니, 또 한 손에는 우산, 밤을 샜으니 사뭇 졸리기만 하다는 핏발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역까지 왔을 때, 기차시간 20분 전. 그러니까 15리 길의 강행군이 중무장(?)하고 40분에 간단히 처리된 것이다. 그런 푼수로는 기차에 타고 앉아서도 몸은 사뭇 가뿐한 편이었다. 자신의 건강을 새삼 확인한 유래함과, 그 어떤 조그마한 자신 같은 것들의 탓이었을 거다. 이런 유쾌한 귀로에 한잔 술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2홉들이 소주병을 사들고 잔을 주고받는다. 더없이 다정하고 완전히 호흡이 일치된 대화 속에 느긋한 피로가 밀려온다. 그것도 보다 충실한 내일의 활기를 위한 기름진 휴식을 재촉한다. 그리고 다음은 차체의 경쾌한 진동과 같이 우리 생활의 균형 된 기복은 꼭 필요한 것임을 되새기며 건강한 잠은 사뭇 깊어만 간다.

<nav>
<예비역 인사칼럼>
</nav>



나의 공군 복무시절

박제형
〈예비역 공군대령 · 재향군인회 섭외국장〉

내가 1948년, 육사 제7기로 임관하자 당시 김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항공 사령부(공군의 전신)에 배속을 희망한 것이, 결국 나의 군대생활 13년을 판 박고 공군과 그럴 수 없는 인연을 맺어, 나의 청춘을 불살아 버린, 어느 의미로 본다면 나의 일생을 좌우한 큰 계기가 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만큼 공군을 동경하였고, 공군이 아니면 군이 아닌 것 같은 신념 비슷한 것을 지니게 된 데에는 나대로의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만 진작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청년장교로서의 큰 포부와 의욕에 불타 의기양양하게 김포에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아연실색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 때 항공부대도 부대 특성으로 약간 군기가 어지러운 것이 상례로 되어 있던 것을 기억은 하였지만 얼핏 보니 복장도 복장이려니와 군모는 철사를 빼서 숫제 빵모자를 만들어 뒤집어 쓰고, 기간장병도 그 출신이 매우 각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달고 있는 계급장보다는 과거의 출신 경력이 판을 치고 낯에 익지 않는 소위 따위엔 아예 경례도 안부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도처에서 목견되어 신임 소위의 포부와 프라이드는 부임 초에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회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단 내가 좋아서 첫발을 디딘 부대이다. 좋든 싫든 이젠 물러 설 수가 없었다(기실, 같이 배속된 동료 중 견디다 못해 바로 육군 타부대로 전출한 자가 있었다). 부대가 창설되어 얼마 되지 않아 그렇거니, 좀 더 안정되면 모든 게 확립 되겠지 하는 체념 섞인 생각과 한편 으로는 안정된 부대보다는 이런 부대가 저항을 느껴 한 번 해 볼 맛이 있다는 일종의 반발심과 투지가 엇갈리는 그러한 심정이었다.

어떻든 한 번 해보겠다는 신임소위의 기개를 짐작했든지 곧 나는 신설된 신병 교육대의 구대장 겸 훈육관 보직을 받았다. 당시 항공사령부로서 처음으로 대외적인 지원모집을 통하여 뽑은 공군 3기생이 입대를 했고, 계속 4, 5기가 격월 간격으로 입대를 하였는데 이 기별이 초 창기 부터 사병으로서 군의 핵심정예가 되었던 그야말로 강팀으로서, 개개인의 학력 경력이나 정신면으로 보아 또한 입대 지원 경쟁률로 보아도 매우 유능하고 우수한 청년들이었다.

나는 이들을 맞이하여 확실히 의욕을 느꼈다. 상대할만한 친구들이다. 해볼만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더욱이 부임 초부터 어딘가 욕구불만을 느꼈던 나 자신이었기에, 보람을 찾으려고 했다고 할까. 있는 정력을 통틀어 집중시켜 몰두했던 것이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항공병학교의 신병과정에서 그때와 같은 식의 훈련 방법이나 맹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면, 실례이나 훈련병의 절반은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나도 그때만 해도 젊은 혈기와 체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때라, 교육에 임할 때는 추호의 아량이나 관용이 있을 수 없었다. 내무교육은 엄하기가 이를 데 없을 정도였다. 단체 기합은 다반사요, 하루저녁도 기합 없이 잠드는 일이라곤 없을 정도였다. 정말 나 자신도 억측이었고, 훈련병들도 다들 잘 참고 견디어 주었다.

여자항공대 1기생 15명이 아직 여학생 티가 덜 가신 몸매에 샛별같이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입대한 것이 이 무렵이었고, 바로 내가 구대장 임명을 받았다.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그들의 야무진 의지는 감히 남자들을 능가하는 것이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서 이 무렵 그 나이에 지원 입대를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의 집념 가지고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또 그 후 여자항공대가 비록 한동안이긴 하였으나 공군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던 업적으로 보아 당시의 그들의 여장부적인 기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자항공대원들이 입대한 후 처음으로 요구해 온 것은 여자라고 특별취급 말고 남자들과 똑같이 취급해 달라는 것과 따라서 훈련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니 난들 사양할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해 주었다. 앞에 총을 하고 몇 킬로씩 구보도 시키고, 과격한 전투훈련도 사양치 않았다. 그래도 악착같이 낙오 없이 뒤따라 왔다. 정말 감탄할 지경이었다. 하루는 당시 여자항공대장 이정희 대위가 너무 훈련이 심하지 않느냐 · 상대방이 여자들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달라고 항의해 온 일까지 있었다.

이제 나 자신이, 지난날 공군을 주름잡은 기간사병 3, 4, 5기와 당시 공군의 호우프였던 여 자항공대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당시를 회상하며 감회를 되씹어 본다. 근간에도 종종 우연치 않게 이 분들을 만나면 이제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 데도 그 당시의 옛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며, 간혹 이젠 관록이 붙은 나이에 의젓한 귀부인인 여자항공대 출신을 만나면, 실례지만 어딘지 모르게 옛날 단발머리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케 되며 그지없이 반갑기만 하고 전우애의 정의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다.

106 전대장으로 있을 때, 1956년 12월 24일 바로「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는 그날인데 부대 전체가 연말결산, 정리 등 대단히 분망한 때인데도, 어쩐지 부대가 들떠있는 것 같고, 연말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당장에 전 장교를 집합케 하여 일장 훈시로 호되게 나무라고 일체 영외자들의 퇴근을 중지시켰다가 통근차가 나간 후 저녁 늦게서야 해산을 시켰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 자신이「크리스마스」이브에 대하여 별로 흥미가 없었고, 특히 젊은 층 영외자들이 심정을 몰랐다고 할까, 벌써부터 즐거운 그날 밤 프랜을 짜놓고 기다렸던 젊은 장교로부터, 그 후 멋도 없고 기분도 몰라주는 영융통성 없는 전대장이라고, 두고두고 원망을 샀던 기억이 떠오른다.

역시 106전대장 당시 부대 임무상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으면서, 되게 신경을 쓰고 고생스러웠던 일이라면 여의도 비행장의 홍수 대비작업을 들 수 있겠다. 예년 장마철만 되면 전 부대가 안절부절 하였고, 수백 리 떨어진 화천, 청평수력 발전소의 수문 개폐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수위가 점점 불어가면 전 전대원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미리 보급물자나 중요문서는 인근으로 대피를

시켜놓고 부대는 초비상 상태로 들어가 급변하는 사태에 대비하곤 하였다. 모든 군대 내의 사고 중 화재가 무섭다고 하지만 실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은 지휘관은 아마 모를 것 이다.

어느 해에도 영락없이 홍수는 밀어닥치고 전대본부 앞까지 완전히 침수가 되었는데, 여의도 북문쪽 다리에서 보초 근무 중이던 사병이 연일의 지상근무에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놀라 깨어보니 순식간에 불은 물이 보초의 허리까지 차 있어 혼비백산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 데 내가 106전대장직을 통하여 몇 해를 적이 아닌 대적, 이 홍수와 싸웠던 홍수 대책작전이야 말로 귀중한 교훈과 함께 나의 공군생활에서 좀처럼 잊을 수 없는 한 토막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지휘관에게는 화재, 도난 등 항상 예기치 않는 영내사고에 세심한 주의와 주도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불의의 사고로서 나타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정 하에 예비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여 국가재산과 귀중한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다.

화재라면 내가 공사교 부관으로 있었던 1947년 겨울철에, 당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주번사령. 에 복무 중이던 배모 소위가 학교본부 건물이 연통과열로 천장이 연소된 데에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그날 밤 주번사령실에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수첩에 적어놓고 소총으로 자결한 사 건이 있었는데 당시 배 소위의 그 투철한 책임감과 교관으로서 교육자적인 양식은 전 사관생도에 대한 산교육의 표본으로서 전군을 감동시켰던 것이며, 사관학교 내에 그의 동상을 건립 하고자 추진 중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건립이 중지되었던 일이 있었다.

천재지변 애기 끝에 이미 거개가 잊어버리고 만 이 숭고한 애기를 들추어 일깨우고 싶은 것 이다.

공군생활 줄잡아 12년 9개월, 긴 세월 동안에 겪은 한 토막 한 토막이 지금도 불현듯 나의 머리를 스칠 때마다 깊은 감회에 젖어보는 것이다.

<예비역 인사칼럼>

나의 공군 복무시절

남상욱
〈예비역 공군대령 · 현 국민은행 인사부〉

나의 공군 시절을 무엇인가 써 달라하여 막상 펜을 들고 보니 나의 머리 속은 주마등 같이도 여러 가지 회상이 되어 무엇을 써야 좋을지 모르겠다.

나의 공군생활은 공군사관학교와 기술 교육단에서 대부분을 복무하였고 전역할 무렵 본부 감찰감으로 나의 공군생활을 끝맺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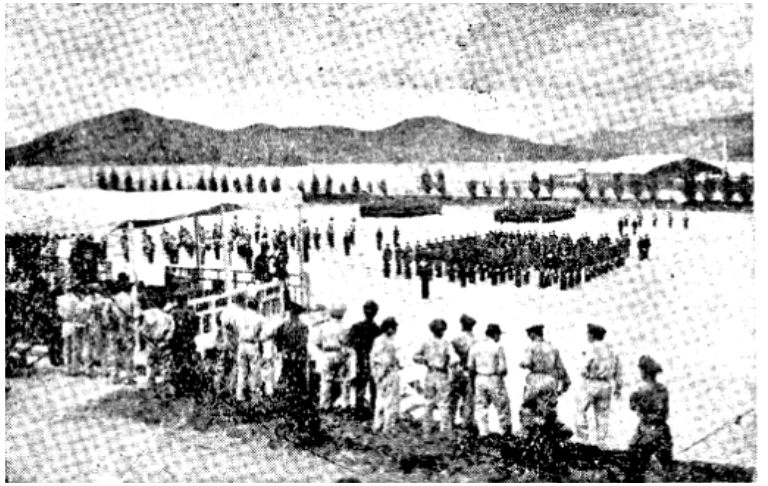
나는 공군생활을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부 교관으로 첫 출발을 했다. 하늘높이 우뚝 서 있는 진해 천자봉 기슭에 공기 좋고 진해 앞바다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보라매의 보금자리로서는 더 없는 좋은 위치에 있었으나 건물은 과거 일제 시 해군이 사용하던 창고였다 한다.

우리 공군이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협소하였고 마치 판자집 같은 형편이었다. 비가 조금 오더라도 고무장화가 없이는 병사 내를 다닐 수 없었으며 연병장은 미 공군기지에서 매일같이 트럭 수십 대를 빌려 사관생도들의 하기휴가를 단축하면서 까지 진해 앞바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운반하여 암거시설로 겨우 빗물을 제거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 생도대장은 작업 대장과 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사관생도들은 한사람 불평 없이

우리의 요람지는 우리의 손으로 정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굳건한 정신적 자세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며 건설하자는 모토는 이미 과거 우리 사관생도들이 몸소 체득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몇 배의 고통과 쓰라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한편 그 당시 공군 사관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던 장교들은 일치단결하여 공군사관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나가느냐는 문제를 놓고 항상 뇌심하고 연구 노력에 여념이 없었다. 교수부의 실험실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교재도 없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인격적 교관의 태도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난국을 극복하여 나갔으며 사생활은 이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취사장에서 밥 누룽지를 얻어다 끓여 먹는 장교도 있었으며, 미 공군기지에 새 나오는 쓰레기 속의 고기덩이를 얻어먹는 장교도 있었다 한다.

이러한 말 못할 환경 속에서 우리 생도들은 사관생도로서 장래 우리 공군을 짊어지고 갈 간성들의 정신 자세만이라도 똑바르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었다.

나의 자신을 회고하여 볼 때 그 당시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 비재박식한 나로

서 무아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으로는 성심성의껏 힘을 다 하였다고 마음 속 한 구석에 남은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도들이 비행훈련 중의 비보를 듣고는 가슴 아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리를 거닐 때 공군 장병을 만나면 꽤 반가운데 한편 군모를 쓴 모양이든 군복의 착용이 어딘가 단정치 못한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섭섭하고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것은 나의 공군의 교육기간 생활의 습성인지도 모르겠다.

공군사관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후도 교수부 실험실의 설비는 연차적 계획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으나 허허벌판에 건물만 우뚝 서있는 형편이므로 주위 환경은 우리들의 손으로 정비한다는 정신으로 충만 된 마음이었다. 잔디의 제초 작업, 나무심기 등 교관들은 자기들 사무실 및 실험실의 청소는 물론 창문 유리 닦기까지 솔선수범하여 잡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 게 불평하는 장교도 있었다. 장교가 청소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평이었다.

한 번은 참모총장 <김창규 장군>께 보고할 일을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참모총장이 『자네는 장교들을 혹사시킨다면서』라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대개 현 사관학교 환경을 말씀드리고 『누구는 하고 싶어 합니까?』 나무심기, 제초작업 및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여 주십시오』하고 퉁명스런 대답을 하였다. 총장께서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셨다.

오늘날 그 생도들이 공군의 중견이 되어 우리 공군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 든든히 여겨지며, 그 당시 생도 생활이 동요되지 않고 강건한 정신자세로 앞을 바라보며 고통을 이기고 나간 결과가 금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공군 생도 지도생활 중 여러 가지 어렵고 우스운 일이 많으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남는 것은 전 생도를 무섭게도 바람이 부는 겨울날 진해 앞바다에 집어넣은 것이다.

때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전 생도가 겨울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후 어느 날 오후 4시 경으로 생각된다. 겨울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후 생도생활의 정신자세가 이완되었다고 교수부교관들이 나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나 생도대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생도생활을 교정하여 가느냐가 문제였다. 과거 일본 학병 시절 일본 복지산 예비 사관학교 시절 생활이 생각이 났다. 그곳 복지산은 겨울이면 몹시 출고 눈이 몇 길씩 오는 곳이다. 이러한 겨울날 구대장은 우리를 방공호 통물 속에

후보생 하나 하나를 집어넣어 우리들의 긴장을 찾게 하였던 일이 있었다. 겨울날 찬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한 사람 이상이 있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전 중대들과 어떻게 하면 생도들의 현 생활 상태를 바로 잡겠느냐는 문제로 상의했다. 각 중대장으로부터 의 견이 백출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결심은 되어 있었다. 나는 중대장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자신들도 생도들과 같이 쓰라림을 받음으로 감동적인 쇼크로 시정이 될 것 같소. 금일 일과가 끝나면 전 사관생도들을 사전에 집합시키시오. 내가 직접 지휘하겠소』라고 말한 후 회 의를 끝냈다. 일과가 끝난 후 전 생도집합 보고가 왔다. 나는 전 생도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목표 진해 앞바다 모래사장 인솔』명령을 내렸다. 각 중대 별로 진해 앞바다 모래사장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중대장들도 생도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나는 말하기를『우리나 생도 제군들이나 휴가 후 정신적으로 이완된 것 같아서 다 같이 반성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진해 앞바다에 들어갈 준비 운동을 시킨 다음 작업복에서부터 팬츠까지 벗겼다. 물론 나 자신도 중대장들도 벗었다. 긴장한 순간이라 살을 에는 듯한 겨울바람이었으나 나 자신은 피부에 추위를 느끼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나 모래사장 위에 발바닥은 마치 예리한 면도날로 베는 듯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앞바다 100m선까지 들어갔다 오라』하고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터벅터벅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전 생도는 와아! 하고 함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갑작스러운 피부 세포의 압축으로 전신이 오싹하더니 점점 전방으로 들어갈수록 몸이 풀리는 듯하였다. 이러한 순간 나의 주위는 이지영, 박재성 생도 외 몇 명이 몰려들어 바다 100m 선까지 갔다 올 터이니 대장님은 바다 밖으로 나가 십시오 하고 나의 팔다리를 들어 바다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나는 벌벌 떨리는 알몸으로 무섭게 불어 닥치는 바다바람 속에 서서『오늘의 이 고통을 우리 생도들에게 주시고 내일의 영광을 이 젊은이에게 주소서』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이었다.

전 생도들은 용감하게 무엇인가를 승리한 것처럼 바다에서 나와 벗었던 작업복을 입고 구보로 사관학교 정문으로 행하였다. 그 다음날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으나 심한 고통으로 몇몇이 의무대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의무대에서도 약간의 소동이 난 모양이었다.

그 다음날 그 당시 교장 고 최용덕 장군이 주재한 참모회의가 열렸다. 의무대장의 보고 가운데 정문 위병소 보초가 생도대 장교한테 빰을 맞아 고막 이상으로 입실하였다 하며, 이러한 짓은 삼가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 보초병의 빰을 친 것은 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일단 사과를 했다. 작일 생도를 인솔하고 정문을 통과하는데 주위와 고통을 잊기 위하여 목이 터지다시피 군가를 부르는 보무당당한 생도들의 모습이 우스웠던지 헬멧을 삐딱하게 쓰고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경례하는 꼴이 못마땅하여 빰을 친 순간적인 나의 잘못이 이러한 결과가 난 것이다.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가는 동안 참모회의는 소란하게 되었다. 지금도 고 최용덕 장군의 말씀이 나의 귀에 생생한 것 같다.『그러한 정문 보초의 태도도 못쓰니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보초병을 잘 치료하여 주시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지금 모든 것을 회상하니 무모한 것도 많이 한 것 같다.

전번 제 4기생 제 10주년 기념일에 참석하여 그 당시의 생도들이 고급장교가 되어 자기네들의 후배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사관학교의 교육내용과 모든 시설면도 많은 발전이 된 것을 보고 감회가 깊었다.

끝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대든 사회든 간에 지도자가 되면 권한과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정의와 양심이 잘 조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 잘된 조화가 올바른 권한이 되며 그 권한으로 책임을 완수하였을 때 영원히 빛나리.

명언

◇ 덕성은 만사에 공통되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는 일개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자〉

=인간의 고뇌를 극복한=

석가(釋迦)

지금으로부터 2천 5백여 년 전 경에 인도의 가비라라는 성에 이상한 왕자가 탄생했다.

싯달타 태자라는게 그의 이름이었다. 아직 젖먹이 어린 시절부터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태자의 얼굴을 한 번 바라 본 사람은 무심결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싶어지는 신처럼 훌륭한 분위기를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자가 태어났을 때 아시다 선인(仙人)이라는 백 살이 넘은 노인이 먼 데서 찾아와

「이번에 탄생한 왕자님을 뵙고 싶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주인 죠반왕은 즐겨 선인을 궁전에 불러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하고 물어 보았다.

희고 긴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아시다 선인은 싯달타 태자를 안고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게 아닌가.

왕과 신하들은 놀라서 그 영문을 물으니까.

「아니 그다지 놀라시지 마십쇼. 태자님의 인상을 보니까 서른 두 개의 위인의 얼굴과 여든 가지의 얼굴을 갖추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인상이올시다. 얼마 있지 않아 출가를 하여 고귀한 부처님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를 많이 먹어 태자님께서 부처님이 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공연히 슬퍼져서……」하고 희열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죠반왕은 태자가 출가하여 중이 된다는 것은 불만이었다.

그가 원한 것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훌륭한 인상을 가졌다는 걸 듣고 무척 기뻐서 아시다 선인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감사하였다.

싯달타 태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대단히 영리한 소년이었다.

무슨 일이건 정성껏 열심히 공들여 하였으며 어중간한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왕은 훌륭한 왕을 만들려고 생각하여 무술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그 훈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태자는 무술에도 열의를 보여 어떤 맹렬한 연습에도 결코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열세 살 때의 일이었다.

왕이 태자를 비롯하여 태자의 학우들을 잔뜩 데리고 농장에 간 적이 있었다. 더운 여름날이어서 인부들은 땀을 비 오듯이 흘려 가며 일하고 있었다.

태자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이 언짢아서

「힘들텐데, 무척 힘들텐데……」하며 어린 마음에도 앞서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보고 있는 동안에 태자의 얼굴은 괴로운 표정으로 변하고, 온 몸에서는 인부들과 같은 굵은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다. 인부들이 괭이로 땅을 파헤치면 땅 속의 벌레들이 껴묻혀 나와서 괴로운 듯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 하늘을 날던 새들이 다투어 내려와 그 벌레들을 먹는 것이었다.

태자는 그것을 보자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불쌍한 벌레들……」

그렇게 중얼거리며 홀로 커다란 나무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 저 벌레들에게는 어버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것이다. 저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벌레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불쌍하게 불생하게도 -

커다란 나무에 기대앉아서 태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즐겁게 웃으며 뛰어 노는데 태자는 언제까지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웅크린 채 앉아 있을 따름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성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모두들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꼭 감은 채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태자를 발견하였을 때 왕은 흠칫 놀랐다.

태자는 아시다 선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출가하여 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불현듯이 머리를 가로지르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무엇에건 감동되기 쉬운 태자의 마음에는 벌레의 죽음이나 물고기의 죽음을 보고 곧 자신의 생명이 없어질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실로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고 있는 자신이 저 벌레들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갈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마음은 암담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물처럼 닥쳐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자는 때때로 외로운 얼굴을 하고 무엇에 홀린 듯이 잠자코 생각에 잠기곤 할 때가 있었다.

왕이나 신하들은 그와 같은 태자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태자는 출가하여 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안달을 치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태자의 출가를 저지하려고 왕은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아름다운 부인을 맞아주면 태자의 외로운 심정도 없어질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왕은 싯달타 태자가 열아홉이 되었을 때 결혼을 권하기에 이르렀다.

왕은 많은 처녀 가운데서 모든 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왕녀 야슈다라 공주를 골라내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태자와 공주를 위해 새로운 궁전을 세워 주었다.

야슈다라 공주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공주였기 때문에 태자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도 어느새 봄눈 녹듯 부드러워지고 성안은 봄날처럼 화창함을 되찾았다.

일이 년의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태자는 부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수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왕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생 각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수심을 보이면 야슈다라 공주가 부드럽게 위로하여 주곤 하였다.

그래도 역시 태자의 마음으로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윽고 태자는 다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왕은 그것을 근심하여 오늘은 달놀이, 내일은 꽃놀이 하는 식으로 가지가지 잔치자리를 만들어 호화스러운 요리, 훌륭한 음악, 미인의 춤으로 태자의 우울한 심정을 위로하려고 하였다.

야슈다라 공주도 열심히 태자의 마음을 밝은 곳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태자를 괴롭힐 뿐이었다.

-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 아버지나 처도 이윽고는 죽을 것이다. 죽음. 아아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태자의 마음 속에는 「출가하고 싶다. 출가하면 죽음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점점 명백하게 되어 갔다.

현명하고 결단력이 강한 싯달타 태자도 정작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퍽이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

출가한다는 것은 태자에게 있어 대 모험이었다.

궁전에서 자라난 태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가지가지의 괴로운 수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출가하여 죽음으로부터 채 벗어나기 전에 병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죽음」에서 벗어나기 전에 죽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태자가 출가하면 부왕이나 야슈다라 공주는 또 얼마나 슬퍼하고 서운해 할 것인가.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태자의 굳은 결심도 엿 녹듯이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태자의 나이 스물아홉이 되었다.

어느 날 태자는 지나치게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기분이 나빠져서 궁전 밖으로 나와 화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래서 백마 칸타카에 마차를 메고 성의 동쪽 문을 출발했다.

언제나 궁전 속의 깊숙이 박혀서 살아가는 싯달타 태자의 외출이라는 전갈을 듣고 신하들도 즐거워서 여럿이 뒤따라 나섰다. 긴 행렬이 되어 버렸다.

태자의 마차가 화원에 채 도착하기 전에 허리가 굽은 한 사람의 노인이 행렬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부하들도 순간 깜짝 놀랐지만 그때는 이미 태자의 얼굴 빛이 달라져 버린 뒤였다. '

「돌아가자.」

태자는 주척주척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말했다.

태자는 마부인 샤노크에게

「지금의 노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더냐?」고 물었으나 샤노크가 대답을 않고 잠자코 있자.

「너나 나나 언젠가는 저 노인처럼 흉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는 죽게 되는 거야」하고 말하고 나서 그 뒤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 태자는 다시 화원으로 가자고 했다.

왕이나 신하들은 다시는 그전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태자의 마차가 성문을 나서자마자 곧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한 병자와 마주쳐 버리고 말았다. 태자는 다시 황급하게 마차를 되돌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 다시 화원에 가려니까 이번에는 장사지내는 행렬과 부딪쳤다.

그때 태자의 얼굴은 불쌍하리만큼 새파랗게 질려서 성내에 돌아와서도 마치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그런 뒤 태자는 기어이 결심을 했다. 대결심을 하고 성을 뛰쳐나온 태자는 가까운 숲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좌선을 하기 시작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팔짱을 끼고 발을 양무릎 위에 얹어놓고 앉은 채로 마음 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업을 가리킨다. 태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한 결심 아래 좌선을 시작했다.

이튿날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배가 쓰리도록 고파도 태자는 꾹 참고 좌선을 풀지 않았다.

어둠이 닥쳐와서 먼 곳으로부터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두려운 생각이 벌컥 들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심정이 청정해질 리가 없다.

두렵다는 생각도, 주저함도, 괴로움도 모든 것을 짓 날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자는 잠자코 좌선을 계속했다. 사흘째는 맹렬하게 비가 내렸다.

그러나 태자는 꿈쩍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7일째에는 태자의 마음도 조용하게 가라앉아서 깨끗한 심정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역시 태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좌선을 계속해 보았댔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자 태자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박식한 스승에게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8일째,

태자는 거리로 나왔다. 태자는 거의 거지꼴의 중이 되었다. 의복은 누더기고 얼굴도 형편없이 되어 영락없는 거지꼴의 중이 되었다.

옛날의 태자를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불쌍하여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태자의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점점 신비로운 빛을 담아가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 마주친 같은 거지 중에게서 박카바 선인이라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 그 선인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박카바 선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다. 제자들은 가시방석 위에 앉거나 바늘로 전신에 상처를 내거나 하며 엄청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태자도 기거를 하였는데 그런 까닭을 물은즉 「죽어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어서 태자는 어처구니없이 웃고 말았다.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수업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태자는 여러 선인을 찾아다니며 가지가지 가르침을 공부하였는데 어느 곳에서든 진정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태자는 자기 스스로 수업하여 죽음에서 구원받을 결심을 하였다. 니렌젠 강이라는 강가에 가서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자기의 수업장으로 정하였다. 그곳에서 태자는 엄격한 수업을 행하였다. 하루에 쌀을 한 알밖에 못 먹는 날이나 호흡을 아주 정지해 버리는 수업을 하였다. 살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수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육체를 괴롭히고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면 반드시 죽음으로 부터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년, 3년, 이렇게 태자의 수업은 계속되어 나갔다. 태자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 정말로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차츰 태자는 죽음을 무서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싯달타 태자가 출가하고부터 5년째의 일이었다.

태자는 막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도 같았다.

「죽음」, 그것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죽음」이라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그런 것이다.

좀 더 아름다운 마음, 맑은 마음이 된다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다.

그곳에서 몸을 씻고 입안을 추기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때 마침 우유 짜는 처녀가 그곳을 지나가므로 우유를 한 모금 얻어 마셨다.

그 맛, 그 비할 데 없는 감미로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우유는 맛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온 몸을 우유가 감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강을 나와 숲 속에 들어가서 보리수라는 나무 밑에 정좌하였다.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상쾌감 때문에 싯달타 태자는 그때 다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황홀감에 잠겼다.

「아아 · 나는 부처가 되었다.」

태자는 그렇게 부르짖었다. 사실 그러했다. 싯달타 태자는 살아 있는 사이에 부처가 된 것이다.

두렵다든가 슬프다든가 주저한다든가 인간의 마음에는 약한 그늘이 있다.

부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부처가 된 태자는 이제 「죽음」을 두려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싯달타 태자라 부르지 않고 부처라고 불렀다.

사까(釋迦)족의 부처라는 뜻에서 「석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까족이라는 것 은 가비라 성의 사람들을 말한다. 석가는 세상의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미망(迷妄)을 없이하려고 가지가지 설교를 향하였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다. 그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佛敎)라고 부른다.

2천 5백 년 전에 전파된 불교는 인도로부터 샴, 중국을 통하여 한국에도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항공 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홍성표

1. 동기 부여

우리 주위에서 항공 산업하면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외면하고 불가능이라는 말로 속단하여 더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본다. 오늘날에 와서 자동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항공 산업을 벌써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 고 반론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항공 산업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제쳐놓고서라도 아주 상식적인 몇 가지 예를 듦으로써 항공 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첫째 소련이 1957년 8월에 ICBM을 사상 최초로 발사 성공시켰을 때 지구에 전 인류는 경악을 금치 못 하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반신반의마저 일으키게 했으리라 본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고「아이크」대통령은 미국이 뒤떨어지고 소련이 상당히 앞섰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떠한 국가이든 무슨 사업이든지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면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의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함축성은 그 후 중공이 1964년 10월에 핵실험을 실시하였을 때 Pu-239 원료가 아니라 U-235 원료임을 알았을 때도 역시 소련의 ICBM 만큼은 놀랬던 것이다. 그 기술은 가능하리라 보았겠지만 그의 소요자금이 과연 염출 가능했을까 하는 것 등이 있다.

여하튼 중공은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ICBM에 수소폭탄'을 적재하고 실전용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니 1949년에 중공이 북경에 소위 그의 정부를 수립할 때 그 토록 빨리 오늘날과 같은 세계 열강에 끼일 수 있을 국력이라기보다 무기의 위력 효과를 나타냈으리라 상상하였을까?

너무나 동기에 대한 서론이 길었다고 보나 항공기와 관련된 예 또 하나를 들어 보면 한국전 중 소련의 MIG-15가 출현 하여 미국의 2차대전의 요새기 B-29 4발 폭격기를 무참하게 만들었으며 감히 미국의 제트전투기 F-80 Shooting-star, F-86 Sabre와 도전할 수 있었으리라 믿었겠는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옛날의 꿈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며 미래에 닥쳐올 공상 소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이며 우리 눈앞에서 이미 체험하였고 닥쳐온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얼마까지나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에서와 같은 추상적인 말만으로 우리나라에 항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실제적인 논증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이미 이러한 과정을 밟고 간 몇 개 나라와 현재 개발 중인 나라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2. 선정 기준의 문제점

외지에 공개된 사실을 들어 국내 항공 산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들어보면 우선 국산화의 효과부터 검토하여 볼까 한다.

국산화의 효과에는 첫째 비국방상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중공의 접근, 그리 고 남침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북괴집단 특히 북괴는 약 800대의 각종 신예항공기를 보유하고 호시탐탐 기동성 있는 항공전으로 1969년 6월 5일 중동전과 같은 양상의 꿈을 이룩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한국 공군은 항공기면에서 숫 적으로만 아니고 질적으로 상당히 약세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대하여 항공기 면에서 질적 우세한 신예 전투기인 F-4 팬텀을 요구하였으나 겨우 1개 대대의 F-5E(International Fighter)를 추가 대여한다고 전함으로써 한국 정 부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 지난 9월 11일자 각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고 얼마나 항공 산업이 절실한가를 깨달았을 것이며, 한편 얼마나 서글픈 생각이 앞섰겠는가도 불문가지(不問可知)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며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한국정부의

입장도 동정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다만 고려할 점은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를 많이 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그리하여 나는 국방상의 문제 에 있어서 항공 산업은 외국의 원조만을 탓하기 전에 그 원조를 받아들이는 태세 또한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항공 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인 고취, 또한 전력 면은 너무나 큰 것이라 믿는다.

1967년 6월 5일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그의 항공기가 출동한 대수는 전 보유기의 99.5%라는 사상 동서고금을 통하여 볼 수 없는 높은 가동률을 보인 것은 우연이라거나 정신자세라고 운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항공기는 어떠한 종류라도 제작할 수 있는 항공 산업 능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기술적 효과면에서 이미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 완성되어 월면에 인간을 착륙시킬 때까지 의 System Engineering의 결과는 연간 기술의 파급효과가 연간 특허가 2만 건 이상이며, Von Braun 박사는 가격 상으로 연간 890억불이라 표현하였다.

여하튼 항공 산업은 중진국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걸쳐 기술상의 자극을 주고 고도의 민간 산업발전에 귀중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 산업은 기술진보의 최첨단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미국에서 현재까지 대여 받 았고 또 계속해서 대여 및 매입할 때 그의 기술은 우리나라의 기초산업, 기초기술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된다.

소련이나 중공의 전쟁 무기인 ICBM이나 핵무기, 그리고 최신 항공기 제작에 집중된 기술발전은 지나치게 불균형 된 산업 구조를 이룬 것 같으나 이미 끌어 올린 기술은 타 산업분야에까지 파급되어 이끌어 올린 결과를 초래시켰다고 해서 과언은 아닌 것 이다.

세째 경제적 효과는 얼핏 생각할 때 오히려 항공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투자비 가 필요하고 또 국내자본이 부정(不定)한 오늘날에 와서 항공 산업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고 오히려 우습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일면 국방, 일면 경제라고 상호 모순은 항상 국내경제에 안고 있으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안고 있는 정도보다 도가 훨씬 넘은 심각성을 노출시킬 것이다. 이유는 북괴가 계속 신예기로 대체해서 도입하여 전쟁준비에 광분하리라 함을 부인한

다면 문제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나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도 이와 상대적 이니 울며겨자먹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항해서 도입하여 신예기화 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공의 접근은 미국이 중공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한국에 대하여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군사 원조방식은 취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상상된다. 더욱이 무상원조 체제가 유상 원조로 전환될 전망은 더욱 짙어질 것임은 또한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 한국이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의 답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외국에서 귀중한 불화를 지불하고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자국 내의 생산이냐 하는 것 중 병합 또는 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 할 때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나 항공 산업의 발전은 크면 컸지 적지 않으며 또 군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항공에 도 기여되는 바 크고 그래도 모방 가능함으로 국민 소득면에서 「케인즈」가 말한 유효수요의 원리로 볼 때 승수효과는 적지 않으리라 본다. 다만 처음 투자한 항공 산업 조성 단계에서 막대하다는 것이 큰 난점이기는 하나 일단 완성한다면 그 후의 경제
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 생산문제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이미 어느 곳에서나 해 당되는 비용 대 효과 문제이다. 비용 대 효과면에서 무기체계의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비, 초도조달비, 연간 운용비로 나누고 있다. 운용비란 무기체계의 유지보수, 인원의 훈련 연료지유(燃料脂油) 등의 보급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무기체계가 취역하는 기간 중에는 매년 되풀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한 유효도를 얻기 위하여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 유리한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단순화 된 예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비교하려고 한다. 국산A, 수입B의 두 가지 체계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Ca, Cb라하면

Ca=Na(Pa + La) Cb=Nb(Pb + Lb)

Na, Nb는 일정한 유효도를 얻기 위하여 장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체계의 수이다. 양자의 장비성능은 일정하다고 보나 가동률은 다르다. 수입장비의 가동률은 국산장비의 그의 1/r이라하면 Nb= rNa라고 하지 않으면 같은 유효도를 가진 대체안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Pa, Pb는 양 체계의 초도조달 가격이다. 개발비는 편의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La, Lb는 매년 되풀이 되는 운용비용

의 운용이 계속되는 기간 중의 통계이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그의 2개의 대체적 방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Na(Pa+La) ≦ rNa(Pb + Lb)

즉 Pa + La ≦ r(Pb + Lb)……①

D의 좌변이 우변보다 작으면 국산을 하는 편이 유리하고 반대로 크면 수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①에서 국산하는 편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국산가격 Pa는 Pa < rPb+(rLb - La)……②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r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수이고 또 Lb는 La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우변의 제2항 (rLb-La)는 정(正)의 수이니까 Pa는 Pb보다 어느 정도 고가라 하더라도 ②의 조건은 만족된다. 국산가격이 수입가격의 몇 할 증가하느냐에 문제되고 있고 다소이면 괜찮으나 2할 또는 3할까지 상식적으로 높다고 본다. ②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일본의 경우 Missile에 있어 견적을 보면

Pa/Pb < r+1/Pb(rLb-La)……③

Pb=115 억 엔(圓), Lb=145억 엔(圓), La=92억 엔(圓)으로 이것을 ③에 대입해 보니까 국산에서도 수입에서도 가동률은 동등하다. 즉 r=1이라 하더라도 Pa/Pb < 1.46로 되고 국산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5할이 넘어도 국산화여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r=1이 될 리가 없다. r = 1.25C (이것은 수입장비의 가동률이 국산장비의 그의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결코 극단의 가정이라 보지 않은데 이는 일본의 경우이다)라 하면 Pa/Pb < 2.02로 되고 약 2배의 가격이 되어도 국산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산가격이 수입가격의 약 2배가 된다 하더라도 국산이 유리 하다는 것을 보면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국산이 외자의 절약을 가져온다.

생산의 촉진효과는 완성무기의 수입으로 재생산은 있을 수 없으나 국산에는 유효 수요를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를 높여 생산을 촉진한다. 또 항공기와 같은 고가이면서 대량조달은 관계 제품의 코스트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부품보급의 이익을 가져온다. 장비품을 수입 하는 경우 그의 부품을 새로이 제작할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고도의 무기에서는 초도 투자액보다는 운용 유지비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서 국산에 의한 부품보급의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 수출의 효과를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 같은 감이 있으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 방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국내 방위산업을 추진한 때 미국을 위시한 열강국이 무모한 계획이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떠들어 댔으나 프랑스는 그대로 강행한 것 이다. 그의 대표적인 대형 무기는 음속 2배의 전투기 MIRAGE-3형이었다.

이 MIRAGE-3는 프랑스 공군에 정식 채용된 후 각국에서 호평을 받아 프랑스는 수출무기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높은 전과는 MIRAGE의 가치를 일층 높여주어 보다 많은 각국에서 구입하기에 이른 결과는 예상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시행 한 방위산업의 효과인 것이다.

만일 국산화라 하면 국산화에서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산화의 불리한 면을 보면 연구 개발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국산 할 경우에 기술 수준이나 공업 능력이 너무나 열등한 국가이므로 항공기의 생산이 전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완전 국산화라는 방법을 지양하고 점진적인 국산화라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국산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직접 전술항공기와 같은 고성능용이 아니라 극히 유치한 초보단계의 연락 및 연습기에 국한하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이다.

둘째, 기술수준상의 문제는 이미 논한 바 있으나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항공기 기체와 Engine만을 장착한 정도이고 현대항공전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자장비나 고성능의 통신기의 제조는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성능 항공기는 전연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가능한 한 부속품의 자급자족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산의 투자성문제인데 국내저축이 부족한 우리나라 등과 같은 후진국은 항공 산업 의 기초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소비성일 뿐 재생산효과를 갖지 못하는 항공 산업에 과연 막대한 투자비를 외국으로부터 차관해야 할 것인가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 기존 타 공업시설의 이용 등 여기에 바로 국책으로 결정하여 어느 한계까지 그으느냐에 있다.

우리는 항공 산업을 논함에 한국과 같은 극한적인 준전시 상황 하에 있는 나라는 안일하면서도 향후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꿈꾸는 중진국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안건이 문제이다. 바로 여기에 한 국적인 여건이 어떠한 외국보다 악조건이 며 엄두를 내지 못할 입장에서 강행해야 할 숙명적인 면이 있다.

이것이 군사기술의 관점에서 본 국산화의 검토인데 바로 그의 특성이 군사(軍事)의 선행성(先行性)으로 군사 기술발전의 계기는 항상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도외시하고 전쟁의 본질과 직결해서 국가적 또는 정치적 요구로 해서 기술면에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기술에 앞서서 발전하고 다른 기술을 리이드하는 것 이다.

3. 외국 항공 산입 의 발자취

가장 우리와 이웃한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면 1925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20년 간에 걸친 항공기 생산은 기체만도 11만대에 달하고 발동기는 15만대를 생산하였다. 특히 2차대전 중 생산의 최성기를 이룬 것은 1944년에 4년간 2만 5천 대를 넘은 각종 항공기를 육군항공대와 해군항공대에 납입시키는가 하면 이들 중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종도 10여종 포함되어 있다.

그 때 당시에 항공기 생산에 종사한 항공기 공장은 14개소나 되며 종업(從業)한 총 인원은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후 일본을 방문한 연합국의 전략잠재력(戰略潛在力) 조사단이 어떻게 이렇듯 다량생산이 가능한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다음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이기는 하나 과거 항공기가 출현한 초창기부터 더듬어 올라가 보면 1914년에 군용기는 15대에 민간기는 49대 밖에 되지 않았고 이때 가격면을 보면 현재와 같은 거액이 아니라 극히 저렴한 것으로 770만여 불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제1차 대전의 막바지인 1919년에는 군용기 682대, 민간기 98대, 도합 780대로써 가격면으로 볼 때에는 일약 2,000만 불을 상환하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항공기의 발전은 제1차 대전의 군용기 경향으로부터 종전이 되면서 약간 침체 하였다가 항공기의 민간화가 가능하므로 점차 군용에서 민간용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 미국이 생산한 군용기는 677대에 불과하였으나 민간기는 8배 이상인 5,516대로 도합 6,193대인데 이 때 가격면은 7천만 불에 달했던 것이다.

미국이 현재까지 항공기 대수 생산면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고를 낸 것은 제2차대전의 종전을 앞둔 1944년으로 1년간의 생산고는 민간기는 한 대도 없고 군용기만 96,318대이고 이때 금액은 160억 불까지 달했던 것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동란의 휴전

이 임박했던 1953년에는 군용기 11,000대이고 민간기는 4,134대로써 도합 15,134대에 가격 면에서는 제2차대전 당시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80여 억 불에 달했으나 항공기 당 가격 면에 서는 2차대전 당시에는 1대당 1,500불이었으나 한국전 당시에는 대형 폭격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000불에 달하여 약 4배라는 상승률을 올린 것이다.

소련의 경우를 보면 1938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약 4,400대로서 이중 전투기가 1,900대이고 그 외에 4발 폭격기는 220대 뿐이었으나 쌍발폭격기는 900대에 달함으로써 당시에는 항공기 생산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서 군용기는 가장 많은 생산고를 올린 것이다.

소련도 제2차대전의 말기인 1944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에는 연간 43,000대의 항공기 생산고를 올려 미국의 반에 도달하지 못하나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많은 생산을 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항공 생산현황을 들어보면 1960년 항공 우주산업의 매상고를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11억불이고 다음은 프랑스와 캐나다가 각각 4억불선을 넘었으며 일본만도 2억불 선까지 끌어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68년에는 가장 정점을 달리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고는 프랑스가 14억인데 반하여 영국은 1960년보다 저조한 10억 불을 약간 넘으나, 캐나다도 약 7억, 일본은 약 5억까지 끌어올려 우주항공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상고를 올리고 있는 것은 단연 미국이 으뜸으로서 1968년의 매상고는 300억 불에 달하여 소련에는 확실한 수치(數値)가 발달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다.

4. 세계 항공 수송의 추세

항공기의 이용도는 다방면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충당하려면 항공 산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항공기의 이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과거 수십 년 전부터의 항공기 이용 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955년 ICAO 통계로써 세계 항공 수송량을 발표한 것을 보면 1932년에 총 비행 연장거리는 1억 3,900만km이고 여객비행은 4억 400만km로 항공기는 약 여객탑승수로 평균 2.9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후인 1942년 대전중에도 비행 연장거리 3억 1,600만km이고 여객비행은 35억 1, 300만km로서 항공기 당 여객 탑승 수는 평균 111명이 된다.

이러한 비율의 상승은 1932년보다 비행거리는 1942년이

약 230%가 증가하였으나 여객비행 수는 870%나 증가되었으며 항공기당 여객 탑승비율은 380%가 증가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54년 현재로서 비행거리는 22억 6, 500만km이고 여객비행거리는 620억 km이고 항공기 당 탑승인원 수는 27.4명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비행거리의 증가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율이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계속 증가하여 1970년에는 여객수송 수는 3억 명으로서 이를 여객비행 km로 환산한다면 비행기 당 여객이용률을 매년 0.7%로 보고 1955년을 기준으로 하여 37명으로 추산컨대 약 1,000억km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산업으로써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경항공기종수의 증가율을 보면 1955년 경항공기의 신규수요는 4,300대로 대부분이 단발소형이었으나 이 분야로 수년 전부터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소형 항공기도 1966년경부터 터버 · 제트 또한 터버 · 프롭(Turbo prop)기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미국연방항공(FAA)의 예측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제트상업기가 1968년 약 2,000대이던 것이 1970년에도 약 7,000대까지 급상승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불과 매상고가 1,600만 불에 불과하던 것 이 그 후 매년 20%씩 착실히 상승하여 1966년에는 5억불을 넘었고 1968년에는 6억 불로 이렇듯 상승률은 1972년에는 10억을 예상하고 있다.

소형항공기에 의한 연간 수입고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1950년에는 불과 2,000만 불에 불과하던 것이 20년 후인 1970년에는 약 4억 불로서 20배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1969년에는 최고 정점을 달려 거의 7억불에 육박하였으나 1970년부터 크게 급감소 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보고 1979년에는 10억 불로 내다보고 있어 전망은 밝다.

5. 한국의 항공 산업

이상은 어디까지나 세계 또는 외국의 상황이고 한국의 실정을 보면 대형 수송기는 그의 수요가 1963년에 비행거리 94km에 여객수가 약 200만 명에 달하여 여객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71.8%이었다. 1969년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비행거리는 880만km이고 여객수는 1,800만 명으로 6년간에 비행거리는 930%나 증가하여 여객수는 600%나 증가되어 엄청난 수효를 말해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형 단거리의 경항공기의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별로 그의 개척이 활발해지지 않고 있으나 만일 적극적인 개척을 서두르면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보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항공기의 요구도는 민간에서는 당장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각 군 특히 지상군의 경항공기 요구도는 향후 급격히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거나 기술적인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산업을 육성함에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고 아울러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Liced Production 또는 부분품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급선무로 되어 있는 항공기 예를 들면 0-1A나 자유중국에서 모방 제작한다는 T-41 형과 같은 것은 2, 3년 내의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만일 0-1A 경항공기를 제작할 때 가격 면을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국내 생산 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가격인 18,000불 보다는 약 38%나 염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기존시설이 있다는 전제하에

논하는 것으로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 즉각 착수한다는 것은 우를 범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항공기 생산 위주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의 기존 타 공업시설과 이미 오랜 동안 연마해온 국내의 기술자를 잘 활용하여 착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시설로서는 이미 다년간 많은 항공기의 수리를 맡아 온 공군의 수리창과 또 하나는 항공기는 비록 소형이고 경항공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통합적인 공업이므로 민간산업을 최대로 활용함은 별로 손색이 없으리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후진국인 자유중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항공기에 관한 준비를 서둘렀으며 1969년부터 미국의 T-41 경항공기를 본 따서 자유중국의 독자적인 경항공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상당한 격차가 있기는 하나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전전(戰前)에 연간 25,000대의 각종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었던 기술이 있었으나 전후 특히 한국전의 특별수요에 의한 혜택을 도외시할 수 없으나 시설은 모두 파괴당하고 다만 기술진만 남아 있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은 미군기의

수리나 낙하탱크의 제조로써 시작한 항공 산업은 1952년에 일본 엔화로 2,000만 엔(圓)에 불과하는 것이 1953년에는 일거(一擧)에 100배가 넘은 22억 4,000만 엔(圓)에 달했던 것이다. 그 후 일본은 미국의 항공기 수리 및 생산에 충당하는 것만도 연간 10억 엔을 넘는 것이었으나 이것으로 일본의 항공 산업은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병행하면서 일본의 방위, 또는 민간 항공기 수요에 응했던 것이다.

일본이 최초로 전후에 양산한 항공기는 T-34 연습기로 1954년에 49대, 1955년에는 75대를 납입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 · 일 양 정부의 공동 경비부담에 의하여 별도의 항공기 생산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T-33 제트연습기 210대를 1959년 3월까지 완납하였고 F-86 제트전투기는 1961년 2월까지 300대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자력 개발기에 착수하여 최초로 미국의 T-33 제트연습기와 대등한 T-1 제트연습기에 착수하여 1956년부터 1958년 사이에 지상 시험용 2대를 완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후 1963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에 납입할 음속 2배의 최신예기 F-104J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1965년까지 2년간에 200여대를 납입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F-4(PHANTOM)을 자국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의 항공산업은 일익증가하여 매상고만 하더라도 1952년에 불과 2,000만 엔(圓)에 불과하던 것이 1960년에 248억 엔(圓), 그리고 1968년에는 922억 엔(圓)에 달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항공기 생산고가 높았다는 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고가 과연 일본 공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봄으로써 항공기 산업이 전 공업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 한다.

일본이 1968년 항공관계회사와 관련 있는 27개 회사를 추계한 것을 보면 총자산의 경영 비율은 4.7%, 고정자산은 5.3 %, 총 매상고는 4.5% 순이익은 2.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비율을 보고 얼핏 항공 산업이 공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 나 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을 중심으로 본다면 경항공기의 생산에는 크게 새로운 투자를 통한 시설이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음은 기술진의 확보문제인데 이는, 다행히 우리나라 공군이 최신예기를 보유케 됨으로써 외적(外的)요인에 의하여 기술습득을 강요당하게 된 결과 고도의 기술진은 이에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기존시설과 확보되어 있는 기술진은

우리나라가 항공 관업에서 착수한다는 정책적인 결론만 내린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너무나 소외당하여 점차 이직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는 강력한 뒷받침에 의하여 확보해야 한다.

현재 매년 이직(離職)하는 요점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내놓았더니 보수불만이 압도적으로 78%나 되며 그 외에는 퇴직일시금으로 부채 또는 투자에 충분하는 것이 17%나 되어 결국 보수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 면을 볼 때 숙련공은 18,000—27,000원 선이고 최고의 대우라야 27,000—37,000원이고 보면 이직한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자는 현재 공군에서만 약 2,000명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진의 문제는 대우가 좋으면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기존시설은 아직 미약한 점이 있으나 그런대로 선용하면 국내 항공 산업의 확대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 항공 산업의 방향

항공기 생산 발전단계를 보면 어떤 기술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첫째, 기술개발 단계로서 여기에는 현 기술진을 기반으로 하여 수리 정도에서 시작하되 그 외에는 선진제국과의 기술제휴 및 항공기의 조립까지 그친다.

다음 기종개발 단계는 수리에서 조립이 끝난 후의 단계로서 이 단계는 소형의 왕복식 경항공기의 제작단계로써 바로 우리나라가 처해야 할 단계가 여기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첫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리라 믿는 0—1A의 제작인데 이 내부에는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일부 통신 및 전자기재는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요, 이에 말한 바와 같이 0-1A가 국내 생산을 할 때에 생산 가격이 38%나 적게 소모된다고 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분석의 대식(臺式)으로 볼 때에 너무나 당연한 적법(的法)이 된다. 비용 대 효과분석에서 국내생산이 외국으 로 도입하는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되더라도 국내생산이 유리 하다고 하였으니 38%의 저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고려하더라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은 0-1A로부터 그의 발전형인 T-41 항공기를 제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0-1A는 가격이 염가이나 T-41은 그의 가격이 2만 5천불로서 0-1A를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현재까지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단계는

향후 5년 내에는 UH-1 헬리콥터까지는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UH-1의 가격은 도입가격이 26만 불 이상이나 되는데다가 향후 민간항공에서 산악이나 활주로가 없어 이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을 위하여 많이 수요되리라 본다.

특히 군에서도 현재 대간첩작전용으로 이미 다수 도입 했으나 지상군의 기동화전은 헬리콥터의 수가 많이 필요함은 이미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월남전에서 총 4,000여 대의 항공기 중 반수 이상이 헬리콥터였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에게 미치지 못하나 적지 않은 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공 산업을 육성함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들었고 또 항공기 수요도를 들었으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 첨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많은 난관에 봉착되리라 본다. 이를 극복해야함은 상식이나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던져 보려고 한다.

첫째, 기술자 확보는 어느 기술요원보다 우선하도록 보수 면에서 생활보장에서 강력히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둘째, 기존시설은 가장 많이 확보한 곳에서 관장해서 항공 산업육성의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때때로 소속감이나 일체의식을 무시함은 역효과를 초래하며 이는 바로 조기육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셋째, 항공기의 요구기종은 가급적 정부에 의하여 단일 기종으로 규제해야 국내 항공 산업이 육성된다고 본다. 0-1A는 어느 분야에서는 일부 불만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단일화 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과 계속적인 기술연마의 고도화로 보다 우수한 생산품을 내놓을 수 있다.

항공 산업은 과연 가능한가의 회의심은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어떤 사람의 뇌리 속에도 잔재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반대는 너무나 많았으며 비난이 컸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항공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달리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데다가 너무나 단위가 높은 기술 제작품이므로 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이를 배제 코 만난을 극복할 때 수 년 후에 도래할 항공의 꿈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화성 공격—

★ 20년 내에 인간은 화성에 첫발을 디딜 것이다. ★

12명의 승무원 전원을 태운 유인 화성 우주선이 돌아오고 있다. 2. 3일만 지나면 1983년 8월 14일이다.

약 640일 전에 화성 착륙이라는 극적 사명을 띠고 지구를 출발했던 이들이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날이다. 몇 가지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이 비행사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그런 일을 제외한다면 모든 기계장치가 정확히 그 기능을 발휘했으며 그 정확성은 먼 옛날인 1969년에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를 방불케 한다.

그들의 귀환을 위한 요란한 환영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그들의 거창한 비행으로 인간은 새 시대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 여행에서 인간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의 한 주요 유성에 발을 디디었다.

이제 인간은 우주의 아주 적은 한 구석에 불과하나마 우리 태양계 전체를 탐사하는 대담한 계획에 따라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후기였다. 그 때 미국은 소련이 우주개발에서 다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화성으로 전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예산 사정이 벅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화성유인

비행이라는 전례 없는 계획을 시작하게 했다.

이리하여 핵 동력의 우주버스, 재사용이 가능한 추진 로케트, 우주예인선(宇宙曳引船), 그리고 달 왕복 비행체까지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합쳐 무게가 1백 50만 파운드이고 각각 6명의 우주비행사가 타는 2척의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주변 궤도에서 조립되었다.

곽 속에 들어있는 여송연같이 나란히 연결된 3개의 핵동력 우주버스들이 각 우주선의 화성비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공급했다.

바깥쪽의 2개 우주버스는 우주선이 상승을 계속하여 지구의 중력이탈 속도를 갖도록 추진하고 나서 벗겨져 나가 지구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하나만이 잔여 비행에서 추진용으로 사용되었다.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인력으로부터 해방된 후 두 우주선은 서로 연결된 채 화성을 향해 270일간을 비행했다.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주선 중 하나는 구조선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되면 이 구조 우주선 안이 비좁게 될 것이다.

각 우주선은 승무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981년 11월 12일, 두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권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다음해인 1982년 8월 9일 두 우주선은 서로 분리되어 화성주변의 24시간 선회 타원궤도(楕圓軌道)에 돌입했다.

그 궤도에 진입하자 우주비행사들은 달 모듈과 흡사한 착륙장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화성표면의 미리 선정된 장소에 정밀하게 유도되었다.

각 착륙선 해취로 부터 자꾸 움직이는 자동 로보트가 나왔다.

이 로보트들은 착륙장치의 착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화성표면물질을 파내어 가지고 착륙장치로 돌아왔다.

그리고 착륙장치의 로케트가 발사되어 상승하고 선회 중인 모선과 랑데부했다. 모선에서 과학자들은 화성의 흙 표본에 대한

중요한 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분석을 조심스럽게 실시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는 한 가장 복잡하고도 정교한 실험이었다.

그 실험결과 화성의 표면은 인간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궤도를 선회 중인 2개 우주선이 다시 결합되었고 또 화성탐사모듈(MEM)이 하강준비를 했다.

12명의 우주비행사 중, 6명이 MEM을 타고 화성표면을 향해 발사되었다.

MEM에는 우주비행사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한 대와 30일 간의 생명유지장치가 들어 있었다.

우주비행사들은 MEM안의 비좁은 곳에서 먹고, 자고, 또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곳을 생활처와 사업실로 사용했다. 그들은 사명을 완수했으며 모선으로 돌아가서 궤도상에서 동료들과 다시 합류했다.

1982년 10월 28일, 즉 화성에 도착한지 약 80일이 경과한 후 이 두 우주선은 귀로에 올랐다.

그러나 이 우주선은 지구로 곧장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船首)를 금성으로 돌렸다.

화성을 떠난 지 123일 후인 1983년 2월 28일, 금성부근에 도착했다.

우주선들은 금성에 접근하면서 두 개의 2,000파운드짜리 탐색체를 천체를 향해 발사했다. 금성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서열(遮熱) 장치가 있는 이 탐색체 중 하나는 금성 표면으로 투하되었고 또 하나는 부유체(浮遊體)로서 금성 대기권에 떠 있게 했다.

두 탐색체는 금성자체와 그 대기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유인 우주선에게 중계했다.

우주선은 금성을 통과하자 지구를 향하는 접근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그 태양궤로 선회속도를 일부 감속시켰다. 그리고 태양

경 -제23주년 국군의 날 –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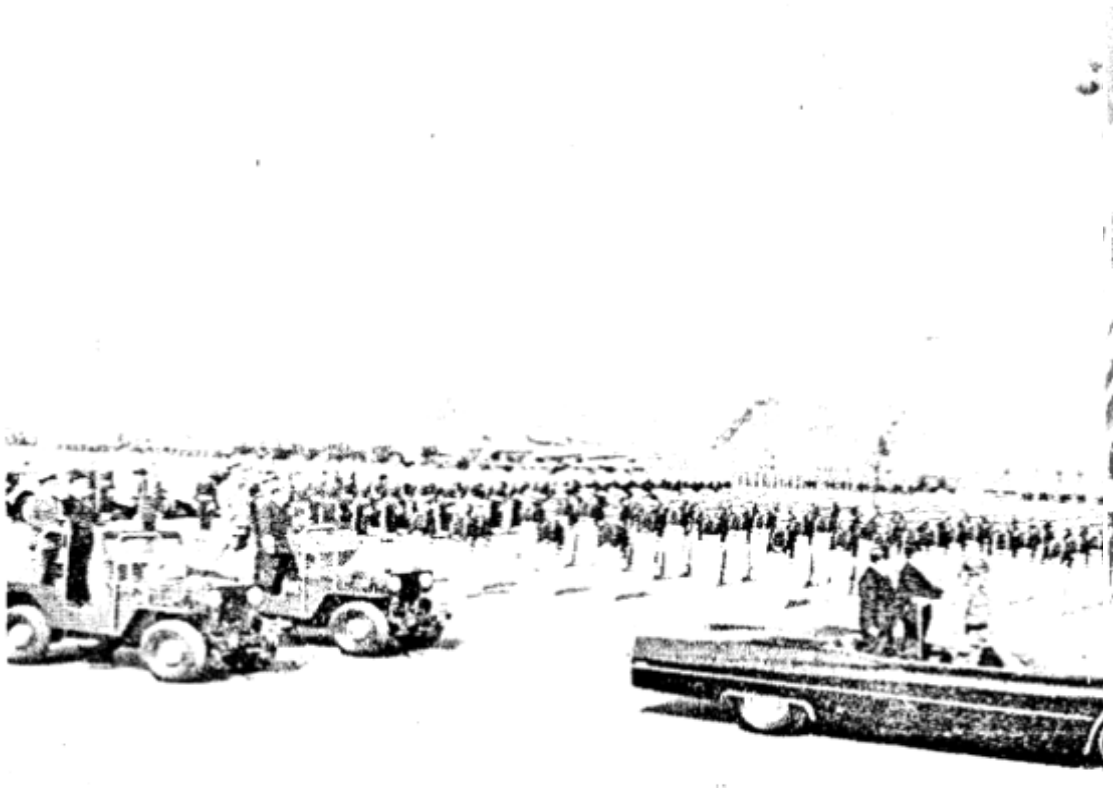
막강한 국군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는 건군 23주년 기념식이 10월 1일 상오 10시, 서울 여의도 5 · 16광장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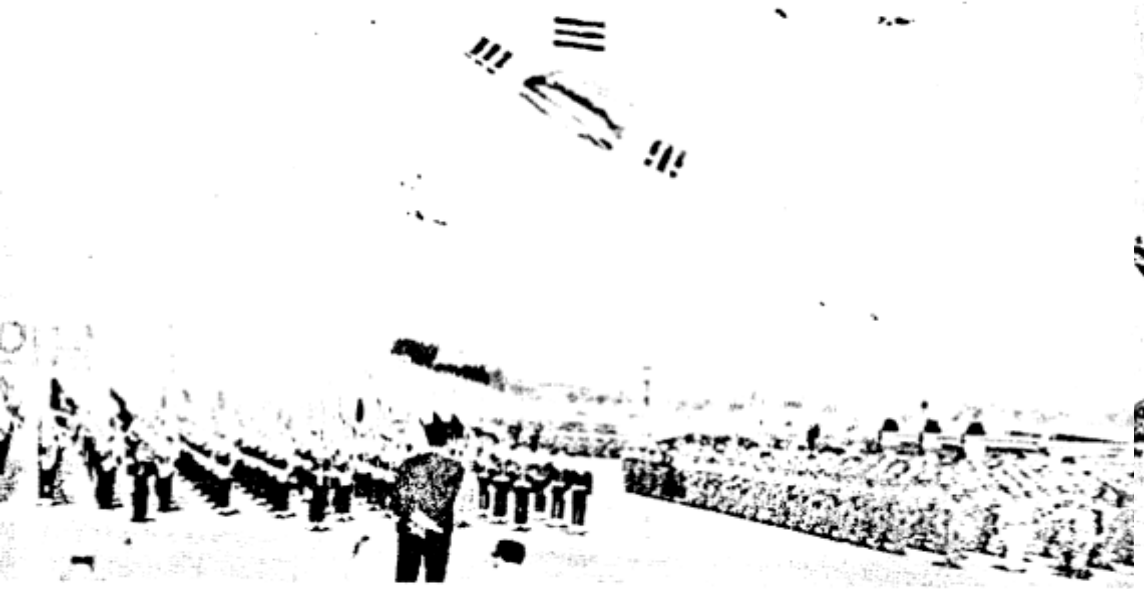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유재흥 국방부장관, 주한 외교사절, 미국을 비롯한 16개 우방국대표, 각계 인사, 해외교포, 예비역 장성, 그리고 시민, 학생 등 약 30만 명이 참석하여 뜻 깊은 이날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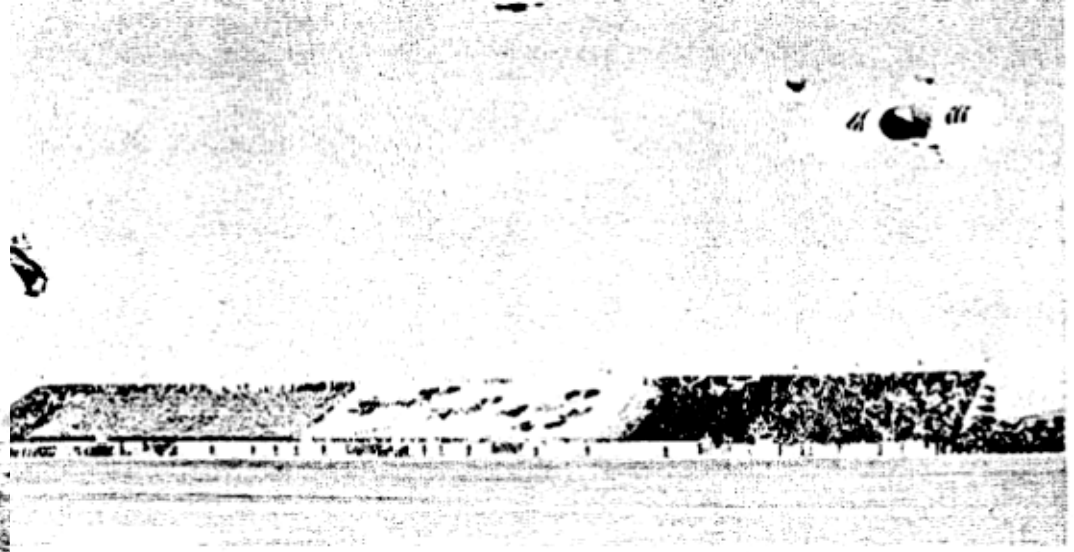
사진 · 질서 정면하게 도열한 육 · 해 · 공 · 해병대 · 주월 한국군 및 향토예비군 정예부대를 박 대통령이 열병하고 있다.

구국일념으로이어온 스물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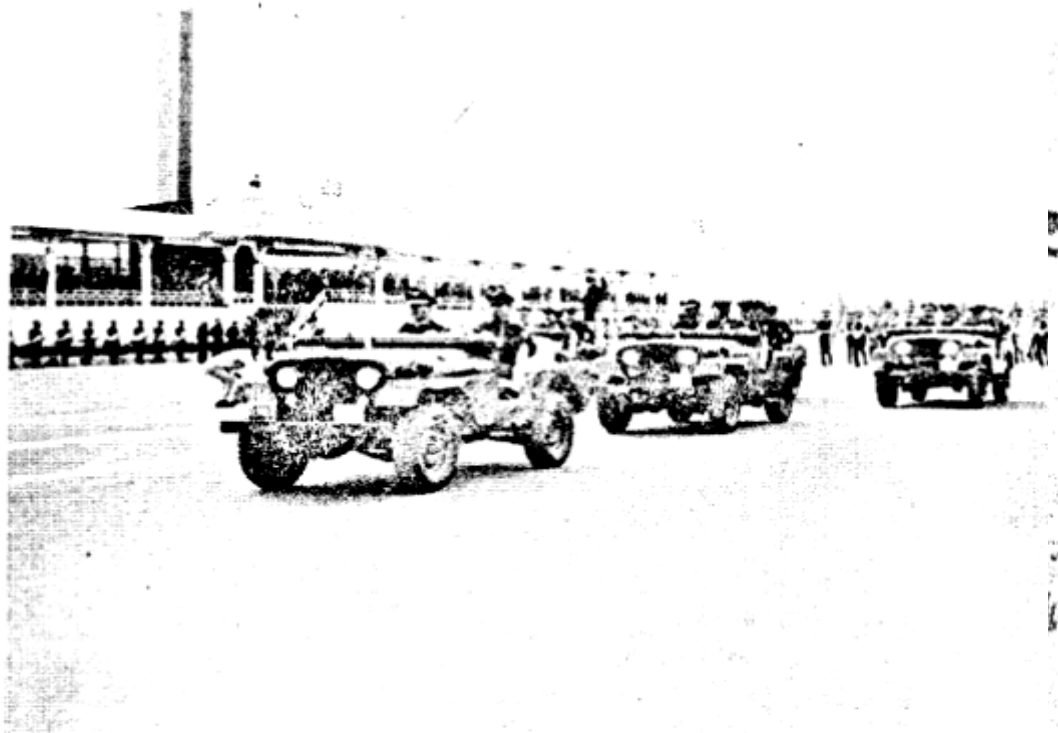
5 · 16광장을 뒤흔든 이날의 대행진은 「자주국방」의 힘찬 전진이며, 평화에의 굳센 의지인 동시에 통일을 향하는 민족의 단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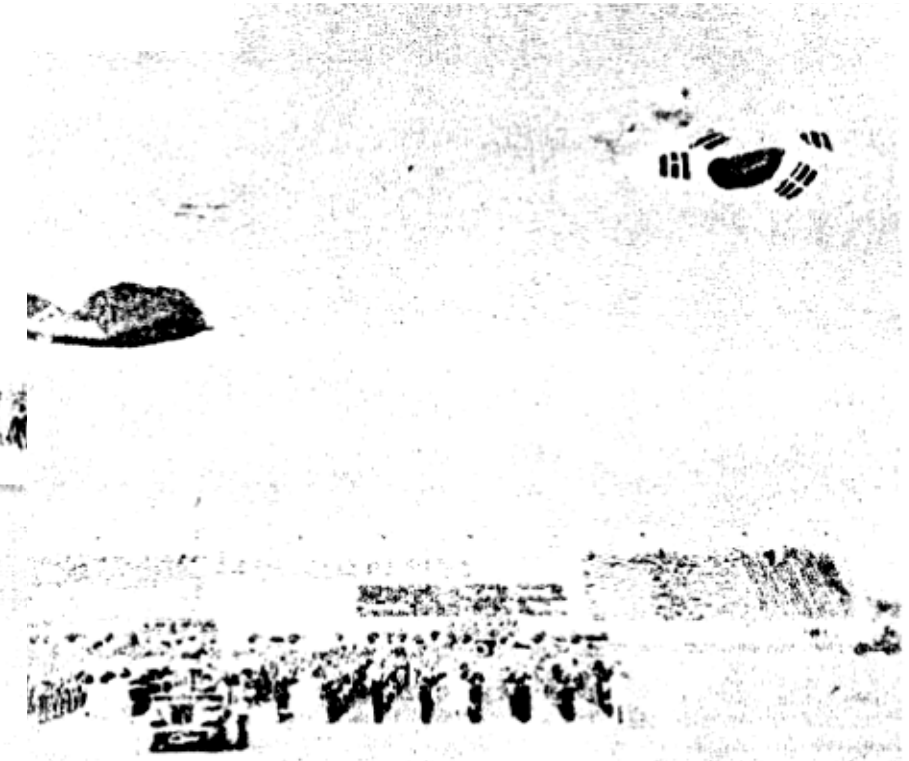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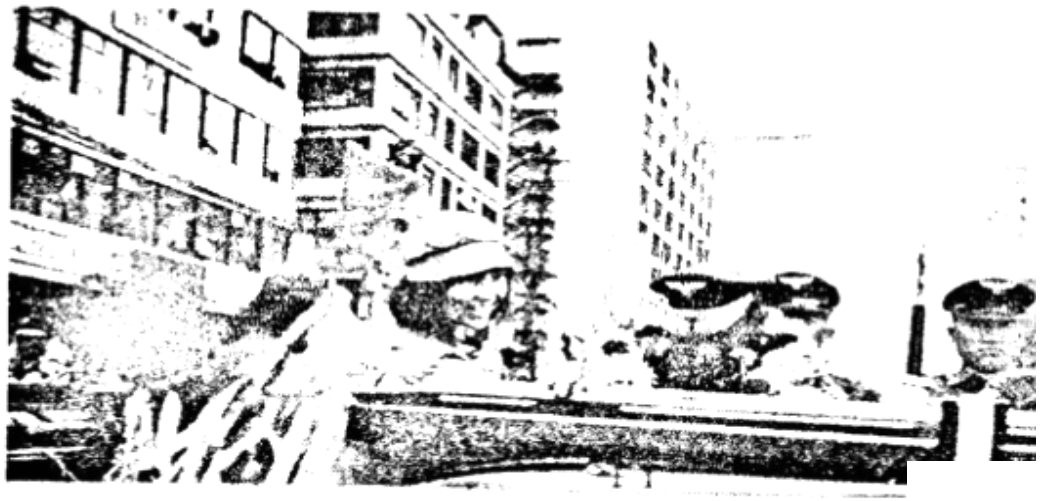




스탠드에서 카드로 「팬텀」을 수놓는 위로 우리 공군 F-4D 「팬텀」기가 우렁찬 굉음과 함께 하늘을 날아 막강한 공군력을 과시했다.







기념식에 이어 하오 3시부터 시작된 시가행진에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우리 공군 용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 거행된 국군의 날 때「퍼레이드」에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보무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다.

궤도에서 나와 지구를 향했다.

드디어 출발 후 167일 만인 1983년 8월 14일, 우주선은 엔진속도를 줄이면서 지구에 접근하여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

여기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버스가 귀중한 짐과 더불어 우주비행사를 싣고 지구 표면으로 하강하여 인간에 의한 최초의 주요 유성 탐험을 끝마친 것이다. 화성에 대한 탐사는 1962년에 금성을 측면 비행한 극적인 매리너 2호의 발사와 더불어 사실상 시작되었다.

3년 후에 발사된 매리너 4호는 화성 옆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매리너 2호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지구에 보내왔다.

그 결과로서 금성에는 자장(磁場)이나 방사선대(放射線帶)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또 태양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성 언저리의 유성체들의 밀도가 지구 주변의 0.1 퍼센트 밖에 안 되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리너 2호의 금성 통과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점은 금성표면의 온도가 화씨 600도를 넘는다는 사실이었다.

매리너 2호의 이 성공은 매리너호 전체계획의 진도를 확정짓게 했으며 또 1965년에는 매리너 4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하여 그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매리너 4호가 화성 옆을 비행하면서 보내온 자료들이 분석 검토되었다.

또 1969년에는 매리너 6호와 7호를 발사하여 7월 31일과 8월 5일에 각각 화성 옆을 비행하게 되었다.

이 우주선들은 화성면 상공 2천 1백마일 고도에서 해상도가 높은 것과 낮은 TV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에는 화성표면의 지형이 TV 카메라에 의해 더욱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지구에 송신된 이 사진들은 매리너 4호 사진이 화성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매리너 6호와 7호의 사진으로서 화성의 지구나 달과는 상이한 그 자체의 특징을 갖는 천체로 갑자기 간주되게 되었다.

1969년의 이 탐색체들은 화성 남극의 온도가 너무 낮은 까닭에 남극관지대는 아마도 탄산가스로 구성되고 거기에는 극소량의 눈이 있을 가능성을 밝혀냈다. 적도에서의 온도는 낮에 화씨 75도까지 올라가나 밤에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진다.

이러한 통과비행은 또한 매리너 4호에 의해 밝혀진 화성 대기권의 분석결과, 즉 이 대기권이 주로 탄산가스와 아마도 일부 수증기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되며 또 산소분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질소의 징조는 전연 나타나지 않았다.

화성에 질소가 결핍되어 있는 사실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질소는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의 주요성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질소가 화성 대기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검출할 수 없을 정도의 극소량만이 존재한다면 화성표면의 물질에 과연 질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천문학자는 질소의 부재를 보고 화성에는 인간이 이해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절변화는 식물 형태에 기인한다고 추측하지 않는 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대기에 어떤 형체의 질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일까. 1969년의 매리너호 비행은 화성에 대한 신비를 하나 더 낳게 한 것이다.

화성상의 생명문제는 이탈리아 천문학자 「죠반니 쉬아파렐리」가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했던 1877년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시계(視界)가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상하고도 희미한 먼지 같은 줄을 기록했다.

그 당시 이 줄은 보일 때도 있었고 안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줄은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었으며 쉬아파렐리는 이 미묘한 직선들의 현상을 처음으로 그려냈다.
그는 이 직선들을 이탈리아말로 운하라는 뜻인 「카날리」라고 명명했다.
2년 후인 1879년에 그는 이 직선들을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관측했다. 놀랍게도 그러한 줄의 하나는 단선이 아니라 복선이었다.
후에 그가 단선이라고 생각했던 직선 중 많은 것이 복선인 사실을 발견했다.
19세기말에 와서 다른 천문학자들도 이러한 직선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1892년에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타프에서 「퍼시발 라웰」은 이러한 직선을 관찰하고 크게 매혹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머지 생애를 화성을 그림, 그리고 촬영하고 그에 대한 저술을 하는데 바쳤다.

그는 화성 표면을 덮은 복잡한 운하망을 그렸다.
「라웰」은 화성에는 운하뿐만이 아니라 그 운하 교차점에는 그가 오아시스라고 명명한 곳들이 있다고 믿었다.
1906년에 그는 그의 "화성과 그 운하"라는 저서에서 운하와 오아시스로 되는 이 망은 고도의 지능을 갖는 생명체가 만든 굉장한 토목사업같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생명체는 계절 변화에 따라 극관에서 녹아난 물을 합류시키고 순환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개의 천문학자들은 이 직선을 운하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나 화성에서 살고 있다는 고등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국민의 상상을 자극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또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일요 부록판에는 이러한 생각을 그럴싸하게 증언한 내용이 실리었다.

매리너호의 사진에서는 「라웰」의 오아시스는 주벤태 폰스 분화구와 같은 크고 단일한 암색 바닥의 분화구인 것 같이 보인다.
이 사진에서 지구상의 천문학자들이 운하라고 본 것은 일부는 서로 반직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여러 곳의 암색바닥의 분화구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분화구들은 불규칙한 암색 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운하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주시대가 시작하기 이전에도 제시되었다.
1930년대 초에 프랑스 천문학자 「A 돌푸스」씨는 관측 상태가 퍽 좋았을 때 「라웰」이 그린 직선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주 똑똑히 보일 때 그 직선들은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줄로 바뀌었다. 그것은 「라웰」이 분명히 운하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1969년의 매리너호에서 얻은 자료는 이러한 운하가 화성표면의 각종 지형이 한데 뭉친 것일지도 모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이 우주선은 과거에 일부 자격있는 천체 관측자들이 격렬하게 논쟁해오던 문제의 일부를 해결했다.
매리너 6호와 7호가 해결한 "움폭 패인 화성"의 신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이외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에 천문학자들은 화성 극지대가 어째서 평평하게 보이는지를 알아내지 못했었다.
이 편구면(扁球面)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화성 중력장을 왜곡시킴으로써 화성의 두 개의 달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궤도 형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화성의 극 직경은 예측과 실측 사이에 20마일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한 방법은 화성이 움푹 패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었다.

이 가정은 인위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설명이기는 하나 다른 믿기 어려운 해답들에 비해 가장 좋은 해답이 된다.

그러나 매리너호의 사진들은 남극관 상에 "암색의 두건"이 덮여 있음을 밝혀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광학기계로 관측했을 때 그 직경이 작았던 것이다.

화성의 극직경을 "암색의 두건"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앞서 말한 직경상의 차이는 없어진다.

이리하여 오늘날 화성은 그 위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운데가 움푹 패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매리너 6호와 7호가 송신해 온 사진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화성상의 지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분화구 지대이다.

이것은 매리너 4호의 사진을 검토했을 때 과학계를 흥분케 했었다.

화성에는 사실인즉 월표면처럼 여러 가지 분화구로 얽은 자국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달과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달의 분화구에 비해서 화성 분화구 안벽의 높이는 그 지름으로 본다면 훨씬 낮은 것이다.

화성에는 극히 희박한 대기가 존재하며 또 이 유성, 특히 분화구 지대에서는 침식(浸飾)이 극히 적었다.

이러한 분화구들은 아마도 30 내지 40억 년 옛날인 태양계 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것은 화성의 연령계산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분화구의 발견으로 미루어 보아 화성 전역에 분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화성 남반구만이 탐사되었으며 북반구 표면에 관한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화성분화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화산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달에는 화산에 의한 분화구의 증거가 많이 있다.

두번째 형태는 "무질서한 지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분화구들이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고 그 봉우리들도 무질서하게 서있다.

궤도 선회 중인 우주비행사들에게는 지구상에 질서 없이 산재해 있는 산맥같이 보일 것이다.

기묘한 것은 이러한 봉우리의 반사계수가 인근 분화구지대보다도 크며 또 대체로 분화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이다.

무질서한 지형은 지구나 달과는 다른 화성의 특징이며 이 붉은 별에게 운치와 성격과 그 밖의 모든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 형태는 "특징 없는 지형"이라고 부르며 천문학자들의 망원경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사막지대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분화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매리너 6호와 7호가 보내온 가장 멋진 사진은 남극관을 찍은 것이다.

주도하게 마련된 이 지역 사진에는 극관의 가장자리가 거칠거칠하게 보이며 또 탄산가스의 눈 때문에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분화구가 잘 보인다.

이 눈은 극을 면(面)한 분화구 언덕 위에 영원히 녹지 않고 있는 까닭에 분화구들은 눈과의 대조로 더욱 상세하게 잘 보인다.

매리너호가 새로운 형태의 지형과 더불어 그 밖의 뜻하지 않았던 현상을 밝히는데 성공했던 점으로 보아 앞으로는 화성을 향해 발사될 우주선들이 더 많은 놀랄만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1971년 말에 발사될 2개의 화성우주선은 이러한 새 특징을 연구할 수 있게 설계되고 또 화성 주변 궤도를 적어도 90일간 선회할 것이다.

화성우주선인 바이킹호 2척이 화성을 적어도 3개월간 선회할 것 이므로 화성표면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화성상에서 일어나는 계절적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각종 계기를 통해 화성표면의 지형들이 계절과 더불어 휘색(輝色)에서부터 암색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암색화의 도수가 기록될 것이며 또 대기 내의 수증기의 양을 확실하게 측정하는 한편 화성표면의 변화에 따라 일정 지역들의 상공에서 수증기 성분의 변화를 검출해 보려고 시도될 것이다.

매리너 6호와 7호가 그려낸 화성의 모습에 의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메마르며 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너무나도 희박하게 하는 살인적 자외선으로 충만되어 있는 한 유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논박할 여지없는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 화성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어 야 한다.

매리너 계획에서 알아낸 사실은 모두 1975년 실시 예정인 바이킹 계획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 계획은 2개 무인우주선을 발사하여 화성주변의 궤도를 선회케 하고 또 화성 표면 연착(軟着) 탐색체를 내려보낼 것이다.

화성표면에 한 탐색체를 착륙시키는데 대해서 지금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에 대한 돌격은 1975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유성은 태양계 전체를 탐사하는데 있어서 관건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성비행에 사용되는 각종 우주선들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실시될 모든 유인비행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화성에는 매 26개월마다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리하여 바이킹 이후의 첫 비행은 아마도 1977년에 실시될 것이며 또 그 예비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1979년경에는 어떤 계획이 실시될 것인가? 현재 화성에 대한 자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로는 이 해의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킹호의 비행에서 얻을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는 화성에 대한 경제적이면서도 의의있고 또 확실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적 고찰은 제쳐놓고 우주선 승무원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은 NASA의 계획담당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640일 간의 최초의 유인화성 비행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과 적당한 환경이라는 면에서 화성은 우리가 상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성이 된다.

어떤 다른 유성에 대한 비행을 계획하려면 먼저 우주비행사들이 비행 중에 냉혹하고 위험하고 또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것 이다.

일단 이러한 요소들이 알려지고 나면 화성보다 더 먼 유성들로 가는 비행도 앞으로 구상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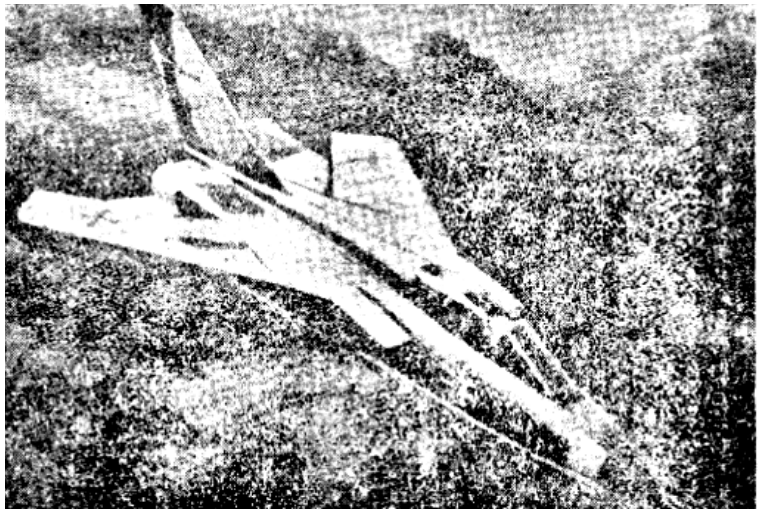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1981년과 1983년 사이에 희망되고 있는 화성 유인비행의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의회가 그 첫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25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그뉴」 부통령은 화성유인비행의 목표 일자를 1986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화성에 대한 유인비행이 실시된다면 그것은 1986년에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화성에 발을 디디려는 수백 년 된 인간의 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향하여 급속히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핵 에네르기에 입각한 추진방식이 개발됨으로써 인간은 태양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신형기 소개 =

바나비아 200

처음으로 주력전술기 공동 개발

NATO 참가국이 공통의 전술기를 필요로 하게 시작한 구라파 다목적 전술기 MRCA(Multi Role Combat Air-craft) 계획은 통일기종으로 복좌형 「바나비아 200」으로 결정, 영 · 독 · 이 (英獨伊) 3국의 공동개발은 괴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연습기, 공격기 등 한정기종(限定機種)으로 2개국이 공동개발한 예로 영 · 불의 「쟈가」 독 · 불의 「알훠 제트」와 「트란잘」 수송기이며, 군용기의 중점이 되는 제공, 공격용 주력전술기가 2개국 이상이 공동 개발되는 것은 처음이다.

1975년 배비를 목표로 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바나비아 200」의 개발과, 각국의 운용은 이 후 군용기 개발의 지표가 되어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VTOL 전투기 「헤리아」와 더 불어, 장래의 군용

기의 세계에서 화제가 될 만한 기종이 될 것이다.

기종통일에의 발돋움

주력 전술기를 공유하는 생각은 1960년대 초부터 NATO 가맹국 중에 있었다.

단일 기종을 대량생산하면 각국의 개발, 조달경비는 경감되며, 원래 NATO라고 하는 조직이 동구 공산주의 측에 대한 서방측 합동체로 조직된 이상, 작전, 항공기의 운용도 클럽 단위가 전제로 되며 공동기종을 합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F-104G를 50년대 말부터 60년도 초에 걸쳐 각국이 같게 갖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그 당시 이미 차기 주력전기관은 구라파에서 공동개발하고 싶다는 희망에서 각국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운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영 · 불이 협동개발하려고 했던 AFVG(Angle-Franco Variable Geometry)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의 F-111 가변익기가 판을 칠 때 구라파에서도, 다음은 가변익기의 시대 - 라고 하는 설계 경향이 있어, AFVG는 두드러졌었다.

AFVG계획은 영국이 제안하여, 불란서에 공동개발안을 움트게 하였다.

불란서도 다분히 흥미를 가졌었으나 도중에서 갑자기 밀라쥬G 가변익의 개발계획이 두드러져, 독자로 밀라쥬G에 착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AFVG계획은 영국의 희망에 반하여 공중분해하고 말았다.

불란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은 영국을 싫어하는 고 드골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었던 것과, EEC의 이해관계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진다.

1968년, 영국은 또다시 새로운 가변익 전투기 공동개발안을 서독을 비롯하여 NATO 각국에 제시하였다.

이것이 제공(制空), 전선지원(前線支援), 저지공격(沮止攻擊), 전술정찰 등의 각 임무를 단일 공동기종으로 행하는 다용도 전술기 MRCA-75(75년 실용화의 뜻) 계획이다.

AFVG의 상세한 것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MRCA는 AFVG를 어느 정도 깔고 뭉긴 것으로 생각된다.

당초의 계획은 극히 웅대한 것으로 불란서, 캐나다, 미국을 합한 전 NATO 제국이 단일 기 종을 공동개발, 생산운용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도 있어, 탈락이 계속되어 1968년 7월, 각서에 조인한 것은 영, 서독, 이태리, 화란의 4개국이었다.

이 4개국의 공동발주를 전제로 1969년 초 MBB, BAC, 휘아트, 훠카 - VFW의 4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뮨헨에 국제회사 「바나비아」를 설립하였다.

MFCA는 당초 각국 합계 약 1,300기의 양산이 예상되었으나, 영국의 주장하는 복좌요격형과 서독이 주장하는 단좌공격형이 정면으로 대립, 일단은 타협안으로서 단좌형 「바나비아-100」과 복좌형 「바나비아-200」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기종으로 하였을 경우 개발코스트가 높을 것이 명백하여 결국 서독이 양보하여, 복좌형의 바나비아 200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의하여 영 · 독 양국은 1970년 7월 22일, 원형기 개발의 각서를 교환하여 3년 반의 개발한정 단계로 들어갔다.

2개월이 뒤진 후 이태리도 참가가 결정되었으나 화란은 최후까지 절충에 응하지 않았다.

이상이 바비아나 200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영국이 그 얼마나 열심히 주력전술기의 공동개발을 진행시키려고 했던가를 알 수 있다.

영국은 MRCA 외에도 불란서와 고등 연습기 「쟈가」, 헬리콥터 WG 13링크스, SA 341카젤 등 군용기 부문에서 공동개발을 꾀하고 있으나, 개발경비 절약 외에 EEC 등 고립하기 쉬운 영국과 구라파 대륙과를 연결하여, 이에 의하여 돈독히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MRCA「바나비아-200」의 개발계획은 노선을 밟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요구를 단일 기종으로 합치시키는 금후의 작업이나, 코스트 문제는 두통거리로 남아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내용, 조직,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1974년 말, 또는 1975년 초까지로 예정하고 있는 개발, 원형기 시리즈에서는 영국 3기, 서독 3기, 이태리 1기, 계 7기의 원형기가 시작(試作)되어 초비행은 1973년 5월의 예정. 이 기간의 개발비는 기체관계가 5억 4천 6백만 불, 엔진관계는 4억 1천만 불(1970년 5월의 시산(試算)이 될 예정이나 이미 코스트가 더 올라갈 것이 보고돼 있으며, 개발비가 예정을 상회할 것은 확실하다.)

합계 9억 5천 6백만 불에 달하는 개발비의 각국 분담비는 영국 · 서독이 각내 42.5%, 이태 리가 15%이며, 영 · 서독은 기체관계만으로도 각 2억 3천 3백만 불의 부담이 된다.

생산기수는 개발안이 제시된 당시의

천 3백기에서 1,185기로 되었으며, 서독이 당초에 예정한 600기에서 현재는 420기로 구입예정기를 줄임으로써 영국의 385기, 이태리의 100기와 합하여 계 905기가 되었다.

서독이 기수를 반감한 것은 단좌공격형이 복좌요격기로 통일되어, 단가가 애당초의 예정보다 대폭 상승되어, 서독의 전술기 편성방침이 차질이 생긴 때문이라고 한다.

서독의 구입기수 삭감에 의하여 바나비아 200의 단가는 현시점에서 1기당 약 144억 5천만 원 정도로 뛰어 올라감에, 서독은 별종의 전투기로서 지난 3월말, 맥더낼 더그라스 F-4E(F) 팬텀 II 약 200 기의 구입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바나비아 200을 호위할 뿐 아니라, 바나비아 200의 대지공격 능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F-104가나 F-86와 비슷하다.

에스코트기는 록키드 CL-1200란사, 팬텀 II , 밀라쥬, 사브 · 비켄, LTV · V-14000, 노스롭 P-530 등이 후보에 올라갔으나, 먼저 RF-4E가 정찰기로서 서독 공군에 채용된 실적, 월남전에서의 실전 능력 등이 평가된 팬텀 II 가 채용되었다.

개발 · 생산의 분담과 협력

「바나비아 200」의 외견상의 특징은 극히 심플하며, 콤팩트한 디자인. 정면에서 보면 단형으로 보이며 쟈가형, 거기에 가변익기 특유의 약간 커다란 수직미익이다.

디자인이 종합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형으로 보이나 총 중량은 162톤과 F-4E팬텀(170톤)과 거의 비슷하다.

구라파기로서는 보기 드문 형의 비행기이다.

공기취입구는, 노스아메리칸 A-5, 미그 23과 같은 형이며, 보기 드문 가변램프를 달고 있다.

기체의 제작분담은, BAC가 후부동체, 미익, MBB와 훠카 VFW에서 동체중앙부와 주익변동조인트, 휘아트에서는 나머지 주익부분이며, 서독이 F-4팬텀의 라이센스 생산에서 획득한 티타늄기술이 여러 곳에서 채용되고 있다.

엔진은, MRCA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RB 199-33, TF 30-12, TF30-A32, JTF-22-A24, JTF 16-E20, GE 1/10이 서로 격렬한 매각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MRCA 제안국의 영국이 강력하게 리드하고 있으며, RB.199로 낙착됐다. RB.199는 록키드 L-1011용 RB.211이며 군용기에 사용되는 것은 처음으로 새로운 타브휀 형식이며, 사용범위가 넓은 애프더마나, HS 헤리아용 베카사스 · 엔진의 경험이 살린 경량화 휀 등이

도입되어 새 엔진은 「RB. 199-34A」라고해서 새로 개발된다.

엔진개발 생산을 위해 1969년 기체제작의 바나비아사와 똑같은 국제회사 타보 · 유니온사가, 영국의 로루스 · 로이스, 서독 모토로렌 · 운트 · 토루비넨 · 우니온 GmbH(MTU), 이태리의 휘 아트의 힘으로 부리스톨에 설립되었다.

로루스 · 로이스사의 불항(不況)에서 영국정부는 이미 「RB · 199-34A의 계속 개발, 생산을 보장한다」고 성명하고, 관계자를 놀라게 하였으나, RB. 199-34A는 3,000대의 생산이 예정되고 있으며, 개발비는 4억 1천만 불, 총매상은 10억 9천만 불 내지 16억 4천만 불이라고 한다.

제 요구를 해결한 가변익

전술기의 경우, 설계자는 쇄도하는 여러 요구를 여하히 최소의 스페이스로 하였느냐를 고심한다.

이 비행기는 어느 만큼 치밀하게 조합하였느냐 로서 걸작기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이다.

F-104가, 저속성능을 희생으로 하여 상승력, 고공성능으로 발조의 위력을 발휘한 것과 같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 기종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평가하게 되는 키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서독은 대지공격형, 영국은 요격
형과 아주 상반되는 요구를 하여 이 때문에 감각의 목적에 맞는 두 기종으로 할 예정이었던 것이, 일기종으로 통일되었으므로 양자를 만족시킬 만큼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고도의 STOL성, 광범한 속도역(速度域), 저속착륙성, 저공공격능력, 대돌풍능력, 초선회성(超旋回性), 장거리항속성, 강력한 통상병기에 의한 방어무장능력 등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요구도 있다.

마치 사람으로 가정해서 말할 것 같으면 외양도 멋있고, 두뇌도 좋고, 그리고 교육도 좋아야 하며, 스포츠도 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변익기(可變翼機)었다고 한다.

최초에 영국이 MRCA안을 제시하던 때의 원안은 가변익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체 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설계자들은 가변익기로 귀일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요구가 각국에서 나온 것은, 3국이 MRCA에 바라는 것이 틀린 때문이다.

서독은 주로 전술목표에 대한 대지작전(단좌형 : 單座型)과 복좌기에 의한 제공, 그리고 해군용으로서 해안선에서의 제공, 대함공격과 정찰형, 이태리는 제공미션에만 사용, 즉 각기 다른 별개의 생각을 갖고 있다.

가변익기를 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전술기가 책용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이 외에도 RB. 199-34A 엔진은 공전성(空戰性), 고속, STOL성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출력의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슬라스트, 리바사, 고양력 후랍부, 특수 설계의 주각(主脚)은 간이 포장 활주로 착륙, 단거리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비행기란 것은 설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실제 비행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성능을 알 수 없지만 제원상(諸元上)에 있어서는 현재 별표과 같은 제원이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좌석형(座席型)을 통일 채용한 이 효과는 무엇보다도 다종, 복잡한 전자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전자장치는, 각국의 장비는 통일돼 있지는 않다.

「바나비아 200」의 사용목적에 따라, 답재하는 장치도 달라지는 때문이긴 하나, 어느 것이나 후석에 전자장치 요원이 있는 것은 장치를 보다 유효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주야간, 전천후 성능을 갖게 되며 적지에 진공하여 전천 후 대지공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조종사가 조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결정한 전자장치는 영 · 독 양국기가 지형추종(地形追從), 그라운드 · 맛핑 양용에 동축(同軸) 안테나의 전망용 레이다(지형추종중은 60 내지 300m까지 강하 가능)과 관성항법(慣性航法) · 공격장치를 답재, 영국기는 관성항법장치의 보조로서 돕부라 · 레이다도 장비할 예정.

영 · 독형(英獨型) 또한 레사측정기 및 저공 저광도용 TV 장치가 부착된다.

이탈리아형 에만 장비되는 것은, 목표 탐사, 추미 레이다이지만, 이것도 예정에는 올려 있으나 정식채용은 다소 지연될 것 같다.

3개국형에 공통으로 장비하는 전자관계장치는 항법, 화기관제용 중앙 테지탈 · 콤퓨터, 에이어 · 테타 · 테지탈 · 콤퓨터이며, 이들의 표시계기는 전후석의 양방에 장착된다.

전술항법장치(TACAN)를 포함한 전 항법, 통신장치, 전천후 착륙장치, 레이다고도계, UHF, VHF트란시버, 적, 아방식별장치 등은 모두 3국 공통이며, 개발, 경비작전상의 리스크를 누르고 있다.

이들의 전자장지 제작을 위하여, 기체의 바나비아사, 엔진의 터보 · 유니온과 같이, 국제 사회 애비오닉스 · 시스템 · 엔지니어링 GmbH이 ESAMS(英), EGS(서독), SIA(이)의 참가로서 뮨헨에 설립되고 있다.

MFCA개발 생산을 위한 상기 국제 3회사와, 별표 3과 같이 매니지멘트조직 NAMMA에 직결하여 전체의 기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무장의 개략과 배비계획

가장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MRCA의 무장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개략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한다.

3국이 예상과 같이 속사기관포(速射機關砲)는 표준장비(標準裝備). 영국의 저지. 공격형은 주요 무장으로서 통상 또는 핵탄두장비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며, 서독의 전선저지형기는 통상폭탄을 장착하나 이것들은 지역복멸형의 신폭탄으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것 같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것은, 투하 후 광범위하게 흐트러지는 고성능 대전차, 대인지뢰라고 한다.

또한 서독해군용 바나비아 200은 콜모란 공대함 미사일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바나비아 200의 인도는 영 · 독 양국의 논쟁 등으로 약간 늦어져 당초 예정의 1975년이 1977년 가을이 될 것 같으며, 인도(引渡)는 서독공군이 우선될 것이 각국에서 합의되고 있으며, 적어도 최초의 생산형 1스코드론(비행대)은 서독공군에 배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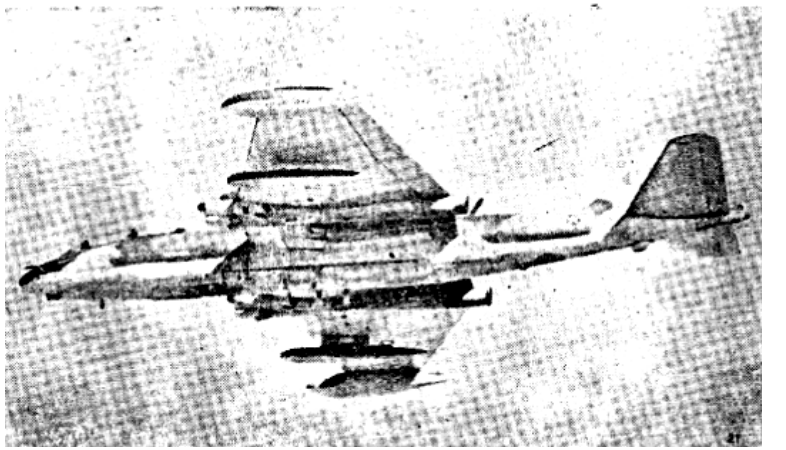
영 · 이 양국의 배비계획은 미정이나 서독의 경우는 1981년 내지 82년 겨울까지 12비행대의 배비를 완료할 계획.

바나비아 200의 스케줄 지연을 눈치 채고 있는 서독공군은, F-104G의 현역 연한을 1977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엔진의 일부를 바꾸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F-4(F)의 구입이 결정됨으로써 이 계획은 허사가 될 것 같다.

「바나비아 200」의 생산계획은 당초 연간 2비행대로서 생산종료까지 6~7년을 요하나, 그 전생산비는 41억 불 내지 54억 6천만 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1. 요구성능

엔 진 : 추력 3,830Kg(애프터버나 사용으로 6,300Kg 이상) RB. 199-34A X 2기
총 중 량 : 16,200Kg
이륙중량 : 15,500Kg ~ 18,000Kg
최대속도 : 고도 11,000m에서 마하 1.8, 해면 고도에서 마하 0.9
최소 비행속도 : 중량 13,500Kg에서 100Kt
이륙활주거리 : 390m
무 장 : 고속중기관포, AAM 2발, 폭탄 등 답재 가능.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역사

강 위 훈 <공학박사>

1. 서 언
2. 초기 비행습득단계
3. 항공기 제작기술의 발달단계
    1. 성능개선
    2. 항공공학의 독립
    3. 기반잡힌 항공기 제작회사
4. 항공 산업의 쇄도
    1. 2차대전과 항공기
    2.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항공 산업
    3. 2차대전 후의 항공 산업
5. 미사일 개발과 우주탐색
6. 미래의 항공우주산업
7. 결 어

1. 서 언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꿈이었던 대기권 비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음의 기적적인 연구개발의 결과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비행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가벼운 엔진 제작이요, 다른 하나는 유체 역학적 관점에서 본 유선형 동체의 제작 으로 저항을 감소시켜 비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 전만해도 육상이나 해상교통뿐이었고 현재와 같은 대량 장거리 항공교통은 극소수의 사람들의 꿈 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일 년에 항공으로 운반되는 화물만도 30만 톤이나 되며 1980년대에는 100만 톤의 화물을 일 년에 항공으로 운반되어야 한다고 예기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으로 국방 및 과학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SST사업의 계속여부로 논란이 있을 때도 종사인원의 실업문제와 관련시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 비중이 막중하여 1968년 일 년 동안 항공우주 산업에 투자한 액수만도 300억불이나 된다.

1920년대에 태동하기 시작한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오늘날까지 증가일로에 있었으며 소련, 영국 및 불란서 등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는 독주의 상태였다. 사실상 공산권 이외의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민간항공이 미국 비행기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산업의 발전은 어떠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어 왔는지 몇 단계로 나누어 간추려 보기로 하겠다.

2. 초기 비행습득단계

이십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이 새와 같이 공중을 날으려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성공은 못했지만 1900년에 North Carolina의 Kitty Hawk에서 글라이더 비행을 시도했으며 2~3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1903년 12월 17일에 Wright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에 성공하였다. 1908년 9월 9일에 Orville Wright가 한 시간 이상의 체공기록을 남겼으며 그해 12월에는 Wilbur Wright가 두 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1909년 8월에 국제비행전시회가 불란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바쁜 일정 관계로 Wright형제가 불참할 의사를 보여 왔으므로 속도상 상금기금자인 JAMES Gorden Bennett가 직접적으로 미국의 참석을 요구하여 47mph란 속도기록으로 미국대표 Curtiss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비행기 술의 습득단계에서 항공우편이란 개념이 생겼다. 따라서 항공기술이 인류복지에 기여한 최초의 분야는 우편물의 조속한

배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까지 육상과 해상만을 이용하는 우편국에서 항공을 통한 우편물 배달을 시도했으며 규모는 작으나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미대륙을 횡단하면서 항공우편물을 배달하였다. 초기 항공기의 평화적인 사용의 시기는 길지 못하였다. 즉 항공우편물 외 에 항공기 능력을 더 과시할 시기가 닥쳐왔으니 그것이 바로 1차대전인 것이다. 아직도 항공기의 활용성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나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될 잠재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임무는 극히 제한된 전술적인 정찰 등이었지만 불란 서, 독일 및 영국이 비행기를 잘 활용한 나라의 예들이다. 당시 공중전의 목적은 군사행동을 탐지하는 정찰비행을 막는데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비행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으며 당시 이름 있는 조종사로서 영국의 Micky Mannock소령이나 미국의 Eddie Rickenbacker같은 사 람들을 들 수 있다.

3. 항공기 제작기술의 발 달 단계

1908년 Wilbur Wright가 불란서의 Le Mans에서 동력비행을 시범한 내용이 Hendrick de Leeuw 저 하늘의 정복(Conquest of Air)에 실려 있을 만큼 기적적인 사실이었으며 1차대전을 계기로 항공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므로 그 성능의 개발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다.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목적에 항공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항공기가 가진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2차대전 전까지 진행이 됐으니 적게 그 과정을 나누어 보면

1. 항공기 성능의 개선, 2. 이에 따른 항공 산업의 분업화, 3. 항공기 제작회사의 출현으로 약술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와 같은 단계들은 병행해서 진행되었으며 단계마다 명확한 구분을 그을 수는 없다.

(1) 성능개선

항공기의 성능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다루는 문제들이다. 즉 실속, 수평비행에서의 최고속도, 최선상승속도, 상승률, 상승시간, 상승각, 비행고도, 항속거리 및 항속시간과 이착륙특성을 분석하여 인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성능에 관한 문제인 바 1920년대에 이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항속거리 및 체공시간의 기록으로 이름을 떨친 Charles Lindbergh의 대서양 횡단 단독무착륙비행은 1927년의 세계적 화제가 되었었다. 그전 해인 1926년에는 Byrd제독이 북국비행을 한 사실이었으며 이 시기에 불란서에서는 항로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의 대의 시행착오적

시험단계를 거쳐 1930년대에는 모든 분야의 성능을 조직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여 새로 탄생한 항공기 제작회사들이 다른 기성 공학분야의 회사와 협조하여 항공기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Charles Lindberg나 Wiley Post가 Lockheed회사가 제작한 고성능 Mono-coque 형 단발 비행기를 시험 비행함으로써 일반 관중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 항공공학의 독립

이와 병행해서 많은 풍동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공과대학에서 항공공학에 대한 과목 강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차차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항공공학과가 된 것이다. 이를 지원키 위하여 1920년대에 Harry Guqqenheim이 여러 대학기관에 고속풍동제작에 사용도록 많은 자금을 증여하였다. 그 후 많은 공과대학에 항공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지구표면 내의 공학에서 지구를 벗어나는 공학분야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남가주 내에 항공 산업이 발판을 디디게 되었고 가까운 곳에 CALTech 이란 유명한 대학교가 있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항공분야학문의 거성인 Von Karman을 Guggenheim Aeronautical Laboratory로 초대한 사실이다. 그의 위대한 과학적 지도력이 오늘날 항공공학을 창시하게 되었다. 그는 항공공학의 시행착오적인 단계에서 이론체계화 함으로써 급격한 발전을 도모했으며 특히 유체역학 분야에 많은 새 이론을 발표하였다. 물론 공과대학의 항공과가 이 새로운 항공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틀림이 없지 만 이에 못지않게 실제 회사에 종사하는 일선기술자와 항공 산업 분야의 사업가들의 예리한 예견의 판단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이 우수한 수많은 기술자들을 공급하였음에 비하여 최초 풍동을 만든 기지는 항공기 성능개선에 없지 못할 요소인 것이다.

(3) 기반잡힌 항공기 제작회사

1920년대에 미국에 항공기 제작회사가 설립되게 된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그 당시 산업분야에 종사하든 사람들 중 공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모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곤란은 말할 수 없었으나 그 중에도 자금의 각출과 판로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가장 가까운 판로는 군사적으로 사용될 군용기와 새로 생긴 민간항공회사인데 아직 제작되지도 않는 비행기에 대한 예매계약을 해야 할 위치였었으니 이들 최초 기업가들의 정신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에 못지 않은 대우를 후대에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사정으로

봐와서 대부분의 안이한 자본가들은 이 새로 나온 산업분야에 투자할 만큼 모험성이 없었으니 오직 항공기의 잠재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한 자본가만이 이에 참여하였으니 말이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호전된 기운이 일어난 것은 1920년대 말기 증권 붐이 일어나 항공기 판매고가 늘게 되었다. 앞에서도 이야기 된 바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민간 항공을 주로 우편물을 나르는데 있었으며 차차 항공기의 안전도가 높아짐에 따라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민간항공을 유지하는데 우편물 수송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초기에 항공기 군납은 과히 좋지 못했으니 전통적으로 군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길 꺼려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육군 장성들은 폭격기로 전함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해군 제독들은 이에 반대하여 오랫동안 전폭기의 출현은 막아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발전과정이 대단히 늦어진 반면에 1930년대에 야심 많은 육군항공대 장교들이 B-17과 같은 비행기제작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이 비행기는 2차대전시 사용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민간항공은 낙담할 정도로 미진하였었다.

4. 항공 산업의 쇄도

(1) 2차 대전과 항공기

독일의 Stuka 폭격기는 과히 성능이 자은 비행기는 아니었지만 2차 대전 초기 Polland 침 략시에 근접 지원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 Heinkel 폭격기 역시 Holland와 영국에 많은 손상을 주었으나 Kadar 장치를 이용한 영국의 Spitfires Hurricanes에 의해 쫓김을 당했다. 서부전선에서는 북해, 영국해협, 대서양 및 지중해로 밀고 올라가면서 동부소련과의 접전에서는 전진속도가 느렸으니 그 이유는 히틀러가 탱크와 포병을 중심으로 진격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쟁초기에는 Hitler는 항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꼈으며 2년 후에야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공기 제작에 속도를 가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Casablanca에서 1943년 1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수상과 회담한 후 대독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폭격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공군은 독일 인구중심의 시가에 야간폭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은 군사목표물에 주간 폭격을 하게 되어 이 폭격을 위하여 폭격작전에 동원된 항공기 수만도 수천을 헤아릴 정도이며 그 파괴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이와 같은 작전이 항공기 발달과정으로 볼 때는 그 속도를 빨리 하였음에 틀림이 없으나 실제 전쟁을 단기 종식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1944년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합중국 전략폭격조사단(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Commission)을 임명하고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전략폭격의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미 전략폭격기의 대량 폭격 후에도 독일의 재빠른 보수공사에 의하여 독일이 성공적으로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으나 전술공격을 포함한 공군력의 종합적인 평가로는 제공권이 독일을 패배로 이끄는데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연합군이 불란서를 경유하여 독일로 쳐들어갈 때도 공중공격이 대단히 용이한 곳을 통과했으니 독일의 패망은 히틀러가 항공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2)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항공 산업

1930년대의 항공기 제작회사들은 주로 수송용량, 염가운용, 항속거리 및 속도의 증가와 안전도와 관련된 항공기 성능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히틀러가 중앙 유럽에서 침략행위를 감행하자 이에 놀란 영국과 불란서가 대량으로 군사항공기 제작을 의뢰하자 미국 내 항공기 제작회사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중립선언을 했으므로 영국이나 불란서의 군용항공기 주문에 대하여 현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현금의 융통과 대량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국항공기 제작회사들은 대량생산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사실상 1940년 5월까지 미국에 총동원령은 내려지고 있지 않았었다.

1940년 6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Knudsen 씨를 전쟁을 위한 항공기 관계 책임자로 임명하게 됨에 따라 Knudsen 씨는 항공기 제작 분야의 중요인물들을 모아 군용항공기 제작의 정확한 요구 점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지연되고 그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과감히 1년 내에 10만대의 항공기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였다.

그해 6월 회의에서 Knudsen장군은 인구 중심 부근에 10여 개의 새로운 공장 건설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새로 건설된 회사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비행기 제작을 서두르기 시작했으며 인구 중심지를 공장지로 채택했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었다. Knudsen 장군의 최초생각은 기존자동차공장을 항공기 생산에 이용하려 하였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써 포드 회사의 전담지역인 데트로이트 근교에 Wilson Run 항공기 제작회사를 건립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분품들을 되도록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만들려고 했었으며 심지어는 일 개월 400대 생산을 목표로 B-24폭격기의 날개 및 동체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해서 주된 부분품들을 특별히 제작된 트레일러로

공로를 통하여 다른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타그라스 소속의 들샤나콘솔리데이티르 소속의 포트워스로 이동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별로 능률적이 못 됨을 인식하고 수개월 후에 그 방향을 바꾸어 Wilson Run에서 최초부터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였다. Wilson Run 항공기 제작회사 건립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고도로 발달된 자동차 생산방법을 항공기 제작에 이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생각만은 외부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졌으나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 생산에 손을 대 본 결과 자동차 생산기술이 항공기 제 작에 이용된 정도는 불과 5%에 불과하였으니 기존 자동차 생산시설의 항공기제작에 이용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유휴노동력의 이용만은 상당한 도움이었다. 특히 데트로이트 지역은 항공기 제작 외에 지상 무기공장 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적시에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또 당시는 항공기 제작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하여금 많은 인력을 항공기 제작회사에 양보토록 종용도 했었으며 최고 가동당시는 4만 2천명이 일개월에 B-24폭격기 443대를 제작할 수 있었다. 최초 항공기 제작에는 관리 면에 조직적이 못되었으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200대째 항공기제작에는 100대째의 80%만의 노력이 소요되어 차차 그 생산공정도 개선이 되어 갔다. 이와 같은 개선이 1천대째 항공기 생산 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 6월 총동원령이 내려진 후 커다란 난관 없이 군용항공기의 대량생산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방 면에서 미국의 입장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물론 지엽적인 면에서 일부 재설계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변경 없이 군용기로 전향 제작할 수가 있었다.

동원계획과 병행해서 민간항공산업이 군수산업으로 쉽게 전향되어 계획된 기종은 B-17, B-24 및 B-29 폭격기와 P- 38, P-47 및 P-51 전투기들이었다.

수송기종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육군성의 계획은 항공수송 없이 전쟁을 수송하려 하였으므로 Douglas나 Lock-heed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B-17을 먼저 제작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최초 동원령 18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서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전투기나 폭격기 외에 Douglas로 하여금 DC-3이나 DC-4를 Long Beach 오클라호머시더(OklahomaCity) 및 시카고(Chicago)에서 제작토록 지시하였다. 항공기 발달 면에서 볼 때 2차대전은 계란의 노란자위

역할을 하였다. 직접 항공기를 사용하는 일선조종사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곧 군에서 항공기 생산공장으로 연결이 되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변경제작을 할 수 있었으니 군이 이에 기여한 바는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이 가까울 무렵에 제작된 항공기는 총동원기에 만들어진 항공기에 비해 성능면에서 월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소요경비 면에서도 최초에 비해 많은 액수를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미국 전략폭격기 조사단이 1945년 여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도 똑같은 경험을 겪어 Me-19, FW-180 및 Junker88 등 종전기에 제작된 항공기들은 번호가 얕은 초기 비행기에 비하여 단가가 훨씬 얕았던 것이었다. 항공기성능 개선면에서만 볼 때 황금기였던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차차 어려움이 닥쳐왔다.

(3) 2차 대전 후의 항공 산업

1년에 10만대를 생산하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는 월생산량으로 보아서 1943년에 달성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1944년까지 계속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랐으나 1945년에 평화가 도래함에 따라서 많은 계획을 중지했어야 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적지 않았다. 일부 계획은 종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B- 29를 개조하여 B-50을 만들었으며 B-36은 전쟁 중 사용해 보지도 못하였으나 전후에도 그 생산은 계속되었다. 해군에서도 그 율은 적었으나 정찰폭격기를 계속 생산하였다. 전후 항공 산업에 획기적인 요인을 준 것은 분사기관(Jet Engine)의 출현이다. 전쟁 기간 중 미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바 있는 Arnold 장군이 영국으로 부터 분사기관을 가져왔으며 Bell항공기 제작회사가 XP-59로 명명된 분사기간 전투기 제작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분사기관 제작에 관한 충분한 연구기틀이 잡히기 전에 2차대전은 끝을 맺게 되었다. 종전 후에는 분사기관 항공기 개발사업이 P-80으로 이름이 바꾸어져 Lockheed회사가 맡았지만 Lockheed 역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North America가 P-100이란 이름으로 성공적인 분사기관 항공기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Boeing 회사가 분사기관폭격기 개발사업을 맡게 되어 B-47 및 B-52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 두 개의 기종은 대량생산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민간항공은 1950년 말까지 왕복 등 기관 항공기를 사용했었다.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민간항공기 제작 면에 부진된 면이 있었으나 전쟁동안의 여력을 이용하여 1950년 말기부터 분사기관 여객기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다.

5. 미사일 개발과 우주탐색

전쟁이 거의 문을 닫을 단계에서 독일이 V-1 및 V-2 무인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력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의 계획은 없었다.

독일의 패망과 때를 같이하여 Peenemunde에서 V-2 Project에 종사하던 유능한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대량 이동하게 되었으니 그 집단 중에 너무나도 세계에 잘 알려진 부라운 박사(Dr. Werner Von Braun)가 끼어 있었다. 그들은 미국으로 이송된 후 각 정부기관의 연구소와 항공기 제작회사에 나누어져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진도가 대단히 늦었으며 심지어 매우 기본적인 내용의 강의를 2년간 계속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곧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각 군에서 주로 항공기 제작회사에 미사일 Project를 맡기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미사일계획이야말로 과학자들의 분발심을 일으켰으며 소련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민간이익 회사의 열성으로 미사일 개발의 급작스런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경쟁에서 아직도 뒤지고 있었으므로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경영면에서는 Chryser 자동차회사 사장인 Keller 씨에 의해 재검토되고 기술면에서는 TRW회사의 중용간부인 Ramo 박사를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여 소련을 능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사일과 항공기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으나 소련과의 미사일 경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은 항공기 제작에 관한 기술이었다. 대부분의 항공기 제작회사가 미사일 하드웨어 개발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한 기구는 방대해졌지만 근간 미사일 Project에 대한 예산의 삭감으로 기구의 축소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항공 산업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의 별다른 도전 없이 우주계획의 하드웨어부분의 개발을 전담하였다는 점에서는 우주 탐색계획과 미사일 계획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는 우주탐색 계획이 훨씬 방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미사일 계획과 우주 탐색 계획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최신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기업경영방법의 도입이다. 그 중의 하나가 System에 대한 개념이다. 항공기 제작 과정과는 달리 주 용역계약자가 부용역계약자(Sub-Contractor)와 긴밀한 연락 하에 한가지 일을 맞게 되었다. 예로 Minute Man Project의 주용역계약자는 Boeing회사였으며 Polaris-Poseidon Project의 주 용역계약자는 Lockheed 회사였다. 따라서 최신경영방법이 도입됐고 과학기술 면에서도 항공기제작과 크게 관련이 없는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6. 미래의 항공우주산업

예언자가 아닌 이상 모든 일에 미래를점치기는 극히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경과와 현재 및 미래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까운 장래의 전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용항공기 생산 분야는 과거 항공계의 생업을 거의 유지시킬 정도였고 또 항공기 제작회사들도 이를 위한 충분한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으나 근간 수년간 유인항공기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남전에서 증명이 되듯이 아직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지전을 위한 전투기, 폭격기 및 헬리콥터의 군내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미사일분야는 SALT회담의 결과와 관련이 깊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한 방향의 전환은 기대되지 않는다.

민간 항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7~10% 증가의 경향을 보여 왔으나 1968년부터 약간 부진한 경향을 보여 온 것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항공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경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General Avi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Commercial Airline을 제외한 General Aviation에 많은 변화가 1980년대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기되는 바 이 보고서에 의하면 General Aviation에 이용되는 항공기 대수는 1980년대에 현재의 2배인 26만대에 달할 것이며, 1967년 현재 25만 톤의 화물을 항공으로 수송하고 있는 반면 1980년대에는 100만 톤을 수송해야 되고 GNP에의 기여도도 1967년 현재의 약 3.5배인 25억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7. 결 어

1895년에 공기보다 무거운 물건을 공중에 띄울 수 없을까 하는 관심이 1903년에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였고 전 인류가 싫어하는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항공기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였다 . 2차 대전 후 항공기 동력장치로 새로운 분사기관이 대두 되었으며 이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 소 국방경쟁에서 복잡한 미사일이 나오고 1969년 7월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인 달에서 직접 우주 천체의 물건을 가져 올 때까지 불과 반세기 여의 기간이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은 미국의 어느 산업분야보다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동안 과학기술의 개발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항공기 개발은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전반적인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직접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국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 필

돈

이숭녕
〈문박 · 서울대학원장〉

우리는 돈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며, 살기 위해서는 삶을 유지할 생계, 즉 돈의 공급원을 마련해야 함도 사실이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그러나 요새 국민들은 돈을 어찌 버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것으로 얼마나 호사하게 살고 있느냐가 인생의 목표이며, 가치판단의 기준인 냥 자랑으로 삼고, 부러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고귀한 것이며, 어떠한 삶이 가장 값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저 돈만 알고 자나 깨나 돈을 생각하는 저속한 사고법을 우리 는 멸시하는 바이다.

성서에도 부자가 천당에 간다는 것이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한 구절도 있다. 진정한 인격자는 가난한 자요, 청백한 사상의 소유자인 것이다. 자가용차에 누워 가는 여성보다 보따리를 들고 길을 걸어가는 여성이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 때가 와야 한다.

이조 관리도(官吏道)에서 가장 칭송하던 것이 청백리(淸白吏)다. 선비가 벼슬을 하고 끝에 가서 청백리에 오르게 되면, 다시없는 영광이요 명예이었다. 조정에서 때때로 깨끗한 관리를 골라서 청백리(淸白吏)로 갔는데, 이것이 이조 5백년을 지켜온 것이고, 도의적인 기준으로 높이 평가되어 온 것이다. 가령 평안감사를 예를 들어 보자. 평양으로 접어들 때 십리 밖 영제교(永濟橋)에서 대기하던 관리 · 군졸 · 관기들이 행렬을 엮는다. 그리고 대동강을 끼고 대동문으로 들어가기 전 호화스런 행렬로 풍악을 울리곤 한다. 자! 평안감사라면 행정 · 사법 · 세무를 다 다스리고, 때로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평안도의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감투다. 또 젊으므로 민가 여자에 손을 대면 -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로 - 처벌되어야 하고 그러면 국가로서는 인물을 잃는 것이 되기로 수

십 명의 관리를 두어, 일종의 감사의 유곽과 같이 젊음의 발산의 기회까지 마련해 준다. 오직 서울의 내직(內職)으로 돌아온 때, 그 기생과 아무리 사랑이 두터웠더라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어기면 파직(罷職)이 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리생활이란 오늘날 상상도 못할 호화한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감사가 내직(內職)으로 바뀌어 돌아온 뒤, 또는 돌아오는 길에서 고향을 들른다고 하자. 도포에 짚는 지팡이 하나로, 뒤에는 종이 따를 뿐이다. 돈 한 잎 물건 한 개 가지고 오지 않는다. 촌으로 접어들면 어린 아들이 보고 집에 뛰어 들어가서「아버지가 오신다」고 어머니에게 알린다. 사랑에 점잖게 앉아 식구들의 절을 받고 앉았으랴면, 안에서 부인이 항아리에서 쌀을 닥닥 긁어내는 바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점심을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큰 기침을 하고 귀로(歸路)에 지은 시나 한 수 읊는다는 이 태도가 이조의 청백리의 몸과 마음가짐이다. 어디에 부정과 부패가 털끝만큼 서리고 있으랴. 이 정신은 지금에도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조 말기의 평안 감사 중에는 단시일에 거부가 된 자도 있기는 하지만, 철인적(哲人的)인 이 태도가 오늘에도 아쉽다.

돈이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번 것이라야 오래 지탱이 되고, 그 값을 알 것이다. 벼락부자가 어느 줄을 타고 부정으로 번 돈이란 불행을 초래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며, 그렇게 번 돈 아래에서는 자식들이 타락하기 쉬운 것이다. 가정에도 전래(傳來)된 정신이 있고 가풍이 있어야 돈도 오래 지켜진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린 돈만이 값있는 돈이다. 요사이 고속도로 바람에 졸부가 된 농부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브로커에 물려 분에 넘는 사업에 걸려들고, 또 그 뒤에 술 계집이 빈대 떼같이 달라붙고 해서 삽시간에 탕진해 버리는 예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돈도 잃고, 사람도 버리고, 집도 망치는 결과가 된다. 서울에는 벼락부자가 되어 거대한 저택을 짓고 그 위풍을 과시하는 계층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할 것까지도 없다.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면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물으면 곤이식지(困而食之)한다고 대답한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에 알맞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벤즈」 자가용에 거대한 저택이란 그리 마음 편한 것이 아니려니 한다. 돈도 필요하지마는 돈의 노예가 되는 신세같이 불쌍한 것은 다시없다고 하겠다.

히피군인

봉두관
〈동양방송 논평위원〉

우연한 기회에 박 대통령과 저녁을 같이하게 되었다. 대통령이라기보다 군복을 벗은 장성의 얼굴을 그대로 지닌 분이어서 그런지 오가는 대화 속에도 군인 냄새가 물씬 풍겼다. 다짜고짜로 박 대통령은 나에게 언론의 중요성과 특히 텔레비전 매개체의 영향력을 역설하면서 며칠 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 한 토막을 말하는 것이었다. 젊은 병사가 휴전선 근방에서 용맹을 떨치는 얘기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몹시 불쾌했었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식탁에 놓인 술잔을 들고 화난 사람처럼 한 잔 꿀꺽 마시는 것이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어색한 손을 술잔에다 갖다 댔다. 텔레비전에 나온 군인이 장발족인 것을 그는 분개하고 있었다.「저렇게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군인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군모는 쓰고 군복을 입고 총을 멘 군인이 히피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을 진짜 군인들이 볼 때 무어라고 할 것인가 반문하면서 대통령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정녕 진짜 군인들은 어떻게들 생 각할까?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내려뜨린 틴에이저들.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도심지를 맨발로 거니는 부랑아들. 길가에 아무렇게나 뒹굴며 세상의 질서와 무언의 대결이라도 벌이려는 듯, 사람을 아래위로 훑어보는 얌체 족속들. 뉴욕의 거리는 이들의 장악 하에 있다. 바로 이런 현기증이 지금 서울의 한 구석까지 찾아든 것이다. 그것을 기성세대는 우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요새 젊은이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장발 유행을 증오하는 인상이 뚜렷했다. 무엇 때문에 머리를 저렇게 기르는가?「내일부터 당장에 명동거리에 경찰이라도 동원해서 강제 삭발토록 해야겠다」고 대통령은 반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육영수여사가 정면으로 항변 하고 나섰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민주사회에서 남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버리면 독재한다는 소리를 듣게요?」 육여사의 말이 옳았다. 「그러시질 말고요. 앞으로 며칠부터는 장발족 삭발을 실시 할테니 그런 줄 알라는 식으로 미리 특별 성명이라도 내세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머리를 깎고 나올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결심은 굳어 있었다. 「아니야, 이제는 우리나라에선 무슨 시합이라도 하는 외국 선수들도 머리를 기르고 올 생각이면 아예 나타나지도 말라고 해야겠어. 김포 공항까지 왔다가 머리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너무하니까 미리 초청장을 낼 때 머리가 길면 입국 거절한다는 것을 명시토록 해야겠어.」

그는 방송 매개체에 대해서도 한마디 잊지 않았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머리를 히피처럼 기른 채, 전투복 차림의 병사가 장발족으로 둔갑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이었다. 그 꼴을 현역군인들이 본다면 정녕 무어라고 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그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것은 사회적 타락상과 무질서한 윤리관을 한 마디로 꼬집어 주는 응변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처럼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부조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매몰되어 가는 인간가치평가를 새로이 촉구하는 퇴폐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한 토막의 장면일 뿐 아무 것도 아니라도 부정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작은 일부터 착실히 뜯어 고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바쁘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역사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존립의 이데올로기를 투철하게 다시 확립해야 할 때는 온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래 우리 사회 안에 누적된 온갖 부조리 현상이 너무나 극심하여 자칫하다간 자유사회의 기본질서마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스스로 삼가 해야 하는 것이다. 히피처럼 머리를 기른 군인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불신감과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날 만도 한 일이다.

「코티분」 대신에 명란젓?

정 영 희

초여름치고는 유난히 햇살이 따갑게 기억 되는 3년 전의 5월 어느 날.

볼수록 멋있게 느껴지는 은회색 정복을 입고 친절한 낯빛으로 대해주던 장교 분들의 뒤를 따라 잘 가꾸어진 동산 같은 숲속 잔디로 안내 된지 1 시간이 지나서였을까? 훌쩍 열차를 타고 떠나며 애써 웃어보이던 자기의 얼굴이 검을 대로 검게 타서 희고 잘생긴 얼굴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눈에 잠시 당황을 안겨주면서 약간은 글썽 해진 눈으로 미소 머금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은.

그건 우리의 쉽게 말해서 연애시절에 일어난 일이었다. 자기가 내 손에 한 돈짜리 구릿빛 나는 금반지를 끼워주며 심각한 얼굴지어 「다녀오마.」하는 말을 하는 시간까지도 나는 으레 신문기자 생활을 계속할 줄만 알았던 자기가 공군장교 시험을 쳤고 내일이면 훈련을 받으러 열차를 타고 떠나야 한다는,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 우둔한 가시나이었다. 하지만 애써 명랑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자기는 군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의 여운을 마무리할 사이도 없이 남행 열차를 타고 훌쩍 떠나가 버렸다. 그러고 나서 2개월이 지나 낯선 대전에 내려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고 XXXX단인가 하는 훈련장이 있는 부대로 자기를 찾아가서 그 검게 탄 얼굴을 대하면서부터 자기와 나와 공군의 술래잡기 같은 삼각관계는 비롯되었다. 은회색 제복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자기의 달라진 얼굴을 익히며 스스로 국제적 신사로 자처 하는 자기의 자부심에 묻혀 그의 팔을 끼고 고궁의 뒤뜰을 곧잘 걷기 1년 후 자기와 나는 적어도 200개는 넘을 다이아몬드가 번쩍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친정집 안방에서 있은 짓궂은 막내 이모와의 대화로부터 나의 공군 일화는 전개되기 시작한다. 「늬 신랑 좋더라. 군인이라며?」

「아냐, 공군인데 - 장교야」

「그래 비행기 타니?」

「타구말구 공군인데」

「무슨 비행기? 제트기? 아니면 그 새로 왔다는 팬텀기?」

「응 그… 저… 왜 있잖아. 뭐라더라…」 생각이 얼른 나지 않는다. <글쎄 한두 번 비행길 탄 적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게 제트기였던가? 아냐, 제트기는 아닐 걸? 에라 모르겠다. 제트기면 어떨라고. 다 같은 비행기겠지!>

「응, 제트기, 제트기야!」「좋겠구나. 얘! 그래 너두 태워주던?」「아아니 하지만 곧 태워주겠지 뭐」

이쯤 됐으면 끝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짓궂은 나의 이모는 그이가 파일럿인 줄을 알고 돌아갔을 게고 나는 약간은 미안하지만 그런 척 얼버무릴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 자기가 들어섰다. 이모가 대견스러워(?)하는 말이 「그래 조서방, 제트기 탄다며?」 눈이 둥그레진 자기,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찡긋하는 나. 영문도 모르는 자기는 「제트기라니? 아닙니다. 그건 조종사나 타는 게지, 우리는 안탑니다!」

「그럼 무슨 비행기를 타나?」

「허기사, 수송기는 「한두 번」탔지만도…」 어물어물하는 말을 받아 얼른 화제를 바꿔 버리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모 앞에 내 자존심이 상한 게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자기한테 따져들었으나 귀에 설은 단어들 앞에 완전히 판정패를 당해 버렸을 뿐이다.

헌데 공군 덕분에 톡톡히 내 잡비를 털려버린 제 2의 화제는 아직 자기도 모르는 얘길 게다. 결혼한 지 1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방송국에 출근해 있으면 내겐 하루에도 여러 번 공군 장병에게서부터 꼭꼭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그 대부분이 자기네 사무실의 선임하사라는 분을 비롯하여 그이가 근무하는 XX창의 장병들. 전화의 내용들은 노래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누구의 「물레방아 인생」을 몇 시 방송에 보내주겠느냐? 아니 「최진사 댁 세째딸J이 재미있으니 그걸 한 번 보내주는게 좋겠다. 보내는 사람은 무슨무슨 중사 또는 병장이며 보낼 곳은 공군 전장병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누구 씨(?)와 같이 듣고 싶다 등등해서 MBC의 전파에는 한동안 하루도 쉴 새 없이 공군장병의 희망 음악이 흘러 나갔고 방송국에서는 「공군통」이라는 별명과 더불어 어떨 때는 「오늘도 삼천 만의 불침번들께 한 곡조 꽝!」하는 농담을 짓궂은 PD들로부터 듣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혀 색다른 청탁이 걸려 왔다. 「우리 부대에서 사병을 모집하는데 그 공고를 꼭 방송으로 해 달라는 것」 선뜻 그러마고 약속을 하고 P.D에

게 달려가 부탁했더니 선선히 응해 주길래 「공군에서는 ○○병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전화 ○○○○으로 연락 바랍니다」고 내가 그 시간을 담당할 때마다 방송을 했겠다. 방송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덟 번짼가 똑같은 내용을 전파에 실어 보내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내게 담당 P.D가 「1회 당 1,000원씩의 방송요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회식을 시켜주든지 하라」는 실로 난데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꼭 내야 해요?」 난처한 표정인 내게 시침을 뚝 떼면서, 「그럼 공짠줄 아셨어요」하는 P.D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제작부원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갑에 든 돈을 몽땅 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딴 날과 달리 싱글벙글 하면서 방으로 들어서는 자기의 얘긴 즉, 방송을 해줘서 고맙다고, 부대장께서 독일 빵이나 사다주라며 돈 2,000원을 주시길래 완강히 사양하고 왔다는 자기 딴은 의기양양한 사연. 시덥잖은 마누라지만 써먹을 때가 있더라는 투의 자기 앞에 내가 당한 억울함(?)을 분풀이할까 싶다가도 자기의 그 좋아하는 분위기를 깨뜨릴 까봐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 얘기를 이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씁스레히 웃을 자기의 표정이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이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손해만 본 건 아니다. 자기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 대위라는 자기의 친구 분이 있다. 이 이 대위님은 익살과 유머가 대단한 분으로 공군 XX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와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나와도 자연히 자주 만나게 되어 친해 졌었다. 한 번은 미국에 도미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더니 전화로 나를 불러내어 기막히게 좋은 「코티」분을 하나 선물하려고 사왔으니 기대하라고 자랑이 굉장했다. 「이 짓궂은 양반이 정말 사온 겔까?」 하면서도 선물이 어떤 것인지 속아서 싸구려를 사온 건 아닌지 무척 궁금했는데 그런 후로는 만날 때마다 깜빡 잊고 갖고 나오질 않았다는 대답만 연속 하다말고 어느 해변가에 있는 부대로 전속 가버려 「코티」분 얘기가 공중에 떠 버렸구나 했는데 하루는 난데없는 「명란젓」이 한 통 집에 와 있고 그 포장지에 쓴 글 인즉, 「이 대위로부터」, 명란젓보다는 차라리 그 구수한 인정 때문에 감탄을 해버린 적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결혼을 했고 내게 주겠다던 「코티」분은 아마 절반쯤은 그의 아내가 써 버렸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길 해야겠다. 결혼 한지 두 달짼가 자기의 봉급봉투가 유난히 두둑해 보인 적이 있었다.

<군인에겐 보너스도 없다는데 오늘은 웬 일인가> 싶어서 「어째 이번 달은 많은 것 같다」 J고 혼자말을 하는데 빙긋 웃더니,

「그럼! 많지! 많아졌어!」「왜요?」「응 가족수당 받았거던!」「가족 수당이라뇨?」「결혼을 하여 마누라를 거느리게 된 유능한 장교에게 마누라 몫을 따로 주는 것, 그런게 있어」「내몫? 얼만데요?」「가만 있자, 그게 얼마더라」<생각하는 척 하더니>「그렇지 450원일 거야」「에게게? 그게 다야?」 놀라 하는 내게 「남자는 20,000원어치를 먹고 입고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여러 가지로 부족운운한 고로 450원어치만 먹으면 되는 것이며 운운」의 길다란 설명.

그래도 아내의 지위가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뿌듯한 감회 같은 게 서렸다면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 450원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 하루 열 시간을 방송에 시달려야 하는 나의 일과를 잊고 자기의 출근에 늦지 않게 식사를 챙기고 명랑한 웃음으로 집을 나서는 자기 의 걸음이 더욱 씩씩하게만 보여 골목길을 돌아 나갈 때까지 웃는 낯으로 지켜보고 서 있는지도 모른다. 국방을 지키는 자기 에게 보람과 기쁨이 오늘도 그득해질 것을 빌면서 말이다.

<조재충부인 MBC 아나운서>

수치감

홍 종 도

나는 지 난 주말에 다정한 사람들과 시내 극장엘 갔다.

「펫튼 대 전차 군단」은 수원에서도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줄을 서야만 표를 살 수 있었다.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원의 극장은 군인에게 특별히 할인제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날의 말썽이었다.

나의 바로 앞에서 줄을 섰던 스포츠형의 거무틱틱한 젊은이 둘이서 매표구에 다달았을 때 그들은 자기의 신분이 갑자기 군인으로 둔갑하여 할인 요금으로 표를 사려고 했다.

매표원은 군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군인에게는 할인할 수가 없다고 표를 주지

않자 청년들은 큰소리로 떠들며 사병 신분증을 꺼내 들고는 도리어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바로 뒤에 서 있던 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주위의 쭉 늘어선 일반 시민들의 눈길이 두 청년에게보다도 장교 복장을 단정히 입고 있는 나를 더 주시하고, 나로 하여금 문제를 수습토록 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두 청년의 어깨를 치면서, 이봐,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복을 입고 떳떳이 다니든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복을 했으면 사복을 한대로 잠시나마 자유인으로 돌아갈 것이지 왜들 이렇게 망신을 떨고 있어?」하며 조용히 타이르자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의기양양하여 「당신이 장교면 장교지, 사복한 타군을 건드릴 권한이 있소?」하며 대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움찔하며 당황하기도 하고 기가 찼다.

그러나 침착을 잃지 않고 「사복한 군인도 군인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느냐」고 다소의 언성을 높이고, 아예 구경할 생각은 걷어치운 뒤 그 두 사복 사병을 불러내어 주의를 주었으나 막무가내였다.

술기운이 제법 돌고 있는 그들이라 조용하게 타이를 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길거리라 하는 수 없이 지나가던 헌병을 불러 그들을 인계하고 대충 설명을 들려 준 것이 그날 사건의 전모였다.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방으로 들어갔으나 도저히 기분이 잡히지 않았다.

내가 교육 부대에서 교육을 시킬 때나 또 일선 부대에서 정훈 장교로서 교육을 시키는데 있 어서도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군내에서는 두말 할 것도 없지만, 대민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공손하고, 국민에게 모범과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군인상을 갖도록 강조했었다.

그런데 어떤가?

그들은 사병 신분이라고 해서 군인이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영내에서의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를 흠뻑 만끽하는 것은 좋으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군인은 언제나 군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들은 군복이 「통제와 구속과 부자유를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

잠시라도 군복을 벗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내 생활 자체에도 개선되어야 할 것

들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 아니한가?

군인이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푸른 제복이 감싸준 늠름한 모습은 남아의 기상이 넘쳐흐르는 것이고, 생명과 태양의 열이 끓어오르는 무서운 힘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군복을 외면하고 있다.

딱한 일이다.

모든 장병에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더욱 강하고 현실적으로 불러일으키며, 냉철한 이성으로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시키고, 군대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만 하겠다.

나는 군복을 입고 외출을 나가면 부자연스럽고, 불안하며, 창피하다는 그 두 못난 사병들의 외면적인 창피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수치감을 더 크게 느꼈던 것이다.

<토막 상식>

● 소화기의 역사

원시인들이 사용한 최초의 비구(飛具)는 돌로 추측되며 최초에는 손으로 던졌고 그 후 수 세기 간은 중요한 군용무기로 투석기(投石機)가 사용되었다.

창, 투창 같은 관통비구(貫通飛具)는 오랜 옛날부터 발달되었고 그 중에서도 1590년경까지 사용된 영국장궁(英國長弓)이 유명하다.

석궁(石弓)은 원시적 화포인 나포(拏砲)와 같은 것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은 소화기 탄환을 추진시키는 기계적 방법의 가동성을 연구하여 1250년경에 비로소 화약에 대한 구조식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1200년경에 이르러 화기란 것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현대 군용화기의 기초는 1890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부터 계속 연구를 거듭하여 1936년에 비로소 미국 Cal.30, M1 소총이 표준소총으로 채용되게 되었고, 독일, 불란서, 그리고 소련에서도 어느 정도 최근에 이르러 반자동식 소총을 사용하게 되었다.

중공의 「유엔」 가입과 세계정세 전망

장두성
<중앙일보 외신부>

70년 여름 「유엔」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세계청년대회를 열었었다. 이때 대회 집행 위원회는 중공 청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대회가 시작되자 전문을 다시 보냈다. 다음날 회답이 왔다. 우리는 귀 전문을 수령하기를 거부함. 북 평전신국.

지금까지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에서는 가끔 이와 비슷한 초청 전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회답은 인제나 마찬가지로 북평 전신국 발신의 「수령거부」였다.

그러던 중공이 이번 가을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 거의 확실해 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기할 사실은 중공자신이 유엔가입을 위해 적극 외교를 폈다는 점이다. 20년 전 유엔의 깃발 아래 출동한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던 중공이 이제 한국참전이 결의 했 던 「뉴욕」시 「이스트」강변의 그 총회장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정세는 그동안 그처럼 급변한 것이다.

중공이 언제 「유엔」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 69년 겨울, 소란스럽던 문화혁명이 거의 매듭지어지고 그 기간 동안 본국에 소환했던 해외주재 대사들을 다시 임지로 파견하기 시작한 때쯤이 아닐까 짐작된다.

중공은 이때부터 국교관계를 이미 갖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 외교를 펴기 시작 했다. 즉 69년 3월 「우수리」 강변에서의 무력충돌 사건이 있은 이래 극도로 악화했던 소련에 대사를 다시 파견한 것을 필두로 70년 가을에는 「캐나다」와 국교를 맺 었고 곧이어 「이탈리아」와도 국교를 맺었다. 그리하여 이제 중공을 승인하는 나라는 모두 61개국으로 불어나 중화민국을 승인하는 국가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작년 「유엔」 총회에서 찬성 51, 반대 49로 처음으로 과반수표를 획득한 「알바니아」의 중공 「유엔」 가입 및 자유중국 축출결의안이 금년에는 2/3의 다수표를 얻게 될 가능성 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공이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된 데는 물론 군사, 정치면에서 강대국이 된 중공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다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월남전을 포함한 중요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현실 외교의 경향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문화혁명을 치룬 다음중공이 적극적으로 전개시킨 자체의 외교활동도 크게 작용했다.

즉 「캐나다」와의 국교정상화 성명에서 중공은 굳이 과거처럼 대만이 중공영토의 일부임을 「캐나다」가 유의한다는 구절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여 대만을 자기들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는 국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과거의 외교원칙을 고집했지만 그 다음 「이탈리아」와 그 밖의 나라의 경우 이를 전연 언급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었다. 과거 20여 년 동안 그들이 주장하던 이 구절을 포기한 것을 중공으로서는 커다란 후퇴로서 주목할 만한 정책전환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곧 20여 년의 고립 끝에 그들이 국제무대로 등장하겠다는 강한 의리를 나타내 준 것 이다.

「유엔」을 백안시하던 중공이 갑자기 「유엔」 가입을 위한 적극 외교를 펴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공의 입장에서 본 극동지역의 그동안 정세를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다.

49년 중공이 중국본토에서 정권을 잡은 직후 미국은 소위 「애치슨」의 극동방위권 속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선언이 말해 주듯 대만에 대한 중공의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인정 했고 중국본토

각처에 널려 있는 미국정부의 외교사절을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중공정권의 「기정사실화」를 가능케 할 길을 열어 놓았었다. 그 당시 승리의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던 중공은 이러한 미국의 제스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평의 미국 공관을 접수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었다.

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시 미 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함으로써 「덜레스」시대의 중국대륙 봉쇄시대가 왔다. 동남아조약기구(SEATO)가 결성되고 한국과 대만에서의 미국 측 봉쇄 노력은 강화되었으며 그해 겨울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함으로써 미 · 중공 양국 은 결국 교전당사국으로 변해 버렸다. 50년대를 통해서 계속된 이러한 관제에서 중공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강대국의 무대로 생각한 「유엔」을 계속 외면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공은 「라틴아메리카」, 동남아, 「아프리카」 대륙 등에 산재한 신생국들로 구성된 소위 제3세대에서 그들의 외교적 힘을 모색했다. 이들 비동맹국가들을 규합해서 주은래의 평화 5원칙을 주장한 「반둥」 회의가 바로 이 시대 중공외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노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국제무대에서 구체적인 힘의 기능으로 굳히는데 실패한 중공은 60연대에 들어와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택했다. 즉 60년대 중기에 해방군보에 발표된 임표(林彪)의 「인민전쟁 만세」라는 논문에 뚜렷이 밝혀진 이 노선은 세계를 도시와 농촌국가로 구분하여 저개발국가인 농촌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인 도시국가를 포위하려고 이를 압도해버림으로써 세계혁명을 성공시킨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국내에서 성공시킨 혁명이론을 세계문제의 차원에까지 발전시킨 것인데 이 이론을 토대로 중공은 세계 각처의 신생 및 저개발국 내에서 인민 전쟁으로 선동했다. 그 가장 뚜렷한 예가 월남이나, 물론 중공이 월남전을 직 접 선동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쟁이 치열해지자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공지도자 들은 이때부터 월남전을 인민전쟁의 모델 케이스로 내걸고 군사적 지원을 해 왔으며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예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국 측의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로 끝없는 소모전으로 침체되어 갔다. 그러는 동안 중공은 내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갔다. 66년에서 시작되어 68년 말에야 거의 마무리된 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중공의 외교기구는 거의 마비되었다. 통일 「아랍」 공화국 주재 대사를 제외한 모든 해외

주재대사들이 한 기간 동안 모두 본국에 소환되었으며 외교관 없는 외교무대에서는 외부 현실을 무시한 소위 조반외교(造反外交)가 중공의 입장을 더욱 고립시 켰다. 이 시기에 외국을 방문하는 모든 중공인들은, 그들이 상인이든, 선원이든, 외교관이든, 그들의 본래의 여행목적보다 모택동의 극단적 교조주의를 외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경원의 대상이 되었다. 63년 47표의 찬성표를 얻었던 중화민국 축출· 중공 초청을 골자로 한 「알바니아」안의 지지표가 매년 1표씩 줄어 68년에는 44표로 줄었던 것은 이 시기의 극단외교가 가져 온 중공의 국제적 고립 상태를 잘 말해 주었다.

반 수정주의 운동을 핵심으로 한 문화혁명은 국내적으로는 유소기(劉小奇)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파를 공격대상으로 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구주 공산당의 동서공존 및 온건적 노선을 공격대상으로 했다. 이 대결은 결국 69년 소련 · 중공(中共) 국경선에 위치한 「우수리」 강에서의 무력 충돌로 열전의 일보 전에까지 밀고 나갔다.

69년 말부터 시작된 중공의 실리외교와 이에 따라 박차를 가하게 된 「유엔」 가입 활동의 원인을 하나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대소(對蘇) 대결 정책이 몰고 온 즉각적인 위협이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너무나 뚜렷하다.

7천 여 「마일」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소련과 중공은 그 동안 쉴새없이 군대를 이 지대에 배치했으며 군대 증강이 진행되는 속도만큼 이 지대의 긴장상태는 높아갔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공 측 입장에 다시 서서 사태를 관찰할 때 중공 지도자들이 고립에서 오는 압력 을 얼마나 두려워 했을 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문전인 월남에서는 승산없는 전쟁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기들의 월맹폭격은 때로 중공 영공의 침범사태를 가져왔다. 월맹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후방기지의 제공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했지만 중공은 그들이 60년대 중기에 제창한 「인민 전쟁」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경제적 부활은 머지않아, 기 2차 대전의 숙적이 다시금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 중공을 위협하게 되리라는 예감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중공을 둘러싼 이러한 적대세력의 포위망을 뚫는 길 - 그것이 곧 문화혁명 이후 중공이 추구하기 시 작한 실리외교의 뿌리인 것이다.

69년 「닉슨」 대통령이 「괌」 섬을 방문 중 발표한 소위 「닉슨 독트린」은 그와 같은 중공 지도자의 「딜레머」에 돌파구를 제공해 주었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시아」에의 개입도를 줄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철수한 후에 생길 힘의 공백을 중공이 메우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그리고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이 있지만) 여하튼 「닉슨」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중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이 성급히 힘의 공백을 메우려 들무 로 일본이나 여타 세력의 개입 및 대두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공존의 방량을 모색하려들 가능성이 더 크다. 적어도 미국 내의 정책 수립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7함대를 철수시키고 「유엔」 의석을 중공에게 넘겨주겠다는 미국 측 의사 표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당장에는 중공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합을 시도하지 않으리라는 계산 아래서 나온 것이다.

「유엔」의 중공가입 의결이 확실시된 이 마당에서 문제의 초점은 과연 대만이 계속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공의 이 결정을 받아들여 「유엔」 회원국이 될 것이냐는데 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상태 하에서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북평에서 「제임스 레스턴」 「뉴우욕타임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주은래는 이 점을 크게 강조했다. 즉 그는 이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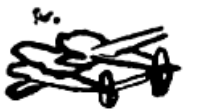
「일본과 일부 미국인의 획책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분명히 말했다. 2개의 중국, 한 개의 중국 또는 대만이 유엔에 등장하거나 이와 비슷한 기도로서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놓든가, 소위 독립된 대만을 만들어 내려 든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절대로 「유엔」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공에 대한 각국의 지지도가 높아가는 현 상태 속에서 퍽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소위 역 2/3 다수결 지정안을 내어 「알바니아」안을 봉쇄하려 들더라도 그것이 금년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내년에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금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알바니아」안을 제기시킬 때

미국으로도 이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공이 대만과 함께 「유엔」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공이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거기에는 20여 년간 정권을 굳혀놓은 장개석 정부가 지반을 닦아 놓고 있다. 따라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면 대만의 축출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중공 - 대만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에는 중국의 일부가 되리라든가 안 되리라는 것은 실지문제이며 대만의 「유엔」 축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개의 중국」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실질문제에 암영을 던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 한다.

여하튼 중공의 「유엔」 가입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면 중공이 20여 년의 오랜 고립을 벗어나 국제사회에 등장하면 어떤 영향이 올까?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그 결과가 세계평화에 유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7억 인구의 대국가가 고립되는데서 오는 국가적 피해망상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추상적 이유에서부터 각 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외교적 「기브 엔드 테이크」가 그들로 하여금 보다 타협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리라는 실리적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아시아」 대륙에 4대국을 주축으로 한 세력 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비교적 평온한 시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게 된다. 그러한 균형은 과거 미 · 소의 양국체제와는 달라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1 대 3 혹은 2 대 2의 대결은 필연적으로 몰고 올 것이다.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여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일본은 재무장할 것인가

양 승 표 <경향신문 기자>

1. 65년 전의 교훈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1904년 2월 8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형식적으로 중립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대통령 레오롤 루즈벨트는 일본에 동정적이었고 정신적으로 동맹국이었다.

레오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을 지원한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는 방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레오를 루스벨트의 생각은 결국 1905. 포츠마우스 평화회담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지배권을 갖도록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 남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같은 해 7월 개인사절로 월리엄 하워드 레프트를 일본에 파견, 당시 일본의 수상 겸 외상인 가쓰라(桂 太郞)와 비밀협정을 체결, 이를 정책적인 면에서 현실화 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1969년 7월 25일 미국대통령 닉슨은 「괌」 도에서 「아시아의 위협은 아시아민의 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독트린을 선언했다.

「닉슨 독트린」으로 불리우는 이 괌 선언은 「아시아지역의 위협에 일본이 상당한 정도로 대처해짐으로써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보자」는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69년 말 「닉슨」 · 사또 공동성명에서 「한국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한 구절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과 더불어 일본도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느끼고 부담을 진다는 명문화된 일종의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보문제를 둘러싼 미국 · 일본 · 한국의 삼각관계는 65년이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변화가 없이 계속 되어 온 것을 우리는 분명이 볼 수 있다.

미 · 일 · 한의 삼각관계에서 일본역할의 증대는 결국 「일본은 재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우 리에게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어필되고 있다.

2.왜 미국은 일본을 선택했는가?

닉슨독트린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의 위협은 소련 및 중공의 공산주의의 침략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적인 사정으로 신 고립(新孤立)주의라고 불리는 닉슨독트린의 적용에 따라 생기는 힘의 공백을 45년 이후 경제대국의 성장한 일본으로 하여금 메워보자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대역으로 일본을 선택했으며 과연 일본은 미국의 대 역을 맡을 것인가?

케네디 행정부에서 국무차관보를 지낸 「월리엄 · 번디」는 70년 1월초 뉴스위크지에 보낸 기고에서 「미국에 의한 점령 이후 일본은 태평양과 아시에서 선린(善隣)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중공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일본의 번영과 이를 배경으로 한 외교관계는 하나의 막강한 힘이 되고 있다. 일본이 어떤 종류의 부당한 군사적 의사로 경솔하게 위험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 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 · 일 관제는 아직 일본의 장래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이 중요한 협력관계가 요청하는 것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한 경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되돌아가 재무장할 경우 위험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부정적인 해답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견해에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되어 있는 국가」라는데 있다. 일부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의 문물을 수입하여 서양화 되었으며 군국주의를 한 때 지향했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더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담이 열릴 때까지 미국의 점령 아래 교육을 받고 재편성된 국가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아시아에서 자기네들과 가장 유사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국가가 일본이며 비록 한 때 적대관계가 있었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맹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의 이유로 지정학자들은 일본의 위치가 아시아에서 소련 · 중공에 대한 방파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할는지는 모른다.

또한 일본 내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민으로 첫째 소련인, 둘째 중공인, 셋째 한국인이라는 민족감정에 나타난 것에 고려했을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미국은 올해 들어 일본에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대역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 국방장관으로서는 45년 종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레어드」 장관은 71년 7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의 안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일본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고 또한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미 제 7함대의 일부 임무를 분담하려면 아직 도 수년이 걸리며 자위대의 장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스하라(增原)」 일본 방위청장과의 회담에서 일본과 다른 우방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또 수상은 「레어드」의 일본방문 후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 제7함대의 역할을 일부 분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상자위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부인했지만 「일본자위대의 강화는 어떠한 침략행위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동지역의 평화보존에 일익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자위대 장비의 현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일본의 극동 안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끼나와」기지 반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71년 6월 17일 조인된 일본에의 「오끼나와」기지 반환 조약에서 미 · 일 양국은 「오끼나와」의 군사기지 기능을 미 · 일 안보조약의 범위 안에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또 부인하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69년 닉슨독트린 성명 이후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이로 인한 일본의 국제적 지위변동을 실감 있게 느끼게 해 준다.

3. 일본은 과연 재무장할 것인가?

「레스톤」 뉴욕타임즈 부사장은 최근 중공을 시찰하고 「북경에 가보기 전에는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중공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작년 일본을 시찰한 미국 하원의 「레스러 울프」의원은 그의 보고서에서 「일본에는 군국주의 부활이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집요한 경고는 「일본이 비대한 경제출구로 군사적인 해외 진출의 단계에 있다」는 진단으로 일본과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가져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이 곧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가 하는데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고 「육 · 해 · 공군 및 기타 전력은 그것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위권을 박탈하지 않은 것으로 역대 일본정부에 의해 해석되어 왔으며 이 해석은 다른 제한 즉 「자위대 병력은 순전히 방위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자위대는 공격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자위대 병력은 일본 밖으로 파견될 수 없다」는 등의 해석을 가져 왔다.

사또 수상은 71년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전쟁과 군사력 보유에 관한 일본 특유의 헌법상 금지조항을 결코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일본 국민은 일본의 재무장이 또 다른 전쟁을 초래 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핵무기 보호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은 국력에 비례하고,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자위력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국민은 일본의 자위력 증강이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아직도 갖고 있어 자위대 증강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국방기본방침은 ①유엔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꾀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②민생을 안정시켜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③국력 · 국정에 따라 자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 한다. ④외부에서의 침략에 대비해서는 유엔이 이를 유효하게 저지시키는 기능을 발휘할 때 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 체제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처 한다.」로 되어 있어 일본은 명목상 재무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논의할 때 「일본이 재무장할 것인가?」하는 의문의 제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은 재무장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 제기가 앞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의 문제에서 일본의 재무장이란 방위용 장비냐 혹은 공격용 장비냐 하는 기준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72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제4차 5개년 방위계획에서 국방자금으로 1백 44억 3천만 달러의 책정을 발표했다.

일본 GNP의 9%에 해당하는 이러한 막대한 군비로 장비된 일본 자위대를 「방어용」이라고 말하고 「공격용 장비」가 없다고 말한 것인가?

일본 자위대를 시찰한 「레어드」 미 국방 장관은 일본 기자와의 회견에서 「일본자위대의 장비가 시대에 낙후한 낡은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선 「한국군의 장비는 일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자위대의 장비현대화 문제를 크게 다루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엄연히 일본자위 대가 재무장이란 간판만 걸치지 않았지 실제는 재무장하고 있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즉 일본은 방어 장비를 공격 장비로 조속히 전락할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장비는 능히 극동정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측에서 볼 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군국주의의 부활로 비약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4. 역사는 반복할 것인가?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시련 위에 선 문명」이란 저서에서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따라「아시아에서의 미국대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1904년의 경우처럼 노 · 일 전쟁이나 한 · 일 합방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경제 제2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재무장이 65년 전과 같은 군국주의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경제적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지리적 긴밀한 관계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거대한 경제팽창 속에 군사적인 해외진출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45년 후 51년까지 미국의 점령이 심어 놓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전통적인 일본의 군국주의를 없애고 확고한 기반을 확립했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는가?

일부의 경제적인 해외진출이 봉쇄되고 국내 경제가 파탄되어 사람들이 일자리는 얻을 수 없게 될 경우 그들이 군사적인 잠재능력을 동원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핵무기로 장비된 중공이 아시아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지도적 국가로 등장했을 경우 일본은 원자폭탄 없이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것인가?

일본은 45년 이후 양극화한 세계정세 속에서 유일하게 군비지출이 없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나라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인 번영을 미국의 극동정책에서 나온 부산물이며 미국의 비호 없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대신에 일본에게 대신 짐을 져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이다.

국제적으로 거창한 평화의 명분을 내걸고 있는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아무 이유 없이 짊어질 것인가?

일본은 「오끼나와」기지 등 45년 패전 이전의 영토를 미국이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담하던 역할을 넘겨받지 않고 그대로 인수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역을 인수하더라도 되도록 그 시기를 연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어차피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4차 방위계획이 끝나는 70년대 후반이 되면 미 · 소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의 전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재무장이 곧 군국주의의 부활인가?

지금 일본에서는 제국군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어 복고 붐이 한참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여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풍조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일본의 재군비는 절대로 군국주의의 부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과 군종장교의 책임

군목 · 이성환

지난 7월 6일 「닉슨」 미국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완벽한 우위 또는 탁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미국시대의 종식(終熄)을 선언하였다고 외신은 보도했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앞으로의 세계가 미 · 소만이 아니라 중공, 일본, 서구 등 5개의 세력권으로 나누워 질 것이라 하는데 남북으로 나누워져 있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발언의 진의는 「난숙한 희랍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도의적으로 퇴폐(頹廢)해져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경고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즉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다운 기본적인 정신상 및 도덕상의 힘을 미국 국민이 아직은 가지고 미국 국민의 도의적 복원력(復元力)에 관해 말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의 계속된 발언의 내용 중에서 「소련은 대결로부터 교섭의 상대로 바꾸어졌다.」

「중공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이 되어 국제적 고립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일본과 서구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만만찮은 상대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미국은 환경(環境), 경제(經濟), 정신력(精神力), 도덕면(道德面)에서 건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실 미국의 젊은 세대가 패배주의(敗北主義)와 마약에 좀 먹혀 가고 있어서 옛날 희랍과 로마의 말기 증세를 오늘의 미국이 나타내고 있다는 「닉슨」의 경고는 조금도 과장이 아닌 줄 안다.

요사이 우리는 급격히 변천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점하고 있다. 미 · 중공 접근 무드가 한창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일본도 뒤질세라 중공에 접근정책을 쓰고 있고 남북 적십자 대표가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등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지만 요즘 중공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자위대는 구식무기를 버리고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의 「사또」 수상은 자위대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요격전투기 F-104J 250대를 주력기로 갖추고 F-4E 팬텀 전투폭격기의 도입을 추가하고 현재 258,900명 을 263,4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면서 일본 자위대의 강화는 어떠한 침략행위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의 평화 보존에 일익이 될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일본의 안전을 위한 방위선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세계의 이목이 일본의 재무장에 집중되어 있고 혹시 economic animal이 military animal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은 관심과 아울러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북괴 전쟁준비를 다하여 놓고 계속 도발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방이나 안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방이란 자기나라의 독립과 영원한 번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가지고자 하는 국가의 대외적 위험을 제거하는 일절의 국가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외교적인 수단에 의하여 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하여 국가 경제와 문화수준을 향상하여 국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책 수행에 대한 방해의 배제 외적의 침입과 공격에 대한 국가 방위 해외에 있는 자국민과 그 재산의 보호 기득권익의 옹호 등이 국방상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방에는 삼대방어선(三大防禦線)이 있다. ① 정치적 방어선은 정치가가 ② 전략적 방어선을 군략가가 ③ 사상적인 방어선(정신적, 도의적, 사상적인 면)은 종교가가 방어선을 구축할 책 임이 있다면 국방과 종교는 불가불리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금일의 전쟁은 사상전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냐 – 허위냐 – 자유냐 – 노예냐 – 박애냐 – 무자비냐 – 생명이냐 – 물질이냐 – 유신이냐 – 무신이냐 – 민주주의냐 – 공산주의냐 - 사상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략가 「유비겔」은 「우리의 안전은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갖는데 있다」고 하였다.

국방의 삼요소로 우리는 ① 장비 ② 기술 ③ 사람을 든다. 그러나 이 삼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사령관 준장 HOD는 말하길 「In the Final Analysis, it is not the machine But the man who is the Decisine Factor in Battle」이라고 하였다. 즉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상과 정신 및 도의적 생활과 종교적 생활로 선도할 책임이 군대 안에서는 군종장교에게 있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는 군인이 되였는가?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수호해야 할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는 자가 있어야 장병들이 신념이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장병을 정의와 자유의 파수꾼으로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사명감에 불타는 군인을 만들고 정신무장을 해줄 수 있는가?

누가 군인으로 애국 애족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대단히 미약한 존재같지만 군종장교가 군인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용감하게 그의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신념과 신앙을 키워주는데 결정적인 뒷받침과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옛날 삼국시대 신라에 있어서는 불교의 원리와 화랑도 정신이 우리 겨레의 마음을 지도하였고 또 이조 500년간은 삼강오륜의 유교정신이 이 민족의 생활 원리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겨레는 뚜렷한 종교적 생활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주인이 없는 빈집이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 줄 안다. 이전에 있던 것보다 못된 것이 들어가서 전보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향락과 사치와 음란과 물질 지상주의 등 부정과 부패 등이 정신적인 지배자가 된다면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가 날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는 아니 기독교는 마땅히 이 민족에게 새 생활의 정신적 원리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종교인 아니 하나님의 교리와 기독교인부터 역사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군대 안에서 군종장교는 모든 장병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해석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장병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men to God, God to men」

장병들이 신앙의 내용이나 혹은 그 가치를 아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은 저들이 받은 바 정당한 명령에 언제든지 무조건 복종하여 조국의 간성으로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부동한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군인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재산이나 권력보다도 신념. "영원한 팔" 즉 영혼의 안식처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념 있는 군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군종장교는 두 가지 하는 일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건전한 인격을 조성하므로 국민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토록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도 갖추게 하고,

둘째, 무식한 자를 계몽시키고 미로(迷路)에 든 자를 지도하고 선도하여 사회에 유용한 인물로 육성하고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 우는 자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군종장교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전 부대장병들의 종교상 혹은 도덕상 요구를 채워주어야 하고 또한 특수한 문제와 요구를 가진 자에게는 해결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군 장병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군목을 찾아 만나 보라는 말이 유행되었었다.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육체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장병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군종장교가 효과적인 군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병들이 지 금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와 난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들이 종종 당면하기 쉬운 소외감, 좌절감, 고독감, 절망의식 등등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 내여서 건전한 생활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활동무대인 군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갖추어야 될 인격과 지도역량이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건전하고 해박한 신학적 지식의 소유와 인간성을 깊이 이해하는데서 생기는 지혜와 왕성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둘째, 지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인간 생활의 의의와 가치를 인식함으로 얻어지는 인격과 종교적인 면과 도덕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여러 가지 충동과 자극을 통하여 얻어지는 추진력의 활용, 즉 창의력과 정열과 과단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괴」가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확고부동한 방위 태세와 장비의 현대화 및 정병강군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남북적십자 회담과 평화 무우드로 인하여 추호라도 정신적인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종장교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군종활동을 통하여 장병이 군대의 특수한 환경에서 혹은 비인간화 하는데서 생긴 갈등과 내면적인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의 피폐해진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명랑한 병영 생활을 영위케 하며 정신적인 면에서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건전하고도 씩씩한 정병강군으로 육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토막상식

M41 소총

1960년 2월 1일부터 전 미군에게 M1총과 대체하여 지급된 최신식 소총이다. 구경 7.5밀리 탄환을 발사할 수 있으며 중량은 10파운드 20발의 탄환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을 장전할 수 있고 1분간에 최대 750발의 비율로 발사할 수 있다. 보통 기관총의 1분 간 최대 발사속도 525발과 비교하면 그 성능에 우수함을 짐작할 수 있다.

토너먼트(Tournament)

시합할 때 대전표에 따라 승리자 팀끼리만 시합해서 우승팀을 선출하는 시합방법이다.

리그전은 전 팀이 골고루 한 번씩 모두 시합을 해서 승자전 패자전을 거친 후 우승팀을 선출하는데 반하여 토너먼트는 승자 팀만이 대전표에 따라 올라가고 패자 팀은 탈락해 버린다.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

군목 · 김두식

세계기독교 협의회의 신도부 총무였던 「한스 웨버」가 지적한 대로 지난 수 세기 동안 푸로테스탄트교도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짠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인 기독교에 의하여 잘 되어져 있다. 이 책은 서두에 크리스찬 표현의 생활태도에 대한 기본자세를 보여 주는 한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나는 한 사나이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불과 몇 발자국 달음질치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뒤를 따라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울면서 쫓아온다. 그러나 그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은 채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울부짖으며 달아난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빈 들판 한복판 길을 헤치며 달음질쳐 달아난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만을 찾아 달음질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장망성」 즉 장차 망해 버릴 성인이 세상을 등에 지고 저 세계만을 바라보고 도망질쳐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되기에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아야 하는 것이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지향하여 처자도 동족도 세상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이요 도피적인 타계주의 사상이 지난 수 세기 동안의 크리스찬의 마음을 지배한 주류를 형성한 사조였다.

이러한 사상은 물론 신약성서에 그 근원을 둔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고 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등 여러 곳에 세상 도피적인 사상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낡은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 새 창조였고 그런 까닭에 이 새 세계에 제자들이 관심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다. 사도들의 관심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옛 세상은 이제는 곧 끝난다. 끝나 버릴 세상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하며 곧 없어질 사회 기구는 애쓰고 개혁해서 무엇 할 것인가. 오는 왕족을 맞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새 왕국에 속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신약에는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는 "인간은 다 죄인이요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 이 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희랍, 로마의 문명이 지배하는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교적 사상에서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간도 영혼 혹은 이성과 육체 두 가지 합하여 되어져 있는데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은 잠깐 있는 것이요, 모든 악이 그리 로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그 반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육체를 멸시하고 영의 세계에 치중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사도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구분하여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후 개혁파 교회의 교리와 사상은 정통주의 조류와 자유주의 조류로 양분되었다. 정통주의 조류가 점점 더 타계주의적인 경향을 지향한데 반하여 자유주의 조류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윤리는 감상적 인 도덕주의에서 자선사업을 위주로 하는 온정주의 윤리에서 정치적으로는 무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이 두 조류를 가리켜 하나는 불을 켜 서 말 아래 두었고 하나는 불을 켜지도 못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주의적인 타계주의적 경향은 오늘에 와서 전 세계 교회 안에서 과감하게 청산되어 가고 있다. 「한스 웨버」는 지나간 몇 세기 동안의 크리스찬의 모델을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에게 서 찾는다면 앞으로의 크리스찬의 모델은 1945년 9월 4일에 히틀러 정부에 의하여 사형 당한 젊은 신학자 「본 훼퍼」일 것이라고 했다. 「본 훼퍼」는 히틀러의 독재정권에 반기를 들고 「교회는 교회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냐?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냐?」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신약성서는 결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몸을 버려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성취한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임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본 훼퍼」는 히틀러를 「적 그리스도」로 규탄하여 싸웠던 것이다.

「본 훼퍼」는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사형장에서 이슬같이 사라졌다.

「한스 웨버」가 금후의 크리스찬의 한 모델로써 이 「본 훼퍼」를 소개한 것은 오늘의 세계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상적인 방향이 이 「본 훼퍼」적인 선(線)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마틴 루터」와 같이 현대의 새 종교개혁의 선봉자라든지 그 후와 크리스찬이 사회문제에 대해 취한 정당한 태도는 「본 훼퍼」처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트」가 지적한 대로 그 때의 그 상황 아래서는 그것이 가장 바른 태도였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신학적 판단 그리고 신학적 판단을 이론으로 체계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몸으로 구체화한 태도는 이제부터의 크리스찬의 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본 훼퍼」의 남겨놓은 .저서인 「윤리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와 화목하게 하시며(고후 5: 19)"라는 사실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은 유년시대가 아니고 성인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이 성인의 세 계에는 크리스찬이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온정주의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한 세속적 인간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곧 크리스찬은 세 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 윤리의식에 투철한 종교적 인간이었으나 예수는 종교적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수육했고 인간 가운데도 도덕적 인간이나 종교적 인간이 아니라 세속적인 「죄인」들의 벗이 되어 살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거시고 부활하므로 「세상의 주」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무신론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신자와 함께 같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위하여 일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신학자들은 각각 그 주장에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지나간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해해본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한 말씀은 결코 이 세상일에 대해 무책임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의 한계 상황을 명백히 하고 하나님 나라와의 질적인 차이를 밝힌 것이다. 크리스찬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성취시켰고 세상의 주가 되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어 "땅 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 이 되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를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것이다. 신약성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 3장 16절인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사는 자인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최후에 추궁당하는 죄는 무엇 무엇을 한 죄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 한 무책임의 죄인 것이다.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가르쳤고 때의 징조를 분별 못하는 것은 무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위선자"이기 때문이 라고 규탄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하나 즉 사랑의 계명인 것이다. 사랑은 자기 혼자 깨끗하여지고 혼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이웃 심지어 처자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듣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달음질치는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고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서한을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 개혁자의 태도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만의 실존적인 이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불의한 자와의 대결이 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한 제일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나, 인권 옹호를 위한 투쟁이 없이 사람은 하나 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믿는 다는 것이나,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민족의 차별대우를 그대로 두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것이나.

사회정의를 실현해 가는 운동과 노력에 가담함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죽은 신조나 교리의 고백은 될지라도 산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여 육체는 악에 속하고 영혼이나 정신은 선에 속한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희랍 철학이나 마니교적 이교사상이지 신구약성서에는 그런 사상적 근원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 28:18-20)하신 말씀대로 크리 스찬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위해 일하는 정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위하여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 죄인과 연대화를 한 그 수육(受肉)의 사실을 본받아 크리스찬도 수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세속화는 결코 타락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화를 두려워서 경건 속에 도피하는 것이 타락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수육하며 죄인들과 연대화를 한 것은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정당화 시키거나 방임한 것도 아니다. 살을 찢고 죄를 뿌려가며 그 해결에 몸을 던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곧 인간을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의 생활은 그들의 속한 교회의 과제인 설교, 친교, 봉사에 바치는 것이다.

친교와 봉사는 결코 윤리적 인도주의적인 범주가 아니고 복음의 밑바닥에 존재한 깊은 종교적인 범주이다.

언제나 내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불한당」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크리스찬은 어떤 유토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다. 항상 현실에 발을 꼭 부치고 보다 더 좋은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할 뿐이다. 따라서 부단히 현실을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기 위한 개혁자이면서 어떤 현실에서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 속에 발을 잠그고 사는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주의 날」이 올 것을 믿는 까닭에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에 주저앉지도 않고 불변의 표준을 향하여 현실을 보다 거기에 가깝게 끌어 올리는 다이나믹한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

군목 · 정수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한문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조종(祖宗)되는 교육"이란 뜻이다. 동양에서는 예부터 교육을 소중히 여겨서 사람으로 생겨났을지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고 하였다.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교육이란 나무그늘 밑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인간이 되게 하는 열쇠가 감추어져 있다"고 갈파하였다. 교육이 인간에게 이렇게 필요하지만 교육 중에는 「종교」가 가장 근본적이며 위대하고 숭고한 교육이란 의미에서「종교」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종교의 대상, 즉 종교의 객체는 종교와 종파를 따라 각각 다른데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다. 원시시대에는 종교의 대상이 물질적인 것이 많았고 문명시대에 들어올수록 정신적 대상이 많아졌다. 인간들의 종교관계를 살펴보면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유신론적 인간, 또 하나는 무신론적 인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간형 즉 회의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무신론적인 철학을 갖게 되면 대개는 그 생활과 소행이 타락하는 경향으로 빠지게 된다. 무신론적 인간의 처참한 「말로」(末路)의 한 예로써 철학자 「니체」를 들 수 있겠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부르짖던 그가 마지막에 정신분열증에 걸려 처참하게 울부짖다가 죽은 것이다. 또 무신론을 공언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 얼마나 약한가는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생의 정도(正道)"를 걸으려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흔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명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자연법칙이 만고불변의 원리인 것처럼 과신하여 이에 맞지 않는 듯한 모든 이치를 부인하는 태도는 정당한 과학자의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뉴우턴」의 만유 인력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의하여 수정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과학자「파스칼」「에디슨」「뉴우턴」이 겸손한 신앙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약 요한 14장 8절 이하를 보면 제자「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답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가르치는 구원(救援)의 성취는「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되는「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영국의「흄」이란 학자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2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말했고,「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혹평하면서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는 자멸"한다고 말했다. 서기 1883년에「칼 막스」가 죽었으나 88년이 지났는데 기독교는 자멸하기는커녕 그 신도 수는 세계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 세계가 되어서 달나라를 여행하게 되어도 그 인공위성의 캡슐 속에서 성서를 읽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한다. 우리 인간은 자연계를 통하여, 성서를 통하여 양심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앙모(仰慕)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박대통령 문언록

◇ 행정은 예술에 가깝다 하겠다. 집행하고 작업하는 동기가「선(善)」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창의와 창작으로「진(眞)」이어야 하며 그 결과가 부정 아닌 쾌(快)한「미(美)」라야 하는 동일성의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

군목 · 이학수

〈본문, 창 1 : 1-5〉

구약성서 벽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천지 창조 이 전에 암흑과 혼돈의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름다움에 젖어 시도 읊으며 또한 창세 이후 지금까지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 한 창조의 질서에 감탄하게 됩니다. 기차는 네일 위에서 양쪽 바퀴가 질서 있게 똑같이 움직일 때 수천리 수만리를 향해 나갑니다. 이라한 자연 현상이나 과학의 산물인 물질도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듯이 인간도 질서를 지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국가간의 알력, 사상적인 갈등 나아가서는 살육의 전쟁으로 질서가 깨어지는 일을 오늘까지 반복해 온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질서를 찾기 위해 고대의 씨족 혹은 부족들은 추장을 뽑아 전권을 주어 절대 복종함으로써 질서를 찾으려 했고 현대에는 국가를 건설하여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어 또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이끌어 가게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단체 혹은 국가도 혼란 상태에 빠져서는 아무런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군인이 라는 특수 단체 속에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곧 군의 규율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올바른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의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와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군의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행동은 결코 군인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예로써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들을 전부 끌어내어 내동댕이를 치고 쓰레기통을 쏟아 방안을 어지럽히며 나아가서 잉크병 을 쏟고 벽에다 낙서를 하고 책상을 엎어 장난을 치며 놀때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와서 본다면 아이들은 동심에서 재미있게 놀았을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한심한 일일 것 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혼돈 상태를 차근차근 다 정리할 때 애들이 흩어놓은 시간과 아버지가 정리한 시간과의 차이는 많을 것입니다. 즉 파괴와 혼란은 쉬우나 질서를 되찾기에는 많은 피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쳐」박사의 저서 "문화와 윤리" 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온갖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거의 다 법률적으로 일반 대중의 정신 속에 싱싱한 법의 새로운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데 있다"고 지적 했읍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바로 「슈바이쳐」박사가 지적한 점이 결여되어서 질서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 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세계라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단체 속에 있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자유대한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만큼 지휘관으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군의 규율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에 "무릇 군사로 다니는 자는 사사의 일로 자기를 매지 아니 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은 언제나 주저하지 않는 복종과 완전한 충성심과 궁극적인 자기 희생의 모델이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군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내 생명을 국가에 바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질서 안녕을 위해 힘써 진군해 나가는 대한 공군의 일원이 됩시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조국은 확실히 보람찬 약진기에 들어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갖가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련기를 마지하고 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600부대」 한 · 미 합동 첩보비화

윤 일 균

/서울신문 전무이사
공군 예비역 준장
공군 특무부대장 역임/

< 필 자 >

필자소개

필자 윤 일균(45)씨는 공군 1 · 8 · 10대 정보국장, 공군특무부대장,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요직을 거쳐 1965년 말 공군준장으로 예편했다.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서 정보학과 범죄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윤씨는 현재 서울신문 전무이사로 언론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필자는 6 · 25동란 때 항공작전 정보수집을 위해 수없이 적지에 침투했으며 공군특무부대장으로 미 극동공군에 파견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미그」작전 때는 직접 진두지휘한 공로로 미국 동성훈장을 받기도 했다.

<편집자 주>

일명「네코」부대

6006부대는 6 · 25동란 때 적 후방 곳곳에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한 · 미 합동 특수 첩보활동부대였다.

일명 「네코」부대 라고 불리우기도한 이 부대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것은 해방된 이듬해인 46년이었다. 이 부대의 별칭이「네코」부대로

된 것은 부대장 「도널드 니콜스」씨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후에 자세히 그의 인물됨과 한국에 끼친 공과를 설명하겠지만 부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니콜스」씨는 미국공군첩보사상 수수께끼의 인물로 이름났고 훗날 미 공군 정보학교 교재속에도 소개될 정도의 인물이며 우리 한국공군의
정식 명예 대령이다.

「니콜스」 씨가 46년 김포공항 송신 「안테나」 밑에 「콘세트」를 치고 첩보활동을 시작한 것 이 이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게 된 시초이다. 「니콜스」 씨는 처음에는 미군의 한국주둔에 관한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조사관으로 왔지만 계속 눌러 앉아 한국 내의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에 관한한 정치 및 군사정보와 인물정보를 수집, 대단한 막후인물로서의 지위를 굳혔고 밖으로는 북괴는 물론, 소련의 극동공군 본산지인 「치타」와 「하바로프스크」까지 정보원을 파견하는 등 광범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6006부대는 미 극동공군(FEAF)소속으로 한국에서 6004 등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6.25동란 때 한국공군 특무대(S.A.U - Special Activities Unit)와 합동으로 가장 화려한 작전을 수행했다. 이때 이름이 6006부대였다.

6 · 25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군특수 임무부대로는 미 육군의 8240부대(일명 KLO부대)가 유격작전을 펴고 있었고 TACK부대 등 여러 가지 부대가 있었는데 6006부대는 항공정보수집, 항공첩보활동, 기술첩보활동, 특수파괴 공작, 낙하산 투하작전, 심리전 활동, 해상특수 작전 등 공군소속부대면서도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작전을 벌여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아군에 승리의 전기를 마련해준 부대였다.

6.25가 터지자 한국공군 작전요원은 정보고문관격인 미 공군의 「니콜스」씨와 합동으로 각종 특수첩보임무를 수행했으며 1951년 공군특무부대가 창설됨과 동시에 미 극동공군에 파견되어 「네코」부대와 합동작전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나는 이 때 공군소령으로 ○○○ 명의 장병과 함께 미 극동공군산하로 배속되었다.

동란 중 6006부대가 빛나는 전과를 많이 올렸지만 이것은 거의 이 부대에 배속된 우리 공군장병들의 손으로 이룩된 것이다. 그러므로 6 · 25 동란 중 6006부대 전사의 대부분은 그대로 한국공군 특무대 전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떻든 이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하는 것은 「니콜스」 씨의 요청에 따라 이 부대는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1개 전투비행단급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임무수행에 따르는 매월의 경비도 엄청난 것이었으니 그 비중과 작전규모를 가히 짐작할만할 것이다. 평 상시에는 미군장교 ○○명, 사병 ○○명, 한국공군 소속장병 등 약○○○○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부대장 「니콜스」씨 밑에는 「니콜스」씨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많은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6006부대는 6.25 동란 중 특수항공첩보 작전 「미그」15 탈취작전,

적 후방파괴 및 교란작전, 적전기상작전, 해상작전 등 수많은 작전을 벌였고 많은 장병들은 수훈을 세워 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부대장 「니콜스」씨는 미국 최고의 영예인 「메달 · 오브 · 오너」를 받았고 이 부대와 합동작전을 벌인 한국공군장병도 동성훈장, 군인훈장, 항공훈장을 받았다. 전 선이 옮겨짐에 따라 「네코」부대 본부는 대구에 한때 내려갔었고 서울이 수복되고 북진이 거듭될 때는 평양까지 올라갔으나 1 · 4후퇴에서 휴전이 맺어질 때까지는 서울 종로구 중앙여고와 안국병원 자리에 있었고 그 후 한강 이남의 모기지에 자리 잡기도 했다.

개인의 명예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조국통일의 염원에만 불타 적 후방에 뛰어들어 특수임무 수행을 하다 아무도 모르는 곳,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져간 수많은 전우들의 용감하고도 비장한 옛 모습을 되살려 생각하니 아무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하는 것이 특수임무 수행자의 숙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조국에 끼친 위대한 공로를 생각할 때 늦게나마 그들의 넋을 달래주고 그들의 조국에 바친 참뜻을 살려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숨져 간 전우들의 모습은 긴장된 그 순간에도. 눈빛이 유난히 빛났으며 늠름했던 그 자세는 그대로 지금 나의 머리에 떠오른다.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값진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길 새삼 다짐한다.

T-34 탱크의 비밀

1950년 8월 초순께, 낙동강 전선에서 피아간에 촌토를 빼앗거나 지키려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미 극동공군사령부에서 「네코」부대에 한 장의 지령이 떨어졌다. 『적「탱크」T34의 장갑판 성분과 기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라』는 것이었다.

괴뢰군이 6 · 25동란 초기에 T 34형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어닥쳤을 때 장비가 보잘 것 없었던 국군은 이「탱크」 앞에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국군이 갖고 있던 대전차포로도 T-34「탱크」를 부술 수는 있었지만 조준이 정확치 못한데다 앞부분에만 사격했고 사정거리도 멀어 한방 맞아도 잠깐 주춤했을 뿐 육중한 몸을 꿈틀거리면서 계속 아군진지로 육박해 오는 데는 당할 수가 없었다.

육군 장병들이 적탄 속을 뚫고 「탱크」에 바싹 다가가 육탄공격으로, 또는 수류탄과 지뢰로써 몇 대의 「탱크」를 부수기 도 했지만 「탱크」에 대한 저지책이 거의 없었다.

그 후 오산전투에서 미군 「스미드」기동대가 3.5「인치」 「바추카」포로 이 「탱크J를 부수기 시 작했지만 미공군기로는 「5인치」또는 2.75「인치」 「로키트」포로

공중에서 적「탱크」에 공격을 가하여도 「탱크」의 포탑연결부나 「엔진」부분에 정확히 명중시키지 못하는 한 공격 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적은 낙동강 전선에서도 계속「탱크」를 갖고 나타나 아군을 위협하곤 했다. 미 극동공군으로서는 T-34「탱크」를 정확히 쳐부수기 위해 적「탱크」장갑판의 구성성분을 정확히 알 필요가 다급했던 모양이었다.

당시 공군정보국 전선지구총 파견 대장의 직책을 띤 나는 대원 7명과 함께 「네코」부대와 같이 항공정찰사진에서 발견된 적 「탱크」 1대를 노리고 아군 제2군단 전투지인 경북 경산군 하양면을 향해 떠났다. 낮 1시쯤 폭양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 「네코」와 우리대원 7명은 「탱크」근처 5백m쯤 되는 야산에서 작전계획을 세웠다. 전날 밤만 해도 아군과 적군이 격전을 벌였던 이곳 전선은 이날따라 접전이 없는 채 총성이 멎어 있었다.

적 「탱크」는 아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에 폭파당해 아군과 적군 전선의 완충지대 논밭이 섞여 있는 도로 위에 멎어 있었다. 우리는 우선 2명의 대원을 「탱크」에 보내기로 했다. 『지원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나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김모하사(준위 제대)와 이모 일병(상사 제대)이 자원해 나섰다. 풀로 위장한 다음 두 대원은 낮은 포복으로 「탱크」에 접근해 가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산에 남아 그들의 동작을 지켜봤다.

약 1시간동안 김 하사와 이 일병은 드디어 「탱크」에 접근했고 날쌘 동작으로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소리가 없는 가운데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긴장을 풀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적병이 안에 없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탱크」안으로 들어간 2명의 대원들이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자 우리는 그들의 무사함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숨어있던 적병에게 사살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에 있던 우리들은 모두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 시작했고 금새 불길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을 느꼈다. 우리들이 애태우며 기다리는 가운데 또 1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이 살아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었고 제2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최모소위(중령 제대)가 망원경을 나에게 내밀며 「탱크J위를 손짓했다. 2시간 동안 애태우며 기다리던 「해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쁜 것도 한 순간, 우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북괴 「탱크」병 2명이 나오는 것 이 아닌가. 나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숨을 죽이고 적병의 동태를 살피는 수밖에 없었다. 「탱크』밖으로 기어나온 적병은

그러나 우리 쪽으로 향해 포복해오는 바람에 우리는 또 한번 크게 놀랐다.

얼마 후 그들이 무엇인가 큰 물건을 끌고 오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우리 대원임을 눈치채게 되었다.

터질 듯한 긴장감이 서린 산야에서 소리없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2시간 정도 기어온 그들은 무사히 우리들 앞에 도착했다.

『2시간 동안 뭘했나?』 나직이 꾸짖는 나의 말에 그들은 웃는 얼굴로 답변했다. 괴뢰군「탱크」앞 조종석「스페어 · 해치」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고 「탱크」속에 있는 각종 문서, 통신제원파악, 적병이 남겨놓은 신품내의, 「탱크」병모자 복장 등을 갈아입고 담배를 한대씩 피우며 주위상황을 살피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다.

적 「탱크」속에서 담배를 피운 그 배짱, 종이조각, 의류한 점까지 모두 첩보자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깡그리 쓸어 갖고 나온 그들의 침착성과 용감성에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감탄해 마지않았다. 갖고 온 「스페어 · 해치」는 곧 대구 동촌 비행장으로 옮겨져 미 극동공군에 보내졌다.

이들이 결사적으로 획득하여 제공한 첩보자료 분석결과로 적 T-34형「탱크」에는 「네이팜」 탄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2일 후부터 미 공군기들은 우리나라 전선에서 처음으로 「네이팜」탄으로 적「탱크」를 공격했다. 3천도가 넘는 「네이팜」탄이 고열에 다부동 전투에서 적 「탱크」는 시뻘겋게 닳았다가 꺼멓게 그으른채 파괴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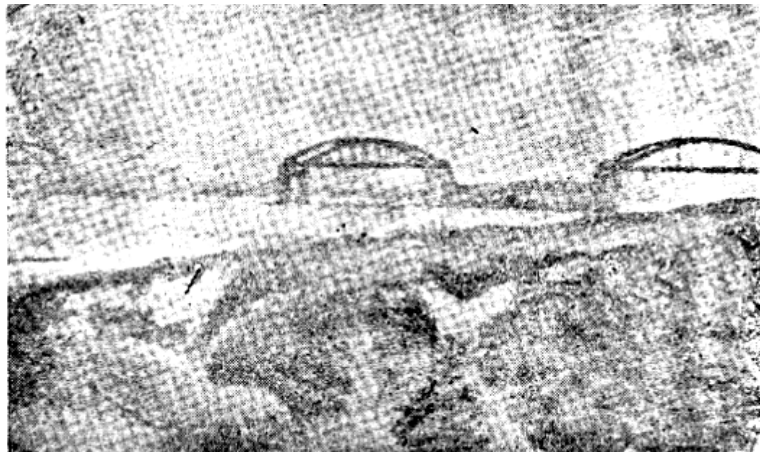
계속된 「네이팜」탄의 공격으로 2,3년 걸려야 양성하는「탱크」병 손실이 날로 늘어나자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해온 북괴 괴수 김일성도 통신망을 통해 아우성을 쳤다. 『탱크 전사들이여, 「탱크」를 버려도 좋으니 제발 몸만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러나 3천도가 넘는 「네이팜」탄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적 「탱크」병은 거의 없었다. 미 극동공군으로 하여금 「네이팜」탄 사용을 결 정케 한 용감한 공군 첩보대원들은 그 후 모두 1계급씩 특진됐다.

6 · 25 발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일전인 1950년 6월 23일 미 의회외교위원회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홀든」의원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정보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CIA「히렌케타」제독은『CIA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한국은 만사평온하며 현재 및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 전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전쟁은 바로 30시간 후에 터지고 말았다.

북괴가 남침할 것 이라는 정확한 첩보를 「판단 불능」으로 처리, 불의의 습격을 받은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솝」

이야기 속에 나오는『거짓말 하는 소년』의 우화와 같은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늑대가 나온다』고 여러 번 거짓말을 해온 한 소년이 정작 늑대가 나왔을 때에는 아무도『늑대가 나왔다』는 소년의 외침을 믿지 않아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6 · 25 발발 전까지 북괴침략을 알리는 여러 차례의 첩보가 빗나가자 진짜 첩보가들이 왔을 때 고위당국이「판단불능」으로 처리해 버린 것은「이솝」우화의 재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든 정보근무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6 · 25동란이 터지기 1년 반 전부터 북괴 남침의 흉계를 알리는 첩보가 파생적으로 입수되어 그때마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여순반란사건, 옹진지구전투, 개성 송악전투 등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자 1949년에 들어서면서 9월 침공설, 11월 침공설 등이 나돌았고 1950년에는 3월과 5월, 대남침공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 처음에는 긴장했으나 남침설은 차차 긴박감을 잃고 있었다.
그렇지만 각종 첩보망에 걸려드는 소식은 사태의 다급함을 시시각각 알려와 각 군 정보계통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황해도 홍현에 나가 있던 공군정보국 직속 태극호 공작대에서 1950년 6월 12일『6월 하순께에 공격개시 징후가 보인다』는 첩보가 날아들어 왔다.



<서울 재수복을 앞두고 한강남쪽 둑 위에서의 서울방향 정찰중인 상황>

또 6일 후인 6월 18일에는 황해도 청단에 파견돼 있던 공군정보국 직속파견 대장 주모소위(소령 때 순직)와 김모중사(대위 제대)로부터『6월하순 적남침 예정』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으며 홍현에서의 첩보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5일 후인 6월 23일에는 홍현에서 또다시 다급하고 정확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적지 깊숙이 박혀있는 고정첩보망으로부터 보고된 첩보내용은『①함북지구 괴뢰군이 철도편으로 남하중 ②적병령, 원산에서 철원으로 이동 중 ③6월 25일 전후 남침징후』였다. 여태까지의 어느 첩보보다도 사태의 위급함을 직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들 첩보를 모두 군 통수계통에 따라 군 고위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협조부처인「네코」부대에도 알렸다.
특히 잊지 못할 일은 23일자 첩보를 군 모 고위층에 보고했을 때『왜 깜짝 놀라게 이러느냐, 시끄럽다』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속으로부터 치미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물러나왔던 사실이다.
분통이 터진 나는 그 길로 직접 전선에 나가 재확인 해보기로 결심했다. 개성 · 토성 · 백 천을 거쳐 홍현에 도착한 나는 현지 태극호 공작대원들로부터 첩보출처와 입수경위 등 자세 한 보고를 듣고 적의 남침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23일 밤을(백 천) 천향각에서 뜬눈으로 지새고 다시 청단을 돌아 24일 밤 11시 서울로 돌아왔다. 적의 대대적인 남침이 임박했다는 심증을 굳힌 나는 김포공항관사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25일 새벽 5시「지프」에 위장「넘버」477번을 달고 공군본부로 나섰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사복차림을 했지만「지프」뒤에 군복 · 군모 · 권총 등을 꾸려 넣었다.
지금 서울 회현동 해군헌병대 자리에 있었던 공군본부에 차를 세우고 막 들어서려는데 육본작전국 작전과장으로부터 이날 아침 새벽 5시 괴뢰군이 전면남침해왔다는 긴급전화가 걸려 왔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당시 여의도에 있었던 공군비행부대가 적「야크」기의 기습공격을 받아 아군항공기가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앞일이 캄캄했다. 나는 즉시 김포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웬일인지 불통이어서 단독으로 초비상을 걸었다.
전세가 악화해 공군본부는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내려가 모중학교에 임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30일밤 황해도에서 적의 대거 남침을 받고 그 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백천과 청단지구 대원들이 민간 농부 차림의 모습으로 대전 공군본부에 불쑥 나타났다.
나는 너무나 기뻐 그들 앞으로 다가섰으나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을 번뜩이며 대뜸 나에게「카빈」을 겨누며 다가왔다.

『여러 차례 정확한 첩보를 보냈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러한 참변을 당하게끔 만들 었습니까』 물어뜯을 것처럼 대드는 대원들의 태도에는 말할 수 없는 노여움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나의 대답이 끝나자 대원들은 총을 땅에 놓고 나를 와락 끌어 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적에게 포위되어 육로가 막히자 해상으로 각각 탈출, 구사일생으로 대전에서 용케도 본부에 합류했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북한괴뢰는 6 · 25 개전직전에 파상적인 심리전 공세로 여러 차례 거짓 남침 정보를 흘려 아군 정보관계자들을 지치게 만든 것 같다.

정확한 정보보고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끔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에도 이해가 가지만 정보 근무자나 군 통수계통의 책임자 및 이를 지원했던 미군 당국의 깊고도 예리한 분석과 판단 및 과단성이 있었더라면 6 · 25의 참변은 그도가 훨씬 덜 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백번 속더라도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손자의 말이 새삼 실감난다.

MIG기의 정체

『MIG-15의 정체를 알아 내라』一.

6 · 25동란이 한해를 넘긴 1951년 이른 봄 미 국동공군사령부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나.

평북지역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던 12대의 B-29폭격기가 신의주 상공에서 소련제 전투기 MIG-15의 공격을 받고 일본에 2대, 여의도 기지에 1대가 돌아왔을 뿐 나머지 9대는 적 지상과 해상에 격추 또는 비상 착륙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2차 대전 때 하늘의 요새로 이름을 날렸던 고공중폭격인 B-29로서는 상상치도 못할 일대 치욕이며 참변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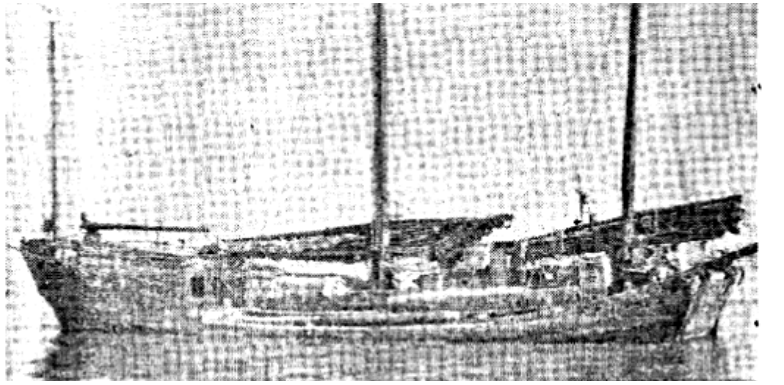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건이 나던 날 나는 평북 신미도에 모종 임무를 띠고 SA-16 비행정으로 가고 있었다. 거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서해 해상에 B-29 2대가 비상착륙했으니 조종사를 구출하라』는 작전변경 무전이 들어왔다. 나는 곧 서해상공을 선회, 구명대 2대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 착수했다.

기체는 보이지 않고 기름이 둥둥 떠있는 해상에 2명의 미군 조종사가 구명대 위에 떠 있었다. 우리는 그중 1명을 「보트 위로 건져 데려왔으나 왼쪽다리 밑 부분이 잘려 비행정 위에서『어머니』만 몇 번 부르다 곧 숨지고 말았다. 또 하나의 다른 조종사는

구명대채 없어져 한 사람의 조종사 시체만 싣고 서울로 돌아왔다.

여의도에 내리려 했으나 이날 적탄에 맞은 B-29 1대가 비상착륙하는 바람에 활주로에 깔았던 PSP가 모두 휘어 있었고 B-29는 활주로 끝에 반파된 채 멎어 있어 우리는 김포에 착륙했다.

여의도에 비상 착륙한 B-29의 탄흔과 숨진 조종사 왼쪽발이 없어진 것을 종합 분석한 결과 MIG-15는 37mm 기관포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때 미군전투기는 20mm기관포를 갖고 있을 뿐이었으니 놀라움이 컸다.



<우리가 나포한 중공 무장공작선. 이 배는 장크선으로서 중공에서 「진남포」로 가는 도중 이었다>

2차 대전 후 소련이 최초로 만든 분사식 전투기를 처음으로 한국전선에 내놓은 것이 1950년 10월 하순께 였다.

미 극동공군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MIG-15의 .성능 · 무장 · 방탄장치 및 통신장비 등 제원을 속히 알아야 할 필요가 심각히 대두되게 된 것이다. 미 극동공군은 곧 「네코」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했고 「네코」부대는 한국공군에 협조를 의뢰했다. 김 정열 공군참모총장(당 시)은 『공군의 명예를 걸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임무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명의 대원과 함께 미군교관으로부터 모 비밀기지에서 기술훈련을 겸한 맹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2주간 훈련이 끝났을 때 『니콜스」는 나에게 항공정찰사진을 보여주며, 적지에 들어가 MIG-15기를 탈취해 오는 것이 작전임무라고 설명해 줬다. 바로 전날에 찍은 항공 정찰사진에는 평남 개천군 군우리 청천강가에 미군기와 공중전 끝에 지상에 불시착한 MIG-15기 1대가 놓여있는 것

이 보였다.

1951년4월 중순, 만반의 훈련을 마친 나와 대원들은 C-119미군수송기를 「니콜스」와 함께 타고 군우리 상공을 향해 떠났다. 미 극동공군이 이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게 하기 위해 우리 가 탄 수송기는 80여대의 F-51, F-80, F-82, F-84 등 각종 전투기에 의해 호위되고 있었다. 전투기들은 기종에 따라 저공 · 고공로 나뉘어 우리를 감싸듯 둘러싸고 북진했다.

목적지인 군우리 상공에 도착했을 때가 하오 2시쯤. 항공정찰사진에 나타나 있던 MIG-15기 는 어림없이 청천강 사장에 있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이는 MIG- 15기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니콜스」를 수송기 안에 남겨놓고 우리대원 ○명은 촌각을 다투며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기 시작했다.

곧 우리들은 MIG-15기에 접근해 갔다. 미리 훈련을 받은 대로 MIG-15의 분사구 부분과 「엔진」부분 및 통신기 등 여러 장비를 모조리 떼고 각종 기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시작했다.

한창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북괴군들이 총을 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개미떼처럼 기어오는 괴뢰군을 미공군기들이 기총소사로 저지했으나 한대가 가고 다음 전투가 기총소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악착같이 다가왔다.

나는 대원들에게 머리를 들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이때 윤모하사(상사 특진추서)가 머리를 들다 이마에 관통, 숨지고 말았다. 약 2시간의 적지작업 이 끝났을 때 H-19 「헬리콥터」가 우리 주위에 내렸다. 우리들은 윤하사의 시체를 서울로 갖고 가려고 처음에는 생각했으나 그보다는 보다 많은 MIG-15기기를 싣고 가는 것이 고윤하사의 전사에 보답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 윤하사를 낙하산에 싸 사장에 묻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각종 기기를 싣고「헬」기 에 오른 우리들은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기쁨을 나눌 사이도 없이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있었던 전우를 적지에 남겨 두고 오는 슬픔에 「헬」기 안은 한동안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당초 우리는 「헬」기편 으로 서울에 올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우리와 중요한 MIG-15기재를 싣고 있는 「헬」기 가 평남 한천에서 적의 대공포화에 맞아 「프로펠러」3개중 1개의 끝부분이 날아간 것 이다. 「헬」기 는 고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헬」기가 추락한다면 모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조종사에게 서해에 있는 초도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탄「헬J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노련한 조종사의 덕분으로 초도에 무사히 내려 영국 군함편으로 서울로 왔다.

우리가 목숨과 대한민국공군의 명예

를 걸고 적지에서 갖고 온 MIG-15부품은 촌각을 지체하지 않고 곧 미국본토로 공수되어 세밀한 분에 들어갔다. 2주일쯤 지났을 때 미 극동공군에서 1권의 책이 합동작전「팀」에 도착했다. 책 표지 에는 『1급 비밀이지만 작전에 참가한 공로로 귀 부대에 기증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책에는 MIG-15의 각종 성능과 능력이 백과사전 정도로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미 공군의 고도로 과학화한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고 윤상사도 손수 떼 내고 자로 잰 MIG -15의 부품이 그 후 한국전선에서 MIG기의 자취를 감추게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북녘 땅에서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추락기 조사

인류역사상 최초로 공중정찰을 시도한 사람은「노아」다. 성서에서 보면「노아J가 『대지의 표면에서 홍수가 다 가 셨는가를 알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노아J가 공중정찰이란 근대적인 정보활동의 형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첩보활동에 있어서는 항공정찰뿐만 아니라 각국 추락항공기의 정밀조사 같은 것도 중요한 활동으로 되어 있다.

6 · 25 동란 중 나와 나의 대원은 함남북 일부와 평북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미 극동공군의 지원 아래 돌아다니며 아군기와 적기에 대한 추락기 조사를 실시했다. 아군 추락기를 조사하는 것은 아군기 비밀장비가 파괴되었는지 혹은 적이 메어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적 추락기를 조사하는 것은 적의 새로운 통신을 포함한 각종 장비 · 무장 등에 관한 기술정보획득, 적 조종사의 신원, 적기 추락원인 등을 알아냄으로써 공격전술과 전투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1950년 8월 초순 나는 ○○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안동 비행장 조사에 나섰다.

피아간에 몇 번 빼앗고 빼앗겼던 안동은 이 무렵 한때 소강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구 안동 비행장을 조사하러 나선 것은 북괴가 이 비행장을 근거로 대구시내에 소이탄폭격을 기도했다는 첩보 때문이었다. 내가 가기 전에 여러 번 조사단을 보냈으나 기체나 폭탄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의 임무는 항공기와 폭탄을 찾아냄으로써 적이 다시 안동에 들어왔을 경우 대구폭격을 예방하는데 있었다. 나는 구 안동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외곽부터 샅샅이 살피며 좁혀들기로 했다. 동쪽 약 2km되는 산골짜기 흙이 다른 흙과 색깔이 약간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즉시 그곳을 파보니 많은

포탄과 소이탄이 산골짜기를 5백m쯤 따라 숨겨져 있었다. 다시 비행장에서 서쪽 약 1km되는 철길밑 배수로에서 「박스」에 포장한 채 감춰둔 항공기 1대분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적기 및 폭탄발군은 수없이 많았다. 군산비행장 동북방 약 2km되는 옥구군 미면 야산기슭과(황해도 신막)비행장 남쪽 약 1km 암굴 속에서 폭탄저장고를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북괴공군교도연대가 있었던 함남선덕 비행장과 습격기 연대가 있었던 함남연포 비행장 막사에는 조종사와 장병들의 명찰이 그냥 붙어 있었고 중요서류도 그대로 있었고, 선적비행장에는 포장조차 뜯지 않은 신품 YAK전투기 1대를 찾아내 적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는지 눈에 보는 듯 선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로 경기도 포천에서는 괴뢰공군습격기 연대장 박모가 추락,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일도 있다. 주민들의 신고는 많은 괴뢰군들이 포천읍에서 30리 가량 떨어진 이상한 묘에 찾아와 인사하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거물급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부근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민가 근처에서 추락된 괴뢰습격기 꼬리날개 잔해를 발견했다. 날개에 「1」자가 써있 었는데 이것은 습격기 연대장 항공기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다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헬멧」, 비행모, 신분증, 항공 지도등을 발견할 수 있어 이 무덤은 습격기 연대장 박모의 것임을 확인했다. 박은 6·25 동란초 서울에 공격하러 왔다. 격추 당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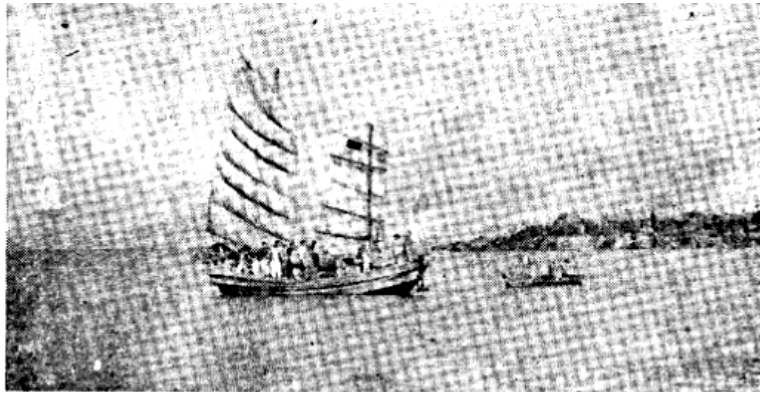
추락기 조사중 우리 대원들은 공산괴뢰들이 미 공군조종사들에게 저지른 악랄한 만행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괴뢰군들은 생포한 미군조종사 2명을 강제로 동원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끓는 기름 솥에 넣어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시흥에서는 흐뭇한 일을 하기도 했다. 6·25가 터진 직후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F-51 전폭기를 인수해온 고 이 근석 준장은 시흥에서 남하하는 적 탱크를 공중공격 끝에 애기와 함께 부딪쳐 산화한 일이 있었다. 나는 이 장군의 유해나 기체잔해를 찾기 위해 시흥에 갔었다. 공산치하에서도 주민들이 기체잔해를 부분적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대원들과 함께 이 장군이 산화한 지점에 새 묘비를 세우고 한 잔술로 간단한 제사를 올렸다. 공군이 자랑하는 대선배에게 첫 인사를 올리는 후배가 된 영광을 갖게 된 것은 추락기 조사를 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일이었다.

북진이 거듭됨에 따라 나는 1950년「크리스마스이브」를 평양에서 맞았다. 내 고향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동강가의 한 촌마을이다. 나는 다음날쯤 고향에 들릴 계획이었다.

더구나 고향 사람들은 내가 국군장교로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지주였다는 이유로 대동강 섬 가운데 괴뢰들이 강제로 이주시켰던 나의 조부모님을 고향으로 모셔놓고 내가 오기만 기다린다는 소식이고 보니 잠이 올 리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밤 11시 30분쯤 「네코」로부터 즉시 함흥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조부모와 고향 사람들에 실망을 안겨 준 것은 고사하고 그 후 괴뢰들이 나의 조부모를 학살했다고 하니 불효막심했다.



<평안북도 운무도(雲霧島)기지로부터 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대북 특수 공작대들—>

함흥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밤중 평양서 강동으로 가는 도중 헌병이 차를 세워 주지 않았던들 불과 10m도 못가 지뢰에 박살날 뻔했고 신고산으로 들어갈 때에는 시골아주머니 2명이 필사적으로 손짓하며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괴뢰 김책 부대패잔병 2백여명이 있는 곳을 통과하다 그대로 죽을 뻔 했다. 이 헌병과 아주머니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추락기 조사를 하면서 내가 각 비행장에 남아 있던 괴뢰공군기들을 일일이 촬영한 것이 1백 11대였다. 괴뢰공군비행부사령관 이활이 만주로 도망갈 때 10여기를 갖고 그동안 추락한 괴뢰기까지 합치면 공군정보국이 6·25 직전 괴뢰공군기를 1백 67대로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

해상·도서 작전

38선 이북 동해와 서해의 수많은 섬치고 6·25동란 때 특수해상도서작전에 참가한 용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육지의 전선은 훨씬 밑으로 처져 있었으나 바다에서는 평북 신의주와 함북성진 앞바다까지 들어가 항상 적의 목 줄기에 예리한 칼끝을 들이대고 있었다.

많은 섬들 중 6006부대와 공군 특무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은 동해, 양도, 마양도, 여도와 서해, 신미도(운두도), 화도, 호도, 석도, 초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어화도, 대연평도, 우도 등이었다. 우리는 6006부대와 같이 51년 봄부터 53년 「클라크」장군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사인」할 때까지 이 섬들을 기지로 수없는 특수 활동을 벌여왔다. 적지에 아군 첩보망을 침투시키는가 하면 적지 고정첩보망에 대한 지원과 연락 및 적지에 투하된 낙하산대원의 회 수작전, 특수파괴활동, 혹은 항공작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의 수집 등 대담무쌍한 작전을 벌여 언제나 괴뢰를 위협에 떨게 했다.

6006부대와 공군 특무대의 작전명령은 주로 밤11시쯤에서 내려졌다. 잠자리에 든 대원들중 해당자들만 살짝 깨워 쥐도 새도 모르게 출동시켰다. 『오늘은 일찍 취침하라』는 말은 이날 밤 중으로 출동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대원들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곤 했다. 괴뢰는 중공군과 합동으로 이들 섬에 대한 탈취작전을 수차 기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했다.

1951년 4월 평북선천 앞바다 신미도 기습작전이 감행됐다. 기습대원들은 SA-16 비행정 등 특수 미군 항공기에서 대낮에 신미도를 향해 뛰어내렸다. 나와 「니콜스」는 수류탄과 기관총 등 무기를 이들에게 떨어뜨렸다. 우리는 기습작전의 성공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섬 주위를 얼마동안 선회했으나 불꽃 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이 모두 적에게 생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一당백의 대원들이 총 한방 쏘지 않고 포로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약 1시간쯤 되었을 때 「적 30명 전원 생포했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거점을 확보하고 대 기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나와 「니콜스」씨는 부근 해상에 내려 쾌속정(快速艇)으로 신미도(身彌島)에 들어갔다. 생포된 적은 섬 출신 내무서원 들이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섬 사람들은 모두 1백 70cm 이상의 거인들 이었다는 것이다. 신미도(身彌島)는 거인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았다. 운무도(雲霧島)는 개천(价川), 영유 (永柔), 신안주(新安州), 박천(博川) 등지에 대한 특수 공작을 실시하는데 절대 필요한 요지였다. 해발 10여m 밖에 안되는 무 인도인 바위섬에서 우리는 항상 위장텐트를 치고 있었다. 적 MIG기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불도 못 때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작전이었지만

그물로 잡은 새우에 고추, 마늘 소금을 얼버무려 만든 새우젓이 꿀맛 같았다. 지금도 그 맛이 잊혀 지지 않는다.

서해에서 우리는 중공「정크J를 나포하기도 했다. 초도에서 운무도로 가던 우리는 커다란 배를 발견, 수상히 여겨 주위를 돌면서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선미와 선수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우리는 곧 기관포로 응수, 적의 기관총을 침묵시켰다. 항복한 적선에 올라 수색한 결과 중공「정크」선으로 판명 됐고, 대운에서 의료품과 의약품, 보급품을 신고 진남포로 가다 항로를 잘못 들어선 길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끈질긴 점이 있으나 일단 사태가 불리하면 체념하는 속도도 빨랐다. 「정크J는 3개 돛대가 있었는데 그 중 가운데 것은 밑부분이 두 아름드리였다. 말로만 듣던 「정크J의 「마스트」가 이처럼 큰 줄은 이때까지 미처 몰랐다.

후방 국민들과 늘 떨어져 있던 우도들은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긴급지시를 받고 후방에 내려갔던 나는 장성환 중령 (당시 · 전공군참모총창)이 직접 조종하는 C-47수송기를 「니콜스」씨와 함께 타고 모종 임무를 띠고 백령도 천연비행장에 내렸다.

이때 황해도 평안도 쪽에서 내려온 많은 피란민과 섬사람들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마중해 주었다. 태극표지를 한 항공기를 본 주민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행기가 있느냐』면서 비행기와 태극표지를 만져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규군인으로서는 이 섬에 첫발을 디딘 우리는 벅찬 감격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동해 반도는 함북지역 적정을 살피는 동해 최북단 기지, 바위로 된 무인도인데 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활동하느라고 고통을 받았다. 몇 개월씩 미군「레이션J」만으로 살아야 했고 물은 1주일에 2「드럼」씩 해군이 보급해 주었으나 이 물이 썩으면 썩은 물을 다시 끓여 먹으며 작전. 했다.

해상도서 특수작전에서 특히 잊지 못할 일은 우리 공군이 만든 쾌속정「통일호」의 장렬한 최후다. 도서작전 때문에 6006부대는 미 공군으로부터 최신 쾌속공작선을 지원받았지만 우리 공군은 이것과 성능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시속 38「노트」에 10여문의 중기관총 · 무반동총 · 고성능「레이다』등 최신 통신장비를 갖춘 통일호는 동해 해군 방어 작전에도 참가, 공동작전을 펴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해 괴뢰는 항상 통일호의 움직임의 신경을 써 왔고 큰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휴전직전 특수 공작임무를 위해 적지침투중 원인불명의 대폭발사고로 특수해상작전에 있어서 역전의 우수한

지휘관이었던 강연숙 소령(중령주서) 등 일부 대원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 장비를 갖춘 쾌속통일호를 잃었다.

고 강중령과 대원들이 지금도 통일호 잔해와 함께 동해에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애달픈 마음 금할 수 없다.

동란중 각군의 해상특수 활동에 몹시 혼란, 북괴는 정전이 된 후 해안포진지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기에 광분했다. 또한 해안포대에 근무하는 포병들의 공포증을 없애느라고 포병 중에서 해안포병을 으뜸으로 추켜올리고 「해안포병」의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쓰라린 상처를 매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 보급부대 궤멸

구름이 지나가면 푸른 하늘이 남고, 사람이 헤어지면 사랑이 남듯이 전쟁이 끝나면 많은 용사들의 무용담이 가을 하늘의 별처럼 숱하게 빛나게 마련이다. 6 · 25 동란중 국군용사치고 용감히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특수임무를 담당한 대원들은 적지에서 활약해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위험이 뒤따랐다. 빛나는 전과를 올린 대원들 중에는 벌써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으나 지금도 가끔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는 서해에서 적지로 수없이 드나들며 적 보급부대를 궤멸시켰는가 하면 전대원이 전멸하는 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는 등 「인괴의 격」을 잊고 활동해온 옛 전우 이순희씨 (39 · 당시 중사)의 체험담을 옮겨보기로 하겠다.

52년 늦여름 서해 모 기지에 있던 이 중사는 새로 배속되어 온 ○의 대원을 맞았다.

이날 밤 이 중사는 이들 대원들을 적 해안에 무사히 상륙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각 대원들의 띠고 온 임무는 조별로 제각기 달랐다.

수풍「댐」촬영을 맡고 온 대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대원은 황해도 신막 비행장에서 일하고 있는 괴뢰군의 최근 동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또 다른 대원은 진남포에 각종 보급품을 수송하는 중공「정크」의 수송시간 · 척수 · 보급 종류와 양을 탐지해야 하는 등 각 조가 맡고 있는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일단 적지에 도달하면 제각기 임무 수행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갈 사람들이었다. 이 중사는 1차적으로 이날 밤 이들 대원들을 침투용「보트」에 태우고 파도를 가르며 선천군 해안으로 향했다. 목적지 해안에 도착한 이 중사는「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 적 해안에 깊숙이 「보트」를 들이댔다. 대원들은 배가 멋자 곧 육지로 뛰어 내렸다.

그러나 이 순간 적 해안에서 따발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중사는 기관병에게 돌아가자고 명령했으나 갯벌 깊숙이 박힌 배는 빠지지 않았다. 이중사는 물속에 들어 몸으로 보트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겨우 얼마큼 배를 빼내고 뛰어올랐을 때 기관병은 적탄에 맞아 숨져 있었다. 배를 돌릴 틈도 없어 뒷걸음으로 한동안 바다 가운데 나온 이중사는 그때부터 다시 심한 파도와 싸워야 했다. 4시간 정도 파도에 운명을 맡기고 헤매던 이중사는 아군함정에 발견되어 무사히 기지에 돌아왔다.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이중사는 그 다음날 무전병과 대원을 거느리고 어제 밤 대원들을 침투시켰던 배로 이번에는 자신이 특수임무를 띠고 적지에 직접 침투해야만 했다. 적 보급주력부대가 서부 전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공군 특무부대는 이중사 조에게 이를 발견 기지에 연락하는 한편 항공목표를 유도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적지에 상륙한 이들은 산을 타고 목표지점에 침투했다. 황해도 황주근처 큰길 옆에 있는 산중턱에 이들은 잠복했다.

이때 적은 제공권을 아군에게 빼앗겨 낮에는 꼼짝 않고 밤에만 움직이는 형편이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북쪽 먼 곳에 떼지어 내려오는 적「트럭」부대의 엔진」 소리 들렸다. 적 보급부대는 불을 켜지 못 한채 기동해야 함으로 이동속도가 매우 느렸다.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기관 폭음으로 미루어 적「트럭」을 약 30대로 판단했으며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사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은 서해 첩보기지는 다시 미 공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적 보급부대는 계속 서서히 남하, 선두 부대가 이중사 조가 숨어 있는 산 밑을 통과했다. 조금 후 적 보급부대 본대가 산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도착,「엔진」을 끄고 잠시 멎었다. 이 때 갑자기 아군 야간 전폭기 편대가 밤하늘에 나타났다. 무전을 보낸 지 약 1시간 만에 미 공군기가 나타난 것이다.

이중사는 곧 지시 받은대로 전폭기에 공격 목표를 알리자 산위를 선회하던 아군기 편대는 보급부대 본대가 있는 상공에 조명탄을 터뜨렸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 불빛에 완전히 노출된 적은 길옆에 숨느라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먼 눈에도 환희 띄었다.

이중사 조는 가슴을 조이며 적 규모를 파악했다.「트럭」30여 대 위에는 무엇인가 가득 실려 있었고 괴뢰병력도 5백여명 되었다.

곧이어 전폭기 편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군수품을 만재한 적「트럭」대는 아군기의 공격에 파괴되어 불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적군의 비명과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산중턱에 숨어 있던 이중사 일행은 괴뢰 보급부대가 궤멸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통쾌한 공중공격이 끝났을 때

이중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밤 11시반 그러니까 반시간 남짓한 동안에 적은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말았다. 이중사는 지금도 『군인치고 그렇게 통쾌한 광경을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해한다.

적 보급부대가 전면된 후 이중사 일행은 현장에 접근, 「트럭」에 실은 것이 각종 탄약과 식료품임을 확인하고 곧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 부대가 그대로 서부 전선에 도착했더라면 아군은 크게 고전했을 것이 틀림없다. 1명의 첩보원이 적 1개 사단과 맞먹는다는 것을 이중사 조가 실증한 셈 이다. 이중사 조는 빈 길을 도와 3일후 아군기지로 무사히 귀환했다.

어화도 기습

52년 이른 봄, 특수작전 지점확보를 위해 어화도에 기습 상륙한 합동특공대는 오히려 적의 역 기습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 이곳에서 전회에 소개한 이 순희중사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탈출하는데 성공, 아군에 정확한 전황을 알려 이후의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명의 대원들로 구성된 합동특공대는 서해 어화도에 상륙한 다음 이를 거점으로 삼아 서부전선에 투입 되는 적 후방부대의 정확한 동태파악과 적 거점폭파 · 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북괴는 전세의 만회를 위해 대공태세를 취할 모양이었다.

어화도는 동란 직후 아군이 점령 , 기지로 사용했으나 이 때에는 아군병력이 철수했던 때이었다. 상륙대원중 일익을 담당한 이중사는 이번 작전이 어쩌면 자기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군이 점령했다가 철수한 섬에는 적군이 틀림없이 기어올랐고 또 작전 개시 전 사전정찰에서 소수의 적 수비대원이 주둔중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전투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졌다.

특공대 가 어화도 근해에 이르른 것은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모든 상륙용 특수「보트」는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 갔다. 검은 이 밤하늘을 가려 기습상륙에는 더없이 좋은 밤이었다.「보트」에 탄 특공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어화도 바로 앞에 있는 무인도에 일단 집결했다.

적정을 살핀 특공대는 다시 어화도에 숨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섬은 쥐죽은 듯 고요해 아직 적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섬 가운데 있는 야산에 오른 우리 대원들이 막 숨을 돌리려는 순간 그 동안 잠잠했던 섬은 온통 괴뢰의 총성으로 뒤집혔다. 적의 공격이 개시된 것이었다. 최초 정찰 때보다 증강된 적은 아군이 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상륙시킨 다음 3면으로 포위, 역 기습을 감행한 것이다.

특공대원들은 날쌘 동작으로 반격전을 벌였으나

적은 벌써 육박전을 해야 할 정도로 가까이 공격해 들었다. 적은 아군의 헛점을 찔러왔고, 우리 측의 무전기는 파괴당하거나 빼앗겼다. 얼마 후 적은 「마이크」를 대고 『항복하라』고 방송하기도 했다. 도처에서 총격전과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중사는 무전기를 빨리 되찾아 서해 도서 본부와 근해에 있는 영국함정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적 증대본부를 향해 첫발을 옮기는 순간 적탄에 왼쪽다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러나 이중사는 사태의 긴박성과 자신의 임무의 중대성을 깨닫고 아픈 다리를 끌고 적 중대본부에 숨어들어 빼앗겼던 SCR-300형 무전기 1대를 도로 찾는데 성공했다. 적 중대본부에서 약 2백 「야드」 떨어진 다른 야산까지 기어 올라간 이중사는 본부에 교신을 시도했으나 창린도 파견대가 나왔다.

『개미 (특공대원)들은 전멸상태다. 나는 중상. 구원을 바란다』 이중사의 다급한 무전을 받은 창린도에서는 그러나 『너의 목소리가 떨린다. 포로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중사는 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최대 후퇴가 어디냐』고 물었다. 창린도에서 『해안선』이라고 대답했을 때 느닷없이 북괴 통신병 목소리가 무전에 불쑥 끼어들었다. 『가긴 어딜가. 너희는 독안에 든 쥐다』 깜짝 놀란 이중사가 비상「채널」로 다시 교신하려고 했으나 주위에 적탄이 날아와 무전기가 날아가 바리고 이중사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신고 있던 신발과 함께 짤려 나갔다. 바지를 찢어 지혈대를 만든 이중사는 해안선으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

바닷가 조밭에 기어들어 갔을 때 아군 부상병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숨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있자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있던 특공대원이 이중사의 다리에서 피가 몹시 흐르는 것을 보고 지혈대를 꼭 매어 주겠다면서 다가오다가 적탄에 맞고 쓰러졌다. 이중사는 다시 해안으로 기어가는 도중 대원 이모 일병을 만났다. 이들은 산모퉁이를 돌아 모래를 파고 몸을 숨겼다. 새벽별을 쳐다보는 이중사의 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고 다음 순간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의 얼굴이 보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치는 것이 보였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이중사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눈을 떴을 때 어슴프레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이 보였다.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일까. 이중사는 이일병에게 배를 향해 구조신호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신호를 보고 다가선 배는 부근 해상으로 피란갔던 어부였다. 이일병은 이중사의 상처에 묻은 모래와 검불을 털어 주었다. 이중사는 피에 젖은 손목시계를 바닷물에 씻어 어부

에게 건네주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달라고 사정했다. 어부는 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약 1km쯤 해상으로 나왔을 때 적은 102mm 박격포를 쏘기 시작했다. 사방에 떨어지는 포탄 속에서 용케도 이들이 탄 배는 맞지 않았고 곧 영국 함정에서 함포사격이 시작돼 이들은 무사히 사지를 빠져 나왔다.

한참 나왔을 때 멀리 영국함정이 보였다. 가까이 갔을 때 전날 밤 특공대원들을 어화도에 상륙시켰던 「보트」들이 비어 있는 채 모여 있었다. 많은 전우를 잃은 이중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줄 몰랐다.

영국함정은 「크레인」으로 이들이 탄 배를 그대로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날이 밝아 영국 함정 선미에 영국해군기가 오르고 잔잔한 군악이 흐르는 가운데 영국 수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중사 일행은 갑판에 내렸다.

함장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중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중사로부터 자세한 어화도 현황을 들은 아군은 곧 반격을 개시, 특수작전 거점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공중공격으로 이 섬의 적을 전멸시켰다. 이중사는 이 공로로 미국정부로부터 영예의 훈장을 받았다.

위장 귀순 장교

북한괴뢰는 6·25 동란중 6006부대와 한국공군특무부대 합동특수작전에 의해 MIG-15기의 중요부분을 백주에 탈취 당하는가하면 전선에 투입하려던 후반부대가 궤멸되는 등 피해가 날로 늘어가자 그 앙갚음으로 부대장 「니콜스」와 당시 한국공군 특무부대장이었던 나를 암살하기 위해 특수공작원을 위장 귀순시켰으나 실패했다.

1951년 전방 육군부대와 전선지구 공군 특무부대 파견대에서 북괴공군소좌 1명이 육로로 귀순해왔다는 보고가 부대 본부에 들어왔다. 당시 한미합동3군포로 심문규정은 적 포로는 신속한 정보심문을 위해 해당 각 군이 최우선적으로 다루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순 사실이 한미 공군 합동부대인 6006부대로 통보됨으로써 우리는 곧 괴뢰공군 소좌라는 한 흥국을 인수했다. 키가 작고 다부진 한은 귀순에 성공한 기쁨을 못 이기겠다는 듯 사뭇 감격적인 표정이었다. 나는 곧 한에 대한 전략심문에 들어갔다. 한은 당초 괴뢰지상군이었으나, 공군으로 지원, 선발되어 당시 괴뢰군이 피해있던 만주 간도성 연길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의 경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연길에서 훈련을 마친 한은 함북 회문 비행장에서 근무했으나 당성이 좋지 않는지 혹은 비행적성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북괴가 불리한 전세에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비행요원중 부적성자를

가끔 지상군에 배치시키는 예에 따라 3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지상군에 배속되어 원산지구에 배치 받았다는 것이었다.

조종사를 희망했던 한은 이같은 처사에 불만을 품고 월남할 기회만 엿보다가 중동부 전선에 지형 정찰차 출동한다는 구실로 최전방까지 나와 아군에 귀순했다고 그럴듯하게 꾸며댔다.

<서해 전진기지(섬)에서 작전을 구성중인 필자>

그러나 정보관계 근무자에게는 이상한 직감 이라는게 있다. 나는 한을 처음 봤을 때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한에게 『그렇다면 지금은 공군이 아니고 지상군 장교가 아닌가』고 질문했다. 한은 그러나 군사증에 공군 장교라고 써 있지 않은가. 나는 공군 조종사라고 우겨댔다. 나는 한에게 최초의 비행훈련과정에서부터 수료과정에 이

르기까지 상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항공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고 온 한은 처음에는 척척 대답했으나 차차 항공조종을 비롯한 항공과학기술의 세부에 들어가 깊은 심문을 하자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당황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계속『「프로펠러」가 몇 회전일 때 좌우 「마그넷 · 스위치」를 「체크」하며 또「프로펠러」의 전속회전은 몇 분 정도가 엔진에 무리 없이 허용되느냐』는 등을 물었다.

아무리 북괴가 속성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조종사라면 다 알아야 할 기초적 질문에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어이없어진 나는『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를 탔느냐』고 물었으나 한은 능청맞게도 나에게 비행기를 줘보시오. 어떻든 날기

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은 당시 북괴공군의 지휘계통과 기타 괴뢰공군장교로서의 필수지식도 제대로 모르는 형편이었다.

약 한달 쯤 당시 안국동 부대 본부에서 한에게 귀순자 대우를 해주면서 각종 심문을 계속했다.

나는 한이 넘어왔을 때부터 공군장교라고 주장, 공군에 보내달라고 자청했다는 사실을 연상하면서 우리 측 공군에 대한 모든 임무를 띠고 온 위장귀순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청 했다. 새벽 2시쯤 김모상사 (소령제대 · 현광업진흥공사근무)가 나의 방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이날 밤 야간 순찰중 이었던 김상사가 한의 방을 들여다봤으나 침대가 비어있어 화장실까지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보고했다.

순간, 나는 처음 한을 봤을 때 느낀 첫 예감이 번쩍 떠올랐다. 방에서 뛰쳐나온 나는 곧 부대 안의 이상 유무를 조사시킨 결과 아래층 「캐비넷」이 자물쇠가 망가진 채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권총과 실탄 그리고 걸어둔 주홍빛 공군 장교용 가죽「잠바」 한 벌이 없어졌음을 확인했다.

곧 부대 안에 비상령을 내리고 인접 육군과 전투경찰대에도 한의 체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무기 및 군수품 관리를 도맡아 보던 김상사는 군장비 분실에 대한 책임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내 손으로 꼭잡아오겠다』면서 대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김상사는 다음날 아침 7시쯤 파고다공원 옆길을 나오는 한을 인근 전투경찰대원 2명과 함께 격투끝에 불명예를 씻었다. 전투경찰대원들은 이 공로로 각각 특진했다. 김상사는 국군작업 복에 작업모 내려쓴 한 병사가 옆구리에 보따리를 끼고 골목으로부터 나오는데 그의 보따리를 깊숙이 옆으로 공군잠바의 주홍색 빛깔이 눈에 띄어 붙잡게 된 것이다.

한은 도망친 날 밤 부대 앞에서 50여m 떨어진 민가에 들어갔다. 60살 된 노파밖에 없는 민가에 들어간 한은 일선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군인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사정, 민가에서 1박했다. 한은 북으로 갈 셈으로 다음날 아침 노파가 정성껏 지어주는 밥을 먹고 서울지리를 잘 몰라 「파고다」 공원쪽으로 나오다 붙잡힌 것이다. 다시 붙잡힌 한은 엄중한 조사 끝에 지금까지 귀순해왔다면서 교활한 웃음을 짓던 모습을 싹 바꾸고 끝내는 자기가 띠고 온 임무를 털어 놨다. 한은 원산에서 북괴정치보위부로부터 『북괴를 괴롭히는 악질원흉인 「니콜스」와 윤일균을 죽이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장 귀순했다고 실토했다. 한은 또한 권총을 훔치고 나와 「니콜스」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때마침 야간 순찰병이 다가와 훗날을 노리고 도망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무렵 북괴는 「니콜스」

와 나의 목에 각각 당시 화폐로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려 했으나 작전권이 「유엔」군에 있었으며 6006부대가 「유엔」군 직속부대였기 때문에 미공군의 지시에 따라 한을 미 육군헌병대에 넘겼다. 그 후 어찌된 영문인지 한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이송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끼리 폭동이 일어나 다른 막사로 격리시킬 때 이 막사에서 한은 시체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북괴가 6 · 25동란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인 암살 · 후방교란에 광분했던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거물간첩 체포

지금부터 2천 5백년전 중국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의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서에서 간첩을 5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향간(鄕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이 바로 그것이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쓰고 『적을 아는 데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적의 기밀을 탐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적의 기밀을 탐정하는 첩자로 5간을 든 것이다.

향간은 적의 국민을 우리 측의 첩자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내간은 적 관리나 장졸을 첩자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간은 적이 보낸 첩자를 역이용하는 것이며, 사간은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우리 측 첩자로 하여금 이 사실이 허위인줄 모르는 채 적에게 전하게 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측이 보낸 첩자는 적에 의해 죽게 되며, 생간은 공작원을 적국에 밀파하여 그가 관찰한 바를 죽지 않고 돌아와 적정을 보고할 사명을 갖고 가는 우리 측 공작원을 말한다.

손자는 또한 『먼저 적의 간첩으로서 우리 측에 잠입하여 기밀을 탐지하는 자를 반드시 색출, 돈과 이익으로 포섭하고 그를 잘 인도하고 숙소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정을 끌리게 하면 그가 도리어 우리의 첩자가 되어 우리에게 유리한 적정을 제공할 것이니 이러한 반간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을 역설, 5간 중에서 반간을 으뜸으로 꼽았다.

우리공군 특무부대는 북괴간첩 김모를 반간으로 활용하여 얼마 동안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붉게 물든 머리는 마침내 다시 흉모를 나타내 발악을 시도했으며 끝내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앞당긴 결과가 되었다.

우리공군 특무부대는 비밀 전근무에 여념이 없었던 어느 날 간첩 김모를 검거했다. 부대본부로 이송돼온 간첩 김은 처음부터 바보로 가장했으나 우리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오히려 바보로 위장하는 간첩일수록

거물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김은 정보관들의 간첩심문과 전략심문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시일을 두고 세밀한 관찰을 계속하던 중 김이 무심결에 『「마이신」주사를 놔줄 수 없느냐』고 요청해 왔다. 눈이 번쩍 뛴 나는『「마이신」 주사를 어떻게 아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이북에서 30여대나 맞았다』는 김의 대답이었다. 나는 곧 군의관을 시켜 김의 몸을 면밀히 검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군의관은 신체검사를 끝내고, 김은 폐병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 마이신 주사를 맞은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해왔다. 나는 이 사실로 김이 거물급 간첩임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북괴에서는 2급(차관급)이상이라야 「마이신J주사를 맞을 수 있었고 이 이하 사람들은 마이신 같은 값비싼 약품 혜택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도 김은 심문관이 물으면 엉뚱한 거짓말로 딴전을 부리며 좀처럼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대개 거물급 간첩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속지 않을 상대자라든가 자기보다 이론이나 실정 파악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말문을 여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후 김에 대 한 심문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수법 및 북괴실정을 잘 아는 심문관들이 주로 맡았다. 우리는 김에게 『너희 헛된 진술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책임지고 너희 폐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보장하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터이니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제의도 하고, 며칠 밤을 새우며 이론 토론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김은 마음을 돌려 이실직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은 경상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정 때 일본중앙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 북괴 공산당원으로 소련공산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으며 한때 북괴공군에도 근무한 두뇌명석하고 기억력 좋은 고등간첩이었다. 김은 지하군사조직, 군사기밀탐지, 요인포섭, 요원대동월북, 후방교란 등 고도의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된 자였다. 그러나 입을 열기 시작한 김은 북괴의 고위층 내막, 북괴공군의 증강 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보, 북괴의 소위 대남공작 방향 과 방법 등 정확한 정보를 털어놔 진심으로 개심하여 대한민국에 협조하는 듯이 행동했다. 그런데 이 무렵까지 북괴는 김의 체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을 역이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반공정신과 이론이 투철한 감시원을 붙여 김을 경기도 모처 안전가옥에 수용하고 감시원들로 하여금 계속 김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게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감시원 감독자로부터 감시원들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우리는 즉각 김과 감시원들을 분리시켰다. 감시원들이 조사한결과 김은

그동안 인간적인 동정을 베푼 이들 감시원들을 명석한 두뇌로 짜낸 감언이설로 반대로 세뇌시켜 극장 구경 가자는 등 외출을 조르고 있는 중이었다. 김의 소지품을 수색한 우리는 김이 북괴괴수에게 보내려고 쓴 보고문을 발견했다.

김은 미농지에 쓴 이 보고문을 화랑 담배개비 속에 말아 넣고 양쪽 끝머리에 담배를 조금 넣어 숨겨 가지고 있었다. 보고문은 남파될 때 북괴 괴수가 직접 내린 지시를 어기고 배신 한다는것을 사과한 것과 이제부터 본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명서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을 고쳐 주고 자기 목숨을 건져준 호의를 짓밟고 또한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생할 수 있도록 애쓴 우리의 성의도 무시하고 다시 간첩행위를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 단한 우리는 김을 군법회의에 넘겼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군목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자 김은 자기를 한번 더 살려준다면 이번에야 말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또 한번 거짓말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것이다.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자기의 독재유지와 흉계를 위해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피의 숙청으로 아로새겨진 북괴 공산당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끝내 털어버리지 않은 김의 경우, 그 혼백은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투철한 승공정신으로 북괴의 각종 수법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흉계를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노금석대위 귀순

1953년 9월 21일 상호 9시 24분 북괴 공군조종사 노금석 대위(당시)가 소련 제 MIG-15「제 트」기를 몰고 김포비행장으로 탈출하는데 성공, 귀순함으로써 자유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실 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다.

신의주 상공에 작전임무를 띠고 가던 12대의 B-29가 1951년 이른 봄 새로 나타난 MIG의 공격을 받고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MIG-15기의 정체파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어 6006부대와 우리공군 특무부대의 군 우리 MIG 탈취작전이 벌어졌던 사실은 이미 말한바 있다.

이때 미 극동공군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는 MIG-15기 탈취작전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장군의 이름으로 MIG-15기를 타고 제일 먼저 「유엔」군측으로 넘어오는 공산진영 비행사에게 10만「달러」의 상금을 준다는 심리전을 폈던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담은 「비라」가 괴뢰전지역에 뿌려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MIG-15 탈취작전이 성공리에 수행되어

미국은 MIG-15기에 대한 갖가지 성능을 파악하고 있기는 했지만 부분품이 아닌 완전한 MIG-15기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었던 때인 만큼 노대위의 귀순은 크게 환영받았다.

노대위가 귀순한 다음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간단한 귀순경위 등을 조사한 곳이 한미 합동첩보부대였던 6006부대와 한국공군특무부대였다.

당시 노대위의 귀순이 화재에 크게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현상금 10만「달러」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첫 조사 결과 정작10만「달러」 현상금의 주인공인 노대위는 자기가 몰고 온 MIG-15기에 그렇게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대위의 「제스추어」가 아니라 3일간 한국에 머무른 후 「오끼나와」에 간 노대위와 미군조사관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이 증명해 주고 있다.

『10만「달러」현상금을 준다는 바람에 귀순한 것이 아닌가?』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면 북한에 서 10만「달러」를 준다는 방송이나 「비라」를 본 일이 없는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일문일답이 오고간 다음 노대위는 미군 조사관에게 『당신은 북괴 화폐 1백만원이 어느 정도 가치있는지 아는가?』고 반문했다.

『모른다』는 대답을 들은 노대위는 이어 『나도 10만「달러」라는 미국화폐의 가치를 전연 모르고 있다. 화폐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10만「달러」에 끌려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묻고 바로 창 넘어 달려가는 고급「승용차」를 가리키며 『10만「달러」면 저와 같은 「승용차」를 몇대나 살 수 있는 돈인가』고 물었다는 것이다.

노대위의 말을 들은 미군 조사관은 그때에야 자기들의 심리전 활동에 헛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10만「달러」가 아무리 큰 돈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는 것과 같은 처사 밖에 안 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리전 활동을 자기본위로 해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후 노씨는 자기보다 먼저 귀순한 이건순 대령이 도미 유학하러 미국에 갔을 때 만나 그의 귀순동기와 경위를 소상하게 처음으로 털어놨다.

함흥이 고향인 노씨는 8 · 15 때 어머니가 월남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고 있었고 북괴공산치하가 싫어 항상 자유세계로 탈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흥남화학전문학교 3학년때 6 · 25 동란을 맞은 노씨는 자유대한으로 가는 빠르고 쉬운 길은 배를

타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 북괴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청진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때마침 몸이 건장한 사람은 공군으로 지원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비행기가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 공군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만주 연길에서 조종훈련을 끝낸 노대위는 6 · 25동란 때 약 50회 정도 미군기와 평북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북괴조종사가 그랬듯이 미군기가 무서워 무턱대고 아무데나 있는 실탄을 빨리 쏴버리고 만주로 도망치곤 했다고 그 당시 북괴조종사들의 실력과 사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탄이 남은채 기지에 돌아가면 몹시 심한 꾸지람과 자아비판을 받는게 그당시 형편이었다는 것이었다.

휴전이 성립된 뒤에는 북괴는 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해 조종사 8명을 선발, 위치와 목표물이 실물과 똑같은 가상 김포비행장을 지정해 놓고 공격방법을 연습시킨 후 평양으로 돌아가곤 했다.

노대위는 같은 편대에 있는 친구 조종사 1명과 같이 탈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항상 휴전선 근처에서 평양으로 돌아갈 때 『간다』고 연습삼아 농담을 해오다 9월 21일에는 진짜 탈출한다는 신호로 『간다』고 말했으나 친구는 늘 하던 식의 농담인줄만 알고 그냥 평양으로 다른 조 종사들과 함께 돌아갔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와 같은 가상 김포기지습격 연습 때문에 김포공항에 귀순할 때에는 익숙한 솜씨로 내릴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지난해 6월 고국에 들린 노씨는 대연각 「호텔」에서 베풀어진 환영 「파티」에서 귀순당시 자기를 돌보아준 공군의 이대령을 다시 만나 그때 그 일이 탄로되어 총살당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노씨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많은 북괴공군 조종사들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해왔다. 1950년 4월 28일 괴뢰공군 이 건승중위(현 한국공군 대령)가 IL-10기를 몰고 김포에 내린 것을 비롯하여 1955년 6월 21일에는 이 운용대위(현 공군중령이 인선소위(현 대위)가 함께 YAK-18 기를 여의도로 몰고 왔고, 1960년 8월 3일 정 낙현중위(현 소령)는 MIG-15-BIS를 타고 동해안 공군기지로 귀순해 왔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오늘도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가짜 정보원 만행

인해전술로 내려온 중공군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1 · 4후퇴 때 남부여대하고 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피란민들 속에서 돈 있는 여성들만 골라 산속으로 유인, 금품을 뺏고, 돌려가며 욕을 보인 후

처참하게 살해한 천인 공로할 무리들이 우리 공군특무대의 손으로 일망타진 되었다.

1951년 전선이 일시 후퇴하여 평택 지구가 최전선으로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합동작전 업무연락을 위해 충남 성환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는 대구본부로부터 『최근 가짜 정보원들이 횡행, 특별히 유의할 것과 자대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피란민 속에 적 공작대원이 끼어 있을지도 모르며 피란민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므로 발견되는 대로 즉각 보고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는 나는 다시 대원들에게 본부의 지시를 전했다. 다시 성환지구에는 영 · 토 · 태국군 등 「유엔」군만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우리 뿐 이었다.

어느 날 성환역으로 나갔던 대원이 역사 안 구석에서 미군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젊은 여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현장을 발견, 수상하다고 보고해왔다.

당시 대구까지 이르는 국도는 주요보급로(MSR)로 일반의 통행이 금지되었고 성환역 부근 일대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었는데도 군복차림의 남자가 민간인 여성을 끌고 들어 같다는 점이 의심스러워 나는 즉시 우리 파견대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행되어온 최모는 『모기관원』이라고 버티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증명서도 없었고 횡설수설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방에 있는 여성에게 최를 만나게 된 경위를 묻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했다.

이 여성은 서울 모 여대 3년 재학중인 오모양(당시 24세)으로서 단신 친척집을 찾아 대구로 가는 길이었다. 오양은 피란민들 틈에 끼어 산길을 내려오다 보따리를 끄르고 감자를 먹으려고 할 때 군복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젊은 여자가 어떻게 혼자 후방까지 고생스럽게 걸어가느냐, 돈만 있으면 군복을 입고 대구까지 「트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수가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는 것이다. 9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으나 돈이 많지 않아 모자랄 것 같다고 말하자 『여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봐 준다. 조용한데 가서 의논하자』는 바람에 역까지 따라가 돈을 꺼내다 연행되었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최가 간첩이거나 피난민을 괴롭히는 자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심문 끝에 최는 『오양이 감자를 꺼낼 때 보따리 속에 있는 돈 뭉치가 눈의 띄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역사에 끌고 갔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최는 소지품 검사 결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피란 보따리도 없어 근처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했다.

처음에는 혼자서 우연히 범행을 기도했다고 우기던 죄도 심문을 계속하자 조금 떨어진 곳에 일당의 본부가 있으며 피란가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여자만 골라 겉 복을 입혀 대구까지 「트럭」으로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여러 차례 금품을 빼앗았다고 드디어 털어놨다.

나는 대원 4명과 함께 최를 「지프」에 태우고 이들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최가 가리켜 준 그들의 소굴은 둔포서 온 양쪽으로 10리쯤 가서 다시 약 30분쯤 산으로 걸 어 올라가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이었다. 집 안에 10여 명의 범인들이 있다는 최의 말에 우리는 집을 포위하고 급습했으나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최가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 자리에 최를 꿇어앉히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위협하자 최는 약 5백m쯤 떨어져 있는 산속 천연동굴이 진짜 본부라고 가르쳐 주었다. 대원들에게 관솔로 횃불을 만들게 한 다음 최를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자갈을 물려 나무에 묶어놓고 나는 권총과 횃불을 들고 굴 속으로 뛰어 들었다. 다른 대원들도 수류탄의 안전 「핀」을 뽑아들고 자동소총을 겨누며 뒤따라 들어왔다. 굴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좁았으나 ㄱ자로 꾸부러진 통로 끝에는 10평 되는 넓은 굴이 있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 수류탄을 터뜨리면 죽는다』고 우리가 위협하는 순간 얼빠진 일당은 기계적으로 두 손을 들었다. 대원들은 즉시 포승줄 하나로 10여명의 범인들의 손을 뒤로 돌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함께 묶었다.

이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의 무릎을 꼭 붙잡으며 『선생님,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범인들을 굴 밖에 꿇어앉히고 머리와 옷매무새가 헝클어진 여인의 사연을 들었다. 이 여인도 서울서 혼자 피란길을 내려오다 범인들에게 걸려들어 돈을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범인들은 돈을 몽땅 빼앗고 난 다음 여인을 욕보이려 했으나 워낙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굴 밖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냇가 돌 위에 세워 놓고 『하느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려라.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다시 굴속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굴 밖에 망보는 보초가 없었던 것이다. 위기일발에서 구출된 여인의 말을 듣고 나는 여인이 협박당한 바위 있는 곳으로 가봤다.

순간 나는 너무나 참혹한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위 뒤에는 10여 명의 여인들 시체가 돌로 머리가 깨진 채 버려져있기 때문이다.

제2의 백백교 사건이라고나 할까. 남들은 피와 땀을 흘려 괴뢰군과 싸우고 있는데 산 속에 숨어 이처럼 잔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니 - 치가 떨릴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병역기피자로 당국의 눈을 피해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어울려 피란가는 여성들의 돈과 몸을 빼앗고 죽여 버린 불량배들이었다. 나는 범인 일당을 대전 육군 헌병대로 이송했다.

세상은 넓고도 좁았다. 내가 목숨을 구해준 오 양은 바로 나의 고향 선배의 여동생으로 훗날 밝혀졌던 것이다.

위급한 때를 만나면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10여명의 여성들이 처참하게 변을 당했으니 범인들이 얼마나 흉악무도했는지 짐작 갈 만했다. 공산도배보다 몇 배 흉악한 범인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

미 공군의 활약

이번엔 이미 기록한 한 · 미합동항공 첩보작전에 의해 수집된 귀중한 첩보가 정보화하여 실지 항공작전 면에서 어떻게 이바지했는가를 미 공군의 활동을 통해 적어보기로 하겠다.

6 · 25동란 중 양측의 전쟁수행 방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중공과 북괴는 지상전 위주의 작전을 했고 「유엔」군 측은 공중전을 위주로 한 입체작전을 폈다고 할 수 있다.

동란 중 「유엔」군 측은 거의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 이것을 토대로 적을 압도하여 열세에 몰렸던 아군을 구출하고 다시 북진을 거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전회담성립에도 막강한 공군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나의 후임으로 공군본부 정보국장 및 공군특무부대장을 지낸 후 예편한 김종렬 씨는 그의 저서 정보의 역할에서 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 극동공군이 북한 지역에 어떠한 전략폭격을 실시했는가를 상세히 전해주고 있다.

『1953년 3월 15일, 중공의 주은래는 조속한 전쟁종결을 희망하는 성명서를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6일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공산 측 태도는 성명서와는 달리 회담결렬직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황당무계한 상투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 당시 북한 내에는 산업 시설 · 철도 · 교량 · 발전소 · 주요도시 등 80% 이상이 파괴되어 남은 것은 전답과 지상군 뿐이었다.

「유엔」군은 압도적인 작전상의 우세에도 좀처럼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공산 측을 어떻게 하면 동의하게 하느냐는 심각한 고민을. 했다. 이때 「워싱턴」 군사정책 입안자들은 「북괴와 중공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격감 내지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산업시설 · 철도 · 발전소 등 의 파괴보다 좀 더 근본적인, 즉 군대와 북한주변의 생명을 유지함에 필요불가결한 쌀의 공급을 철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쌀 생산의 원천이 되는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를 파괴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예상

외로 조기 종결될 것」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합동참모본부에 냈다.

그러나 「워싱턴」 당군은 인도적 견지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군사시설까지 유실될 수 있는 저수지만 폭격하도록 지시했다. 53년 5월 13일 평양 북쪽 20리 지점에 있는 덕산저수지, 3일 후인 16일에는 평양과 순천 사이에 있는 자산저수지가 각각 59대 및 90대의 F-84전폭기에 의해 파괴되어 홍수로 부근의 철도와 공로, 그리고 전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얼마 후 「클라크」 장군은 공산 측에 대하여 휴전에 관한 최종 요구를 제시했고 공산측은 과거의 강경한 태도를 돌변, 6월 8일 오랫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포로송환 문제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 문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7월 27일 휴전에 동의했다』(간단히 요약했음)

이처럼 패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적으로 하여금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굴복시킨 미 극동공군의 활약은 많은 일화를 낳았다. 그중 몇 가지 간추려서 소개하겠다.

동란 중 최초로 적기를 추락시킨 영광은 미 극동공군 제8전폭기 비행단 제68비행대대 「윌리엄 · G · 허드슨」중위가 차지했다. 「허드슨」 중위는 50년 6월 27일 상오 김포상공에서 기습해온 괴뢰 YAK 전투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미군기로서 최초의 희생을 입은 것은 50년 6월 29일 탄약을 싣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던 C-54 수송기였다. 적기의 공격을 받고 비행장에서 불탔다.

한편 6 · 25동란이 발발한 후 미 공군의 폭격기 사령부 제5공군과 미 해병대 및 해군 등 각 곳에서 출격하게 되자 작전구역이 구분되었다. 한강 이북은 폭격기 사령부, 이남은 5공군, 해병대와 해군기는 양쪽에서 작전했다. 그러나 한강철교는 한강 사이에 걸쳐 있었으므로 3자 합동으로 끊어버렸다. 최초의 B-29대작전은 50년 8월 15일 아직도 민족의 감격이 채가시지 않은 광복절에 거행되었다.

B-29 98대가 대거 출동한 이 작전은 낙동강연변, 왜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폭격기 사령관 「에메트 오대니얼」 소장도 참가했다. 이때 폭격은 폭탄을 적지에 융단 깔듯이 퍼붓는 이른바 「카피트 봄빙」이었다. 적은 이 작전으로 인적 정신적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소련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 6 · 25동란 때 첫선을 보여 「유엔」군 측을 한때 놀라게 했던 MIG-15 첫 격추의 영광은 F-80조종사 「러셀 · J · 브라운」 중위에게 돌아갔다. 압록강 부근 상공에서 성능이 우수한 MIG를 보기 좋게 떨어뜨린 것이다.

51년 5월 9일 중공과 북괴가 공중전으로 전환하려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51년 3월 극동공군은 공산측이 북괴지역 각 비행장 복구작업에

나섰다는 것을 항공정찰로 확인했으나 얼마 동안 모르는 채 내버려 두었다가 적이 비행장을 다 복구하고 신의주 비행장에 MIG 40여 대를 갖다 놓았을 때부터 매 일 B-29와 각종 전투기를 동원, 전파시켰다.

동란 중 최후로 적기를 떨어뜨린 것은 정전협정이 발효된 53년 7월 27일이었다.

이날 밤 10시를 기해 총성이 멎게 되었지만 이날 상오까지 미 극동공군은 작전을 펴 기지 로 돌아오던 「릴프 · S · 파어」 대위가 북한 만포진 상공에서 적 수송기 LI-2 1대를 발견, 추락시켰다.

동란 중 북한지역에서 공군이 폭격할 수 없는 2개의 지역이 있었다, 중공의 자극을 염려한 수풍「댐」과 소련의 자극을 피한 함북 나진이었다. 그러나 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풍「댐」은 52년 6월 17일 미 극동공군의 공격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만 파괴했는데도 당시 만주지구 전기공급량의 23%가 줄어들었고 51개 주요 공장 중 30개가 가동불능상태에 빠졌다. 반면 나진은 끝내 금지조치가 풀리지 않아 전화를 입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남았다.

『회고해 보면 대전서 싸울 때 미5공군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었다. 공군이야말로 계속 남진하는 적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같이 공군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5배 넘는 적을 맞아 그 정도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24사단이 그만큼 버리기 때문에 후속부대 상륙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군 지원이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딘」 소장, 그의 회고담에서). 『미 공군의 폭격과 해군의 엄호만 없었더라면… 통분을 금할 수 없다…』(정전회담석상에서 북괴대표 남일). 이들은 서로 사상과 소속을 달리했지만 미 극동공군의 막강한 힘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미군포로들 명단

「미군포로명단입수작전」이 52년 늦은 여름 6006부대와 공군특무부대합동작전으로 전개되었다. 52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펼쳐진 작전은 정전회담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것이 많았고 포로명단 입수작전도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양측 포로 교환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찌는 듯한 늦더위가 매일 맹위를 떨치고 있던 52년 8월, 6006부대장 「니콜스」 씨는 합동작전부대인 공군특무부대장과 조모 상사(현 공군중령)를 자기 방으로 초청하여 『평북 희천 미군포로수용소에 들어가 미군포로들의 명단을 입수해야겠는데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대장과 조상사는 작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치밀성을 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조상사와 동기생 중에서 침착하면서도 용감하고 동작이 빠른 김모 중사를 즉석에서 천거했다. 김중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의협심과 신출귀몰 한 신속성 때문에 「물귀신」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다.

부대장으로부터 미군포로 명단 입수작전 주임으로 임명된 조상사는 이번 작전은 정규군인보다도 민간인공작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 곧 김중사와 함께 평안도 피난민들이 많은 인천으로 내려갔다. 피난민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북희천 지구에서 월남한 현지 민 5명을 선발했다. 당초 계획은 4명만 뽑을 예정이었지만 훈련 중 사고를 고려하여 예비로 1명을 더 뽑았다,

이 작전의 중요성을 인정, 협력해 줄 것을 다짐한 이들 5명에게는 도수방어 및 비정규전 전투훈련, 은신법, 유사시 통신방법, 보안교육 등 공작활동의 필수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이 끝난 후 희천에 들여보낼 인원을 추릴 때 여분으로 뽑은 몸이 약한 사람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중사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빼자고 했으나 조상사는 이번 작전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여건이 좋은, 즉 접근성이 좋은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김중사를 설득, 「스페어」로 뽑은 사람을 합하여 4명을 결정했다.

「스페어」로 뽑은 사람이 희천 미군포로 수용소 근방 지리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김중사를 「리더」로, 공작원 4명을 포함한 특수반이 서해 모섬을 모기지로 삼고 전지에 잠입하기로 되었다. 이들은 괴뢰군 복장을 하고 썰물 때를 이용하여 적지에 상륙 했다. 썰물 때에는 갯벌을 걸어서 육지에 곧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지에 상륙한 이들은 참기 어려운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드디어 목적지인 희천에 잠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중사는 희천 포로수용소 근처 민가에 은신하고 공작원 4명은 갖고 간 금덩어리와 의약품으로 포로수용소에 드나드는 부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운이 좋았었다.

「스페어」로 뽑았다가 함께 간 몸 약한 사람의 조카 되는 여인과 또한 그와 가깝게 지냈던 이웃 아주머니가 바로 미군 포로수용소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 당시 희천 미군포로수용소의 경비는 엄했으나 내부시설은 보잘 것이 없었다. 자체 취사 시설이 없어 인근부락 아주머니들이 밥을 지어 포로들에게 나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위험한 일이기에, 망설이는 이들 2명의 여인들을 김중사는 며칠 동안 몸 약한 사람과 함께 설득, 결국 이 작전에 적극 협조하게 만들었다. 김중사는 이들 2명의 여인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화이트 칩」을 나눠줬다.

포로명단입수 작전을 짤 때 제일 고심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미군포로들로 하여금 믿고 이름을 써주게 하느냐는 문제였다. 당시 북괴는 「제네바」협정의 『포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만 말하고 그 외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정보를 얻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미군포로들을 괴롭히고 속여 왔기 때문에 만약 포로들이 이들 여인들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애쓴 보람이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중사 일행은 미리 준비해간 「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아주 넓고 보드라운 흰 특수직 물을 세로 2㎝ · 가로 3㎝ 정도로 자른 작은 조각이었다. 「니콜스」 씨는 「칩」의 한쪽에 유엔군 사령관 명의로 『당신들의 송환에 관계된 것이다. 의심 말고 이름을 써주라』고 인쇄했다.

안심이 안 된 「니콜스」 씨는 영문인쇄의 활체를 평소 미군들이 공문서에서 늘 보았던 낯 익 은 것으로 했고 문장도 「슬랭」을 많이 써서 작성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진 것 이었다.

밥을 나르는 두 여인들은 치마폭 안에 이 「첩」을 몇 장씩 바늘로 찔러 빼기 쉽게 숨겨 가지고 들어가 밥을 줄 때 미군 손에 살짝 쥐어 주었다. 신변에 늘 극도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미군포로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여 이름을 써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자 사차 한두 명씩 이름을 써주기 시작했다. 김중사가 지시받고 간 1개월간이 거의 됐을 무렵에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여러 번 넘기면서 희천에 있던 미군 포로 1백여 명의 명단은 거의 입수했다.

김중사는 똘똘 말면 성냥 1개비 정도의 부피 밖에 안 되는 1백여 개의 「칩」을 2명의 아주머 니들을 시켜 자기가 입고 갈 괴뢰군복 옷 속에 누비도록 했다.

성공리에 명단을 입수한 김중사와 4명의 공작원들은 처음에 들어 갈 때보다도 더욱 심한 난관을 돌파하고 다시 서해의 모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떠난 지 1개월여 만에 김중사는 괴뢰군복 차림 그대로 안국동본부에 호송되어 조상사와 함께 곧 「니콜스」 씨 방으로 갔다.

『모리배! (「니콜스」씨가 친한 사람에게 쓰던 애칭) 수고했어요』 김중사를 본 「니콜스」 씨는 한국말로 첫마디를 던지고 「위스키」를 따라 서로 축배를 올리자고 청했다.

때마침 돌아온 당시 공군특무부대장 김모 소령(대령예편 · 전 공군정보국장)은 김중사를 보자 와락 끌어안고 노고를 치하했다.

『성과는 어떤가』라는 김소령의 말이 끝나자 김중사는 입고 온 괴뢰군복 속에서 누벼온 「칩」 을 꺼냈다. 책상 위에 늘어놓은 「칩」에는 연필로 이름을 쓴 것도 있었지만 더러는 숯검정으로 써서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더러는 괴뢰감시병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쓴 듯 알아보기 힘들게 쓴 것도 있어 어떤 포로는 자기 옷깃을 찢어 이름을 써 보냈는데 옷깃 헝겊이 너무나 헐고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어 포로들의 비참한 생활이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었다.

한때 이 작전은 당시 북괴상공에서 공중작전 중 실종된 「밴플리트」 장군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데도 부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다.

그 후 공군특무부대는 희천서 협조해 준 여인들을 다른 임무로 그곳에 갔던 대원들이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함께 내려와 자유를 찾아줌으로써 은혜를 보답하기도 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1년 전에 벌써 「유엔」군 측은 북괴가 포로를 송환할 때 내놓을 포로명단에 속임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미리 이 같은 포로명단입수작전을 여러모로 폈다는 사실은 전쟁이란 전투도 어렵거니와 휴전을 맺는데도 위와 같은 숨은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 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적 후방에 첩보망

민족의 비극을 초래한 6 · 25동란 북한 괴뢰는 총칼로 아름다운 이 강산을 적화하려 했지만 우리 국군용사들은 낙하산을 메고 적지에 뛰어내려 피로 물든 불모지대에 평화의 씨앗을 키우는 한줌의 흙이 되거나 밀알이 되어 겨레의 가슴에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낙동강까지 전선이 옮겨졌을 때 항공 첩보작전 면에서는 임무수행에 있어 많은 애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급속한 아군의 작전상 후퇴로 적 진격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첩보망 구성과 통신연락 방법의 미달로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적성파악이 어려웠던 것이다.

공군정보당국에서는 당시 정보 고문관격인 「니콜스」 씨와 협의, 50년 8월 초부터 낙하산으로 적 후방에 대원들을 투하, 첩보망을 구성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행하게도 이때 공군에서는 풍부한 낙하산 강하 경험과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요원들이 있었다. 이들 중 김 갑출상사(준위 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42년 2월 15일 일본 육군이 「수마트라」의 유전지대「파렘방」에 낙하산 투하공작 작전을 벌일 때 직접 참가한 우수한 특수 작전 기간요원이었다. 그는 1백 20여 회의 강하경험을 갖고 있었다.

공군정보당국은 앞으로 벌일 각종 낙하산 침투 첩보작전에 대비, 이들 기간요원과 새로 공군에서 모집한 요원을 50년 8월 22일 1차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로 보냈고 같은 해 9월 7일과 9월 18일에는 제2차 및 제3차 훈련요원 등 모두 OOO명이 일본 미군기지로 급파됐다. 이들은 이곳 미군기지에서 낙하산

훈련 · 유격전 · 도피와 생존에 관한 훈련 · 특수첩보수집요령 · 특수 송수신기 조작 요령 등 단기간 훈련을 받고 귀국했다.

공군 정보당국은 훈련을 받고 귀국한 대원들을 한밤중에 적지로 공중 투하, 첩보망 구성과 첩보 수집에 전력하는 한편 한쪽으로는 대구 근방에 비밀 기지를 마련, 공군 및 각 군 공중 투하요원의 국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52년 초에는 공군 특무부대 산하에 낙하산 관계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가 별도로 창설되어 이모대위(중령제대) 차모상사(대위 제대) 등이 특수 요원의 양성과 작전지휘를 맡아 빛나는 공훈을 많이 세웠다.

공군 정보당국이 낙하산으로 특수 요원을 투하시킨 것은 50년 8월 1일이었으며, 이때는 아직 일본 주둔 미군기지에 제1차 훈련요원을 보내기 전이었는데, 전라도와 경기도 지방에 공군이 갖고 있던 요원을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낙하산 첩보작전을 전개한 것은 일본 미군기지에서 대원들이 돌아온 후였다. 9 · 28 서울수복 직전에는 문산 방면에 대원들을 투입, 서울로 진격해 오는 아군을 위한 특수작전을 하기도 했다. 특히 51 년 이른 여름 평북지구에 투하된 유모 중사 등 21명의 대원들은 장기간 대담무쌍한 작전을 벌였으나 무운이 다했는지 괴뢰에 붙잡혀 거의 전원이 처형된 애석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괴뢰군 군관(장교)과 전사(사병)로 가장, 완전한 괴뢰군과 같이 부대 행동을 하며 수개월 동안 적의 보급품까지 받으며 평남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비밀 주요군사 시설 폭파, 신속한 첩보수집과 연락, 아군기에 대한 항공공격 목표의 지상유도, 적 지휘계통의 교란 등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빛나는 공훈을 세웠으나 끝내는 위장 부대임이 적에게 폭로되어 평양에서 모두 처형되었다. 북괴는 이 사실을 방송하기도 했는데, 처형된 대원중 1명이 총탄을 맞고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다가 탈출, 구사일생으로 사선을 넘어 돌아옴으로써 대원들의 최후 모습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귀신도 놀라는 용감하고 대담한 활동과 그 불멸의 찬란한 전과는 길이 비밀전사에 빛날 것이며 다시 한 번 조국의 통일을 위해 비명에 간 그들의 넋에 만강의 경의와 애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처음에는 낙하산 첩보대원들이 단기 교육을 받은 데다 작전 경험이 없어 적지에서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 후에는 북괴가 낙하산이 투하된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총칼로 위협했던지 대원들의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일부 대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다 적탄에 맞아 공중에서 숨을 거두는가 하면 일부 대원들은 엉뚱한 곳에 떨어져 예기치 못한 고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낙하산 작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인적 손실은 적은 것이 아니었다. 당시 낙하산 정보요원들의 수송을 전담한 「유엔」군 수송기 조종사들이 한국지리에 익숙지 못한데다 야음을 틈타 투하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이들 수송기도 비밀 특수작전 상 엄호기가 따르지 못하는 단기 행동 때문에 수송기가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잊지 못할 일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와 대구 비밀기지에서 훈련시킬 낙하산 특수요원을 모집할 때 애국심에 불타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왔던 일이다. 이들은 교육을 끝낸 다음 적 후방 요지와 적 주요 집결지 및 보급로 부근 등에 뛰어내려 용감하게 각자 맡은 바 특수 임무를 수행했으나 많은 인원이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숨져간 것 이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가장 큰 격전장이었던 한국 전선에서 「니콜스」 씨는 그의 불요불굴의 투지와 임무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 냉정성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용감성과 자기희생, 외모와는 전혀 다른 치밀하고도 원대한 계획과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자유 전선에 있어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전설적인 신화적 존재로 오늘의 항공 첩보작전 사상에 기록되게 되었다. 특히 「니콜스」 씨의 직속 대원으로서 특공작전 수행 중 어느 때나 한국인의 모든 사정에 최대의 이해와 호의를 갖고 돕고자 애썼던 「피터슨」 씨도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다.

명예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오로지 묵묵히 임무수행에만 최대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남몰래 생명을 불살라야 하고, 설사 죽음이 다가와도 임무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숨져가거나 또는 전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보안상 이를 세상에 공표하지 못하는 비밀 전 근무자들의 많은 활동 중 시일이 지난 것 한 조각만 지금까지 추려서 소개한데 불과하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상세하게 소개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들과 「니콜스」 씨 등 한미장병들의 변함없는 건투를 빈다. 또 비밀 전 근무 중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여 호국의 영령으로 화한 수많은 전우들의 영령 앞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발전하는 조국의 영광된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명화감상 : 삼왕내조의 화고

○ 「레오날도 다빈치」작
<1452～1519>이탈리아
○ 「루불」 미술관 소장

자 조 정 신 · 자 립 경 제 · 자 주 국 방

정 예 공 군 되자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